

1964年 3月 20日 印刷
1964年 3月 25日 發行

공군

1

第 82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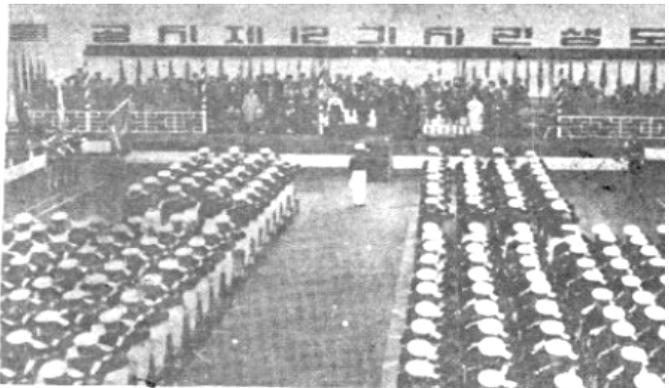


1964

장(張)참모총장 도미찰(渡美視察)
 장성환(張盛煥)참모총장이 미공군참모총장
 르메이대장의 초청을 받아 도미찰을 마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미공군항에 노착한 장전모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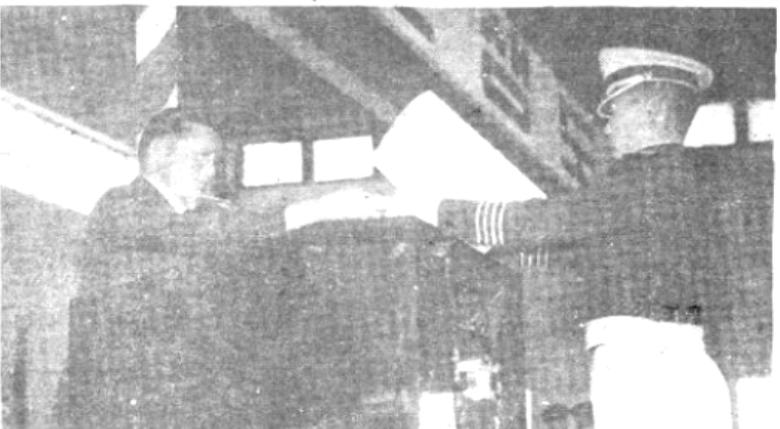
도미찰 중 하와이 Hickam 미공군 기지에서 태평양지구 미
 공군사령관 스타트대장의 영접을 받기 전 장전모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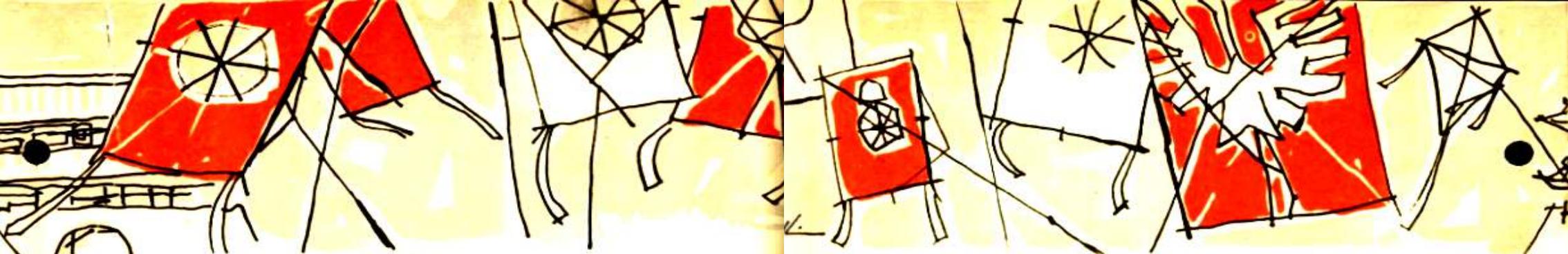
공사졸업식 성거(盛擧)

공군사관학교 제12기 사관생
 도 졸업식이 3월 6일 박정희대
 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내외귀빈
 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
 었다.

영연의 대령장에게 박기박도의 수여



정세레머니에서 재학생들의
 축하를 받기 전 장전모



공군 제82호 차례

<송시> 새아침의 기폭(旗幅) 마중기(馬鍾基) 14
 <이호의 말> 꽃씨를 뿌리는 마음 이희복(李熙福) 16

**(특집) 핸들을 바로잡자
 <새로운 질서확립을 위하여>**

국민도회의 새로운 질서확립 구자균(具滋均) 19
 문화재건의 방향(方向) 이승녕(李崇寧) 23
 경제의식의 전환(轉換) 이은복(李恩馥) 27
 심기일전(心機一轉) 김태길(金泰吉) 30

제9차 아세아반공대회에 참석하고 박재간(朴在侃) 14
 빅리프트 작전의 분석 김득준 90
 조직분석 손용기(孫龍基) 125

새생활 새가계

새로운 식생활 윤주영(尹注榮) 101
 새로운 의복생활 문 혁(文 赫) 104
 새로운 주택생활 유기영(柳起英) 106

오끼나와를 다녀와서(하) 강신봉(姜新鳳) 87
 중공병사의 신분 및 사기분석 장세원 109
 중간지휘관의 능력측정에 대한 소고 최규순(崔奎淳) 115

가정란

남편론 이문규(李文奎) 127
 아내론 이인숙 123

<양케이트>

64년의 강행군(強行軍) 편집실 118

(특집)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민주주의의 성장과 민족주의 박희범(朴喜範) 51
 국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정신 (春菴) 58
 세칭 민족적민주주의론 홍성유(洪性面) 62
 한국근대화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權泰勳) 67

지정란

민주주의원리<제8회> 이극찬(李克燦) 75
 공산주의비판<제8회> 김창순(金昌順) 81

군내현상작품입선작

<수필> 밤 열시 후 구월환(丘月煥) 132
 <공트> 털보 강상사 김병로(金秉老) 136
 <생활수기> 마음을 적서주는 비속에서 박래창(朴來昶) 143

100포진

<시> 조국의 하늘 박웅진(朴雄鎭) 150
 <시> 미로(迷路) 김석철(金錫喆) 151
 <수필> 반투과성막(半透膜) 판문점 이상우(李相禹) 147

<연재>

익명(匿名)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158
 제3제국의 흥망, 종말의 서곡<제5부> 샤이러 164

EC-47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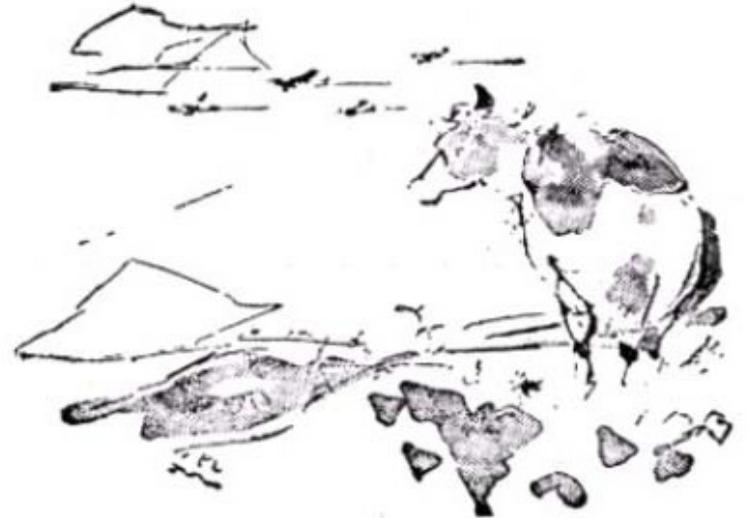
EC-47기 인수식
계기이착륙등항공보안시설전반을테스트할점진예행위하기 EC-47기의인수식이 2월 25일 주키지에서거행되었다.
<사진위:미314사단장 미첼 장관이 박참모차장에게인수협정서를수교하고(왼쪽)>



프레스네장관박참모내방
미5공군사령관프레스A프레스네중장이 2월 20일 프레스네 박참모차장을예방하였다.

공 군

제 8 2 호



1 9 6 4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공군대령 김영호
인쇄처:공군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 백춘득

-송시(頌詩)-

새 아침의 기폭(旗幅)



마종기(馬鐘基)

다시 오는 해마다 부푼 마음으로
우리가 희구(喜懼)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홀홀하였던 세계의 주위에서
우리의 몸부림은, 외침은
얼마나 허망(虛妄)하게 되돌아 왔던가.
그러나 이해 새 아침,
새 하늘에 새 기폭(旗幅)을 올리면서
우리는 조용히 웃기를 여민다.

기적보다는 성실을,
화사(華奢)한 꿈본는 생활을
허나 의로운 일을 위한다면
죽음을 초극하는
순수의 용기를!
기폭은 새로운 몸짓으로
가난한 반도를 누비며
우리의 가슴에서 퍼덕인다.
쉬임없는 인내,
우리의 시야에서 기폭은
울림을 그치지 않으리라.



꽃씨를 뿌리는 마음

이희복(李熙福)
〈문교부 수석편수관〉

새해가 오면 새 봄이 온다고 하고, 입춘(立春)이 되면 계절이 바뀐다고들 한다. 인간이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간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건 종전과 다른 기대를 가진다는 마음과 통한다. 그 기대란 때로는 결의나 포부가 될 수도 있겠고, 사태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 행동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전진과 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국가민족의 발전에 관해서는 국민 누구나 갖가지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와같은 국가의 전도(前途)를 복(卜)하는 권리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제3공화국이 발족한 갑절신년을 맞이한 우리는 그 기점에 서서 예년과 달리 더욱 국가 장래를 위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각도를 달리하면 미완성의 도가 많다는 뜻도 되겠으나 혁명과업이란 국가 중흥의 목표가 모두 완성되지 못하였음도 인정하는 바이다. 수신제가에 있어서 몇해의 계획과 노력을 요하게 되니 국가의 경론(經論)에서는 더욱 시일과 노력과 실천의 과정을 가져야 함이 근대 국가의 관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곧 국의 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반만년이라는 긴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근대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 짧은 기간내에도 상당한 시련을 겪었던 것이다.

평화적인 정권의 교체가 있었던가 하면 4.19나 5.16 같은 혁명도 일어났던 것이니 우리는 더욱 제3공화국의 발족에 공통된 기쁨과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마당에 꽃씨를 뿌리고 그 장래를 바라보는 마음과도 흡사하다. 누구나 꽃씨를 뿌릴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중을 위하여나 미화를 위하여나 간에 그 꽃씨가 움을 트고, 자라서 최초로 의도한 바 목표가 이루어 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한결같다. 그 과정이 길거나 짧거나 간에 꽃씨의 주인은 상당한 주의와 정성으로 이를 지켜보고 가꾸어 지니 마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위정(爲政)하는 분들을 바라보고 아끼는 심정과 통한다. 위정자는 위정자만으로 국가의 사업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꽃이 땅에 뿌리를 박고 양분을 섭취하고 태양의 열을 받아 자라나듯이 위정자 역시 국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여건이 없어서는 기대한 활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에 발전된 국가에서는 위정자는 국민의 길잡이로만 충분할 것이요. 낙후된 국가에서는 국민의 계몽부터가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협조가 국가를 좌우한다는 말과도 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누군가 꽃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제3공화국의 토대가 굳건해지고, 국민경제가 풍족해져서 윤택한 문화의 꽃이 피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기간 중 세웠던 우리의 기풍이나 우리의 의욕은 계속유지할 것이며 새로운 꽃의 물색(物色)이 있고 구실이 다르듯이 우리도 특색이 있는 문화와 전통이 있고 생활양식이 있으니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하여도 우리의 사회에 맞는 꽃이라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3공화국에 피우게 할 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번성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핸들을 바로잡자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새해가 왔고 새 정부가 섰다. 낡은 것, 묵은 것, 후회되는 것을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이며 보람된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인적구성의 변개(變改)만으로서 족하지는 않다. 이보다 앞서 우리의 뇌리 속에 잠재한 근본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혁신, 나아가서는 일상적 생활양식에서부터의 새 질서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 발걸음을 힘차게 내 댈으려는 이즈음 다시는 모순과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핸들으르 똑바로 잡고 나아갈지 우리 모두 생각하여 보자.

- ◆ 국민도义的 새로운 질서확립
- ◆ 문화재건의 방향
- ◆ 경제의식의 전환
- ◆ 심기일전(心機一轉)

국민도义的(國民道義)의 새로운 질서확립



구자균(具滋均)
<고대(高大) 교수>

우리 새 공화국의 나라 만들기에 요구되는 국민도의의 방향을 말하려는 제목이 주어졌으나, 이 방면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요, 국문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른바 수신교재 같은 내용을 가지고 덮어놓고 어린 사람에게 설교하듯 주절대 보았댜자 아무도 거들떠 보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위정자나 피치자(被治者)인 일반 대중을 모두 국민으로 보고 위정자로서의 국민도의의와 일반 민중으로서의 국민도의의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하나의 교양으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한다. 일반민중은 도의 면에서 위정자의 하는 대로 풍화(風化)되는 것이고 또한 올바르게 덕화(德化)된 일반민중이 많은 사회라야만 건전한 국가를 이룩하겠기 때문이다. 대단히 진부(陳腐)한 말 같으나 우리 국민들은 논어나 맹자에서 공자나 맹자가 주장한 바를 터득하여 그 가운데서 현대에 맞는 것을 적취(摘取)하여 정신적 뒷받침으로 삼아주었으면 하고 싶다.

물론 사회적인 조건과 성격이 중국고대의 공자나 맹자가 처해있던 춘추전국시대와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은 판이하다 함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정치경제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어지럽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맹자엔 '민주위도야(民主爲道也), 유항산자유항심(有恒產者有恒心) 무항산자무항심(無恒產無恒心)'이라고 한 것 같은 정신은 현대에 있어서도 상식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서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겠다는 점에 위정자는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어야 하겠고 따라서 정부가 정책 수립 면에 있어서 세계 최선의 정치경제의 지식과 이론을 도입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일반 민중에게 최저의 생활보장을 해 준다는 점에 위정자는 최고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위정자로서의 국민도의의 제일의 목표에 이것을 두고 이것을 어기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한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완수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일지니 이를 수행

하자면 중간에 실패도 있을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를 숨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이를 시정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맹자에도 말했듯이 '군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일식 월식과 같아서 백성이 다 이를 볼 수 있으나, 그것을 고침에 있어서 백성이 모두 이를 우려러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언충신 행독경 수만맥지방 행의 언불충신 행불독경 수주리 행호제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위령팔편(威靈八篇) 위정자의 말 하는 것에 믿음과 정성이 있고 말한 것을 실천 하에 있어서 조심성 있고 도답계만 한다면 가장 다스리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개지 오랑캐의 나라라도 잘 다스려질 것이나, 만약 그와 같지 못하다면 비록 가까이 있는 조그만한 골이라 할지라도 잘 다스려지겠느냐고 하는 것이다. 정치가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로 해야 할 좋은 진리라고 하겠다. 쉽게 말하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는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주도(主導)정치시대가 아니고 정당정치시대요, 삼권분립의 시대라 사정은 다르다 하겠으나, 그러나 위정자, 정당, 국회 내의 여야를 막론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을 것이며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것 없이는 결코 일반민중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겨레도 이제는 어지간히 선거민(選舉民) 으로서의 자각에 있어서는 켜바 있는 민중이라고 생각된다. 역설적인지는 모르겠으나 3·15부정선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 방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교훈을 주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신의라고 했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위정자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몸바쳐 일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며 민중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네들을 대해주는 일꾼인 위정자만을 믿고 따를 것이다. 이러한 점이 정치의 ABC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이란 국어 어휘의 뜻 속에 요사이와 같이 속임수가 있다든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결들여져야 한다든지 비록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표리(表裏)가 다른 계주를 부려야 한다든지 한다는 뜻이 잠재되어 쓰여지고 있는 정치관념을 가지는 정치인들이 우리 제3공화국을 이끌고 나간대서는 알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정당당하게 민중을 위할 줄 아는 위정자만이 정권을 잡고 그러한 사람을 믿을 줄 아는 민중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민중을 농락(籠絡)하는 위정자라면 모름지기 자연도태(自然淘汰)시켜 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만 복지사회도 경제적

변영도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다스림을 받는 쪽 일반민중으로서 볼 때 자유당정부도 지났고 민주당 정부도 지났으며 군사정권도 지나가 버린 오늘날 새 공화국을 맞이한 우리로서 일반 새 공화국정부가 어떻게 해 나아가는가 호의를 가지고 보아줄 아량을 가져야 옳으리라고 믿는다. 물론 언론과 비판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민중이라야 할 것이다. 민가사유지(民可使由之)의 우민정책은 이미 지난 시절의 독재자의 모토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맡긴 이상 시끄러운 도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의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장을 어디까지나 넓게 만들어 놓아 주는 것이 일반민중이 가져야 할 새로운 도의이라고 믿는다.

재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인 통계로 보아 가장 국민생활수준이 낮고 일인당 수입이 적은 제6집단에 놓여 있는 나라라 한다.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것이 훨씬 낫아지리라고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누가 맡는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위정자가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항심(恒心)이 있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함에 트림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반민중은 현실을 직시하고 최대의 내핍(耐乏)생활을 감수하여 앞날에 일단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질서확립을 위한 도의라고 생각한다. 누가 맡든지 어려운 진대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는 위정자들에게 마음껏 봉사의 길을 열어 보도록 일을 시켜보고 나서 볼 일이니 어쨌든 새 공화국에 새로운 희망을 걸어 볼 일이다.

새 공화국정부가 일도 시작하기 전에 시(是)니 비(非)니의 공죄(功罪)로부터 떠들어대는 민중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물론하고 과거로 돌리고 앞날의 훌륭한 정책수립에 과감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선 민중은 민중대로 모든 것을 맡겨 볼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함인가 하면 일반민중은 민중대로 각개인의 본분대로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상인은 상인대로의,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학자는 학자로서의,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본분을 지켜 나아가 보자는 것이다. 실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업자도 우선 정부의 실업자대책에 매달려 보고 우선 대책이 서기를 기다려 볼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 위정자의 고민이 있고 마땅히 깊게 생각해 줄 바가 있으리니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먼저 농총으로 가든지 지계를 지든지 자기 개척을 해 나아가면서 어디 새 공화국에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 봉급생활자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리만큼 살기 힘들다. 그러나 실업자, 농민들에 비해서 볼 때 우리는 월나라 인구 전체의 비율로 보아 아마 상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러나 생각건대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이러한 지식층이 아닐까.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층인 봉급생활자도 우선 참아보자는 것이다. 전술한 바 공자 같은 사람도 결코 부귀를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다. 다만 인의 아닌 부귀는 부운(浮雲)과 같다고 해서 돌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민중이 곤핍(困乏)이 좋아서 곤핍을 참자는 것을 물론 아니다. 곤핍한 것이 현실이니 우리는 각 계층이 각각 도의를 지켜서 새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시책이 조금이라도 낡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이를 꾸준히 기다려 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위정자들이 부정하고 부패해지지 않는 한 다시 말하여 핸들을 바로 잡고 있는 한 민중은 힘차게 참아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위정자로 하여금 핸들을 바로잡게 하는 민중의 태도인 것이다. 필자도 비록 대학교수라 하나 부양가족을 열이나 가져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터라 이와 같은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스림을 받는 민중이나 한결 같이 새 공화국을 위하여 도의적 생활을 함으로써 핸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민중은 언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부정이 부패가 없도록 양갈진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 아세아(亞細亞) 정세(情勢)

미국의 유명한 세계정세 평론가 리프먼씨는 최근 모 지상(紙上)에서 아세아의 근황(近況)을 다음과 같이 논했다.

- 아세아에 있어서의 제사회의 전통적 기구는 급격히 해체하고 있으며 더욱이 존속가능한 현대적 민족제국가의 창조는 늦어지고 있다. 동시에 아세아는 현대세계 - 그 이념, 그 산업기술 및 그 권력정치와 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하에 있는 아세아 제국은 서구가 근대화 할 때처럼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수는 없는 평편에 있다 -.

문화재건의 방향



이승녕(李崇寧)
(서울대 교수)

일(-).

문화재건론은 건국 후 수없이 시도된 것이지만 그 성과가 보잘 것 없었다고 함은 문화재건이 이룩될만한 기본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지상의 가공(架空)론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전사회의 이해와 의욕이 문제가 된다. 정부의 문교 공보의 양장관이 취임하면 의례히 문화재건을 사업항목으로 들고 나서나 구체적인 구상이 한국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현실성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냐가 의문이었다. 피상적으로 선진외국의 정책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선정해 보았다고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고문(顧問)을 두고 물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문의 질이 문제가 된다. 장관은 마땅히 문화정책을 자기체험에서 세워 가지고 어느 확고한 이념으로 체계화하여 그 현실에 알맞은 구체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첫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의의 부족에서 정책이 동요하여 취임과 이 임 때의 태도는 판이하게 됨이 일반이었고 장관이 갈리면 하나의 계통있는 계속사업이 되지 못하고 카멜레온의 피부색 변화듯 한다. 국회의원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어서 공허한 정략적인 주장이 대체이지 실질적으로 문화재건에 공허한 두뇌의 소유자 같아서 도무지 수준 높은 주장이나 추진이 보이지 않았다. 요는 우선 장관, 국회의원, 국민의 이해의 부족을 솔직히 지적하는 바이다.

(2) 국가재정으로 문화재건에 알맞은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 문교부만 예로 들더라도 예산의 팔할 이상이

의무교육비로 소비되고 그것은 급속도의 취학 아동의 증가로 헤어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어느 여유에 문화재건의 실질적인 역점을 넣을 수 있으랴. 따라서 충분한 예산 없는 정책은 선전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일개교의 1년 예산이 2억 달러 이라니 미국이 한국 원조의 총액 보다는 많다. 이리고서야 문화 운운이 가능한 것이다.

또 일반 기업체의 이해가 부족하다. 기업체라면 부대사업으로 문화재건을 위하여 한 부분을 자담하고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체는 그러한 문화의식이 없는 듯, 일부의 문화상과 장학금 급여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연 무자각하다.

미국 같으면 록펠러, 포드, 카네기 소규모의 문화재단까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고, 중국의 대만 대학을 보니 그 장학금 급여 단체가 수십 개가 있어서 작으면 2, 30인이라도 각자의 제력에 맞추어 노력하고 있다.

그럼으로 문화재건은 정부와 일반사회의 이해와 재정적 준비가 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기로 정부는 용감한 예산 정책에서 일반 기업체는 자진출혈을 각오하고 재정적 제공을 아끼지 말것과 정부와 민간이 일체가 되어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 아니라.

이(二).

그러면 새 정부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건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각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연구기관이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역사, 문학, 어학 같은 국학의 연구기관 하나가 없지 않는가 하니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다. 일본의 동경이나 각 대학에는 연구소가 많이 부설 되고 있는데 일례로 서울대학교에 개통 있는 연구소가 있는가 묻고 싶다. 독립된 건물에서 독립된 진용(陣容)으로 국학을 연구하고 그 업적을 대외적으로 선양(宣揚)할 기관 하나 없이 무슨 문화정책이란 말인가. 연구논문집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외국의 원조금으로 다소나마 자극(刺激)을 받고 있는 현평임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소는 다행한 존재다. 그러나 이와 균형이 맞을 다른 연구소도 마련되어야지 황막(荒漠)한 별관에 50층 대빌딩을 하나 우뚝 세워놓는 격이라면 어딘가 모순이 노출될 것이다. 유전학(遺傳學)연구소가 외국 같으면 수십 수백 개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 국가책임 기구의

유전학연구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새 정부는 문과 방면에선 국학연구소나 동양학연구소쯤은 설립하고 독립기관으로 추진하여 무슨 보람을 보여 주기 바라며 자연과학방면에서도 적절한 것을 한 두 가지 선정해서 연구소를 설치하기 바란다. 이것은 큰 기록으로 청사에 남을 것이라고 하겠다.

(2) 국립박물관, 국학원, 국립도서관을 대확충하기 바란다. 지금의 국립박물관은 소장품의 진열이 자유로 될만한 장소가 못되니 보재를 가지고도 제 구실할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 외국의 경우라면 일개 대학의 부속박물관쯤의 규모일지도 모른다. 국학원도 더 연구기관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립도서관도 수험생도서관을 탈피하여 권위있게 모나들도록 거느린 구상(構想)기에 예산을 마련해야 하난. 외국에 가면 각종의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이 있지 않는가. 한 도시의 박물관의 수는 참으로 많음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은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3) 현역 문인, 예술가, 연화인, 학자, 기술인을 격려할 만큼 선심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지금 문인들도 월간지 간행이나 어느 사업에서 재정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 형식의 원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가예산은 부족이려니 하지만 그리 벽찬 배당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영화계도 그렇다. 어찌 이를 원조하고 사기를 올리느냐에 주력해야지 과세로 그들의 사업을 억눌러서는 아니 된다. 영화계도 상당히 발달한 터에 지금이 가장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미술계도 그렇다. 전시회용의 대건물을 세워 주어야 한다. 경복궁후정의 건물로 어찌잔 말인지, 이제야 미술가들의 요망이 대미술전시장쯤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의 기록을 출판해 주어야 하며 해외로 선전해줄 아량쯤 가짐즉 하다. 연극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조사 연구하여 원조격려해 주고 가능하면 대국립극장쯤은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한다. 공예가, 재래의 기술인이 그 기술과 함께 소멸되어 가고 있으니 이러한 곳에도 유의해야 한다.

(4) 지방 시설을 고려하고 서울 집중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경주의 박물관 부여의 박물관도 대확장해야 더 많은 외국인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상도 고가(古家)에는 고문헌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시설의 불완전으로 충해, 습기로 날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화재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안해진다. 그러나 그 고가(古家)는 이를 이동하기 싫어하니 정부는 보관을 위한 서고와 열람실을 가진 소규모의 도서관을 지어 주도록 배려 있기를 바란다. 호텔 시설의 향상으로

외국인유치와 이러한 시설과의 연결은 한국의 큰 선전과 달러화수입도 가능할 것이 아니랴. 지금과 같은 호텔로는 외국인 유치가 될 수 없음은 중국 대만의 일월담(日月潭)이나 필리핀의 바귀오의 호텔을 보면 우리의 큰 반성꺼리가 될 것이다. 백명쯤의 외국인 단체가 몰려온다면 어느 호텔에 재운다는 것 일지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흐를 지경이다.

삼(三)

새 정부에게 우리는 단번에 벅찬 계획을 바랄 수는 없음은 그 재정면을 어렵듯이 알고 있기로이다. 그러나 어느 확고한 계획 하에 하나씩 착수해 나간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진언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건에 앞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 그 인물과 그 의견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서 문화재건 5개년계획쯤 세워보면 얼마나 우리의 사기를 북돋을 것이라.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도 활용할 줄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인의 의욕이 드높은 것은 외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고 자신하는데 오직 그질과 성분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의욕이 높은 문화의 현역들을 마음껏 활약하도록 격려하고 원조하면 거의 태반의 성공은 거들 셈이 된다. 해방 후 거듭되는 악조건에도 그래도 전진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참으로 희망적인 사실인데 이 희망적 사실을 현명하게 이용함이 위정자의 역량의 여하에 달려 있는 셈이다.

새 공화국출발에 있어서 국민은 새 희망으로 무엇인가 새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디 정부는 자력을 잘 측정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니 되도록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문화재건의 결실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 끝으로 새 공화국 전도(前途)에 영광 있기를 빌며 아울러 우리가 가능한 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하여 둔다.

◇연간 회의 5백회
이국 국무성은 1년간 평균 5백회에 달하는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백 개국의 외국사절과 회담해야 하고 분석(分析) 해야 할 정보는 수천만에 달한다고 한다. 외교정책은 이것을 통해서 수립된다는 것이다.

경제의식의 전환



이은복(李恩馥)
<생산성본부 이사장>

누구나 다 같이 생각하며 활동하며 이로 인한 결과를 가져 본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그 생각하고 활동하는 방법이 다르며 결과 또한 달라진다. 그러나 생각 활동 결과의 일련의 작용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 이전의 활동 활동을 가져오게 하는 활동 이전의 생각에의 작용이 따지고 보면 근원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어떠한 한 사물에 대하여는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는 물론 추운 것 더운 것 할 것 없이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서 더 어렵게도 생각하고 쉽게도 생각하며 더 쉽게도 생각하고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더위도 서늘하게 혹은 무덤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듯 마음먹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마음먹기를 우리는 마음씨라고 부르고 또는 태도 또는 의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태도 또는 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경제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경제 활동(경제정책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경제행정 기업경영 가계 등의 활동)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나타나는 경제현상 또한 같을 수가 없다.

경제정책의 기본 근원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을 공통적으로 납득시킬 만한 결론을 가져 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경제 전문가나 학자가 제각기 자기 나름으로 주장을 내세웠으며 수 없이 발표되었으나 국민 대중을 공동 결론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듯 공동결론을 못얻는 중에 우리는 스스로 어느 이론적 지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흐르는 시대의 무질서와 타성에서 경제에 임하는 태도 내지 의식의 공통점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현실로써 하책(荷責)없이 우리에게 육박하여 오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앞에 우리는 체념 이나 시련이냐에 판가름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면 세삼 우리 주위가 너무나 빈곤하며 너무나

고난(固難)스럽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 가닥의 희망이나마 붙일 곳이 어디냐 하는 정도의 심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몸에 젖도록 닦쳐오고 있는 경제적 고난 앞에 일대 전환이 와야 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망이다 하는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다급한 심정이 이렇듯 마음의 움직임이 가져온 듯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대해 의식 또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세(證在)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꺾박한 경제적 현실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점에 대하여 외환(外換)부족이라는 점으로 이미 귀결된 것 같다. 그러나 위정자나 식자의 외화에 대한 인식이 늦은 감이 있어 외화 부족이 국민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화 부족을 가져온 과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외원(外援)을 포함한 외화수입(수출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총체적으로 감축되는 반면 지출은 격증하여져 가는 경향에 놓여 외화적자는 우심(尤甚)하여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부연(敷衍)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수출산업과 수출무역은 소홀히 다루어 짐으로써 그 증가가 완만 상태에 있었으나 상대방 즉 원조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원조의 감축은 격감경향에 있게 됨으로써 확보되는 외환은 총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반면 시설가동을 위한 원자재도입은 물론 자연추세와 아울러 신규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소비확대로 인한 외화지출의 증가와 외화도입에 따른 선불금지불 등 지출의 추가로 인하여 상대적인 지출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외화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었기에 이와 같은 외화위기를 가져온 것일까.

우리가 가까운 역사에서부터 경제의식의 흐름을 찾아가 보기로 하자, 이조 오백년의 치정을 통하여 볼 때 그 모든 사회현상은 왕권을 중심사고 유지하는 따라서 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구조였기에 왕가는 왕가유지이상의 경제발전이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국민 또한 수입이 증가되었던들 관가나 반가(班家)에 의하여 약탈당하기에 적당하니 생산에 대한 의욕과 창의력을 가질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반면 사회의 지배자는 생산을 천하게 여기는 반가나 관가임으로 반생산의식과 소비의식이 오백년의 경제의식임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은 손에 흙을 안 묻히고 일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생활의 보람을 찾았을 것이다. 다시 일본의 압정(壓政)하에서 특히 이 시기가 자본주의 개화기였으나 일본에 의하여 과거로 역전(逆轉)된 한국의 경제는 여전 이조 5백년의 전통의식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과거의 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료가 되는 혈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

선조가 상민(常民)인 일반백성 또한 사회계급은 형식상 없어졌으니 관료로서의 진출하는데 또한 힘을 다하는 형편이고 보니 손을 흙이나 기름으로 더럽히지 않고 손에 못이 안박하고 생활하며 지주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음이 당시의 사회조류임이 확실하다. 815 후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자본주의개화를 전혀 모르고 새로운 자본주의시대를 마친 우리 한국에 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동화 될 만한 국민경제생리는 물론 이를 감당(勘當)할 만한 기업가나 기술자, 행정가가 없음을 당연하다 할 것이나 더욱 조건이 나빴던 것은 625 동란이후의 경제상태이다. 우리는 우리 사정이 당연히 많은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수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 같이 인정한다. 그러나 600년 이상 뿌리박은 소비를 중심삼은 경제의식 즉 소비의식은 그 막대한 원조를 녹여 없애고야 말았다. 재생산의식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원하는 의식이 박약한 위에서는 거액의 외원(外援)조차 정당한 성과를 감소시켰고 더 나쁜 것은 이 소비의식이 이 소비타성(消費惰性)이라 습성적인 행동으로 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식은 국가정책으로부터 기업 활동이나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무엇을 가져왔으며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첫째, 경제활동에서의 초보인 수입 내 지출의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막연히 장래에 기대하고 현재의 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그렇고 기업경영에서 그러하고 국가재정의 요리에서 그러하였다. 수입 내에서의 합리적인 처리로서 사실상 지출효과를 봄으로써 적자를 모면하고 또한 더 한걸음 나아가서 흑자를 가져오는 확대되고 정확한 시야의 확립이 없었음이 경제활동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의욕 보다 소비 의욕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전기한 바와 같이 역사적 유산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선 써보고 보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의식이 몸속 깊이 뿌리박고 있다.

셋째, 근무의식보다 불노(不勞)의식이 강하여 공부안하고 학점을 따고 적은 자기자금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실력없이 윗자리를 탐내고 빚지면 갖지 않을 방법만 생각하는 식의 의식이다.

넷째, 충실의식보다 요식(要式)내지 형식의식이 더욱 강하다는 점이다. 위면에서 또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의식이 왜곡되어 있어서야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고 경제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성과관 별로 기대할 수 없음이 증명된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로서 경제의식의 전환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심기일전(心機一轉)



김태길(金泰吉)
<서울대 교수>

E읍은 연초경작의 중심지로 알려진 조그마한 도시다. 그곳 연초가공 공장에서 서독인 기사를 초빙하였다. 월급을 8만원이나 받는 고급기술자라는 소문이 곧 그 지방의 화제가 되었다. 모처럼 벽지(僻地)를 찾아온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도 있거니와 또 그토록 고명하신 분이 어떻게 생겼나 호기심도 없지 않아 그곳의 군수와 서장 두 영감이 그의 공장으로 예방하였다. 그러나 서독기사는 당장에 면회를 사절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조용할 때 찾아오겠다고 전했더니 이다음도 찾아오지 말라고 딱 잘랐다. 도대체 군수나 서장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냐는 것이다. 군수나 서장은 혹 한가한 직업인지 모르나 자기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연초경작조합장이 찾아왔다. 공장의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10분 앞서 찾아 갔더니 교사는 그 보다 5분 뒤에 나타났다. 조합장에게는 꼭 5분 동안의 면회가 허락되었다. 작업이 시작되기까지 5분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야기 하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조합장은 물러나왔다.

얼마 뒤에 조합장이 기사의 사택을 찾아가서 발견한 것은 그가 놀라울만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독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질이 낮고 또 값이 싼 것이었다. 다만 그는 손님을 위해서 따로 파고다 한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우다 남은 궤초는 모두 모아서 자기 고국으로 보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니코틴은 귀중한 소독약이다.

이 무서운 근면과 절약. 이것이 월급 8만원을 받는 사람의 생활 태도이다. 그것도 이 사람 한 개인만의 생활태도라면 그리 놀라울 것이 없을지 모른다. 어느 나라에나 그런 사람이 어찌다 있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한 사람 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민성에 가까운 경향이라면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삼천만의 인구가 매인당 하루 평균 1원식을 절약한다면 1년에 1백9억5천원의 저축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사실 독일사람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는 얘기는 앞에 말한 연초기사의 경우 이외에도 흔히 들리는 소문이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국민성이 아닌가 짐작케 하도록 빈번히 들리는 소문이다.

벌써 여러 해 전 얘기지만 서울에 두 개의 큰 맥주회사가 생겼을 때 서독에서 기술자를 초빙했다는 것은 일반이 아는 사실이거니와 그 기사들이 모두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는 평판도 시내에 자자한 화제였다. 현 C회사에 기술고문으로 수고하고 있는 M씨도 역시 서독인이다. M씨 또한 부지런하기 짝이 없어 같은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라는 소문이다. 그는 무섭게 시간을 아낀다. 시계바늘처럼 약속을 지키되 5분 이상 기다려 상대방이 안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난다. 그 M씨에게 신세를 진 한국 사람이 있다. 어떤 청년의 독일 유학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M씨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쳤던 것이다.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에서 청년은 C사 앞에서 퇴근하는 M씨를 기다렸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M씨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사절하였다. 당신은 당신 집에 가면 밥이 있고, 나도 집에 가면 밥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비슷한 얘기는 얼마든지 있다. 제1차대전 때의 독일 포로에 관한 얘기도 그중 하나이다. 포로수용소가 흔히 그렇듯이 독일포로들을 수용한 어떤 수용소는 물이 몹시 귀했다. 물에 관해 배급제도가 실시되는 동시에 매인당 약간의 물이 돌아갔다. 그런데 포로들은 한 그릇의 물로 다섯 가지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우선 미시고, 다음에 이를 닦는다. 그리고 남긴 물로 쭈를 하고 그 물에 다시 손수건이나 양말을 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화초에 준다.

흔히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깊은 생각 없이 그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자칫하면 사건의 핵심을 놓칠 염려가 있다. 그것도 기적이 아니라 실은 인과의 필연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실패가 이 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듯이, 독일의 성공도 그 나라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비단 독일에만 국한된 생활 태도가 아닌 모양이다. 지금 지구위에서 부강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부지런하고 검소한 - 적어도 과거에 오랫동안 부지런하고

검소했던 역사를 가진 국민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세에 들어서며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이 득세한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나라들이 이토록 번영을 누리게 된 근본 원인이 근면과 검소를 신의 뜻에 가까운 미덕으로 찬양하는 프로테스탄트 도덕관에 있다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저술한 막스베버의 관찰이다.

그토록 악착스럽게까지 해서 잘 살 필요가 있느냐 없으면 없는대로 한 평생 살다 죽을 일이 아니냐? 만약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각도가 전혀 다른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꼭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 악착스럽게 애써 가며 잘 살 것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이냐는 인생관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어떠한 인생관이 옳으냐는 문제는 이론으로 따져서 해결될 수 없는 태도결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단언해도 좋을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지런하고 검소한데 우리만 게으르고 낭비를 일삼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패망하고 말리라는 사실이다.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날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죽는 정도’의 생활조차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좋다고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지경에 이르러도 좋다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둘째로 부지런함과 검소함이 몹시 강조되는 생활에 괴로움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언제까지나 구걸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생활 태도는 물리적으로는 곤궁하더라도 마음이나 편하게 살자는 태도 즉 안빈낙도의 자세일 경우에만 시인 받을 수 있는 인생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에게 언제까지나 신세를 져야하는 살림에는 마음의 평안조차도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정도의 생활태도가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라면 아마 우리의 불행은 훨씬 더 가벼운 정도에서 멈췄을 것이다. 진실로 한국적 불행의 뿌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라는 단순히 적극적임에 그치는 생활태도 보다는 몇 곱절 더 위험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주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분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허영(虛榮), 부지런히 일하는 대신 적당히 재주를 부려서 손쉽게 잘 살아보려는 교활한 심사, 이런 위협스러운 생각이 지금 우리의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필자는 근면과 검소의 덕을 강조해 왔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가 경제의 안정이요, 문제의 타개를 위하여 우선 이 두 가지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미덕만 있으면 한국의 불행이 구제되리라는 뜻은 물론 다니며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결핍해 있으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덕용(德用)이라는 생각도 아니다. 근면과 검소는 현재 한국이 요망하는 정신적 자세의 매우 현실적인 일면이며 결심하기에 따라서 실천에 옮기기가 비교적 수월한 덕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 앞세워 강조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근면이나 검소보다도 더 근본적인 덕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근본적으로 결핍한 덕이란 남의 처지 또는 전체를 아끼는 마음씨다. 옛날부터 ‘인’이니 ‘공정’이니 ‘자애’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덕용(德容)들에는 공통된 요소가 바닥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존재와 인권 또는 그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씨가 동서의 으뜸가는 제 덕용의 이름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런데 모든 도덕에 있어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씨가 현재 이 땅에 극도로 결핍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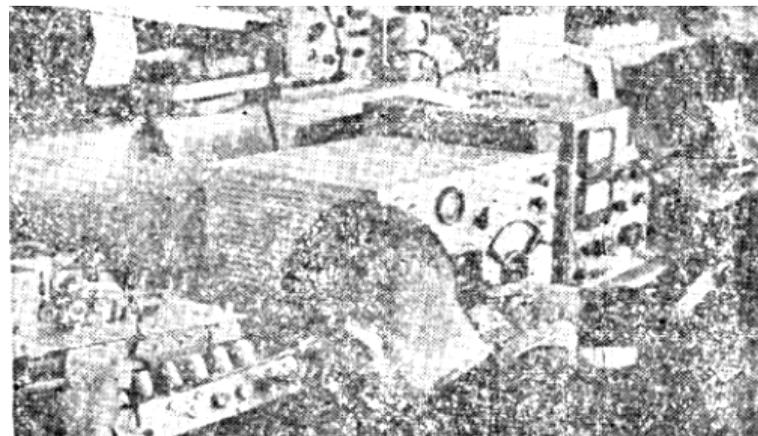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인의 행위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우세한 조류는 졸렬한 이기주의다. 그것을 졸렬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제 욕심을 지나치게 차리는 나머지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실패 또는 멸망에로 이끄는 길로 앞을 다투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거에서 야당들이 서로 제 욕심만 세우고 싸우는 바람에 모두 참패하고 만 사실은 이 일반적 경향의 좋은 표본이다. 야당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여당들은 정권을 잡기가 바쁘게 모두 이권의 분배내지 쟁탈에 눈이 뒤집혔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신망을 잃고 당 전체가 망하는 동시에 그에 속했던 정객들도 함께 망하는 어리석음을 거듭 저질렀다. 지도자를 자칭하는 정치인들이 이 지경이고 보니,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사태는 그저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학계와 예술계, 교육계와 종교계, 그 밖의 무슨 계, 무슨 계 할 것 없이, 파벌싸움을 일삼지 않은 분야가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것도 버젓한 논리체계의 대립이라도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이해의 대립인 까닭에 오직 한심하다. 이럴 줄렬한 이기주의가 급기야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까지 침투하여 자치기구의 임원선거가 있을 때면 기성 정치인 뽑치는 장난이 그들 사이에도 유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은 최후의 희망까지 잃었음을 느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생물의 본성이니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보아 같은 정신과 육체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나와 너의 구별 없이 같은 인격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남의 존재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이 귀중함을 알고 남의 존재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이 귀중함을 알고 남의 존재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은 시야의 협소를 의미하는 것이니 일종의 무지에 속한다. 이기주의가 저만을 생각한 나머지 결국은 저 자신도 멸망하고 말 경우도 눈팡의 이익에 끌려 대국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니 결국은 일종의 무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무지에서 지성(覺醒)으로의 각성(覺醒)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본다.

관료주의는 우리나라 사회생호라의 암이다. 관료주의는 반드시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병원, 신문사, 방송국, 학교, 법률사무실 그 밖의 모든 기관, 다시 말하면 큰 집을 차지하고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는 곳에서는 아무데서나 찾아볼 수 있다. 하다못해 문앞을 지키는 안내원까지도 허술한 손님이 찾아가면 그 태도가 거만스럽기 짝이 없다. 큰집 안에서 의자를 깔고 앉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상점의 점원까지도 물건을 바꾸러 온 손님에게는 그렇고 길을 묻는 나그네에 대해서는 복덕방 영감에게도 같은 불친절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일종의 텃세라는 점에서 그리고 수세에 놓인 사람에 대한 교만이라는 점에서 관료주의와 통한다. 관료주의란 결국 저 잘난 맛에 남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지가 아니더냐.

지금 제3공화국의 정부가 수립되는 마당에 심기일전(心機一轉)하는 새 출발이 온 겨레에게 요청되고 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마음의 자세는 근면과 검소, 그리고 남의 존재도 소중히 여기며 전체를 잊지 않는 거시의 관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직분석(組織分析) (ORGANIZATIONAL ANALYSIS)

손용기(孫龍基)
<공군소령>

일(一) 조직개념

학문에도 복잡과 같이 유행이 있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철학분야에서 맑스 경제학분, 사회학분, 역사학분, 경제학분, 그리고 조직론분으로 이동하여 인간의 관심은 변화하여 가고 있다. 이와같이 고조되어 가는 조직론은 조직과 인간간의 문제로서 결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과학(생물학, 생리학)에 있어서 전문적 용어로 사용되고도 있으나 여기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현상으로 그리고 사회과학의 대응으로서의 조직의 여러 개념을 파악하려 한다.

1 상태로서의 조직

(가) 집단으로서의 측면

집단으로서의 조직은 사회학적 견지에서 보는 조직과 집단의 개념으로서의 조직 혹은 집단에 있어서 구조화를 무조직(혹은 미조직)집단(Unorganized

Group)과 조직집단(Organized Group)으로 나누어 무조직집단으로부터 조직집단까지의 척도의 상승은 집단의 구조화 혹은 구조분화(Differentiation of Structure)로서 표현하여 구조화 혹은 구조분화는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지위(Status)와 역할의 분화로써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①

예를 들면 무조직집단의 전형적인 군상은 지도자와 일반군중과의 분화가 있을 뿐 그의 지위와 역할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조직집단으로서 척도를 상승하려면 여러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지도자-중간관리자-일반성원이라고 하는 수직적 분화와 수직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 수평적 분화를 이루어 지위와 역할의 상호승인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됨으로서 그 조직집단의 구조화는 발전하게 되고 동시에 조직집단의 척도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집단과 조직에 대한 개념의 차이이다. 집단과 조직의 구별로서 목표의 명확도와 집단목표의 합법성을 들 수 있으며 집단규범에 따라 대규모조직집단과 소규모집단을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이 양자의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개의 경우 대규모조직집단은 소집단에 비해서 보다 더 구조화되어 있고 목표의 설정, 목표의 명확도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체계화가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반해서 소집단은 기능집단으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또 행정학자인 Gaus의 정의를 인용하면 '조직이란 기능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편리하게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②라고 하는데서 우리는 조건이 비교적 만족된 집단을 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간활동의 체계로서의 조직

이 견해는 집단으로서 조직의 견헬르 피하고 인간활동의 체계로서 조직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2인 이상이 의식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행동이나 여러 힘의 체계이다'라고 정의를 짓고 있다. 즉 조직을 인간활동의 체계로서 조직에 대해서 개인의 공헌의욕(Willingness to Serve), 다시 말하면 공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개인동기와 조직측면의 유인(誘引)(Incentive)과의 동태적(動態的) 관계가 성립되어 집단으로서의 조직의 개념을 주장하는 입장에 공통되며 또 조직동태의 과정으로서 조직의 생성, 발전 그리고 소멸에 대한 일반이론을 사회적 과정으로서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관계되고 있다.④

(다) 기구(機構) 혹은 편성(編成)으로서의 조직

이 견해는 아무리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일상용어에 있어서 부정적표현이 등장하는 조직은 무엇인가 현실성을 결(缺)한 소극적인 뜻을 말하고 있다. 결핍된 것은 조직으로서 활동 - 참여와 통솔 - 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도 있으며 또 조직도표(Organizational Chart)만이 존재한다는 뜻도 있으며 혹은 물적수단(시설자금)이 불충분하다는 뜻도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개념은 이와 같은 결여체로서

정의를 짓는 것은 조직개념의 불용어성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형성하는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물적수단의 형성으로부터 유리되고 독립된 기구 혹은 편성으로서의 조직개념은 준법주의(Legalism)나 형식주의(Formalism)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이 비현실성을 배격하며 부정하고 있다.

2.과정으로서의 조직

(가) 관리행위의 과정으로서의 조직

집단으로서 조직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직이란 일정한 특징의 복합이다. 또한 특징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특징을 유출하고 유지하여 가는 행위와 과정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목표의 설정과 그에 필요한 수단의 체계, 인원의 배치 그리고 활동의 조사과정이 조직이다. 여기에 변화하여 가는 여러 조건하에 재정비하여 가는 과정이 조직이라 하여 관리행위의 과정으로서 조직을 생각 할 수가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구조화에 조직의 특징을 구하면 기능과 역할의 분화 그리고 명확화를 끊임없이 행하여 가는 과정이 조직인 것이다.

(나) 정책결정행위 혹은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조직

이 견해는 관리행위의 과정으로서 조직과 일부 중복되지만 Top Level에 있어서 의사결정행위는 정책결정행위이며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을 하는 행위이다. 또한 Top Level뿐만 아니라 Middle Level에 있어서 의사결정행위와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실행이 중요시되며 다시 일반성원의 조직활동 참여의 의사결정과정까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과정으로서의 조직

조정과정은 집중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과 집단간의 조화이며⑤ 통일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과정으로서의 조직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통일성을 추출(抽出)하며 유지하려는 힘을 조정력으로 본다. 즉 성원의 협력과 복종을 형성하는 규범 정통적 관념 그리고 동기가 조정력의 내용이며 조정력이 발동되어 조화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조직으로 본다.

(라) 균형과정으로서의 조직

조직과정으로서의 조직은 조직가운데 모순이 존재하여 이것을 조정, 재조정 필요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상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성을 서로 저항하는 두 개의 힘 혹은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요청을 동시에 극대화하거나 균형화 하는 동정과정을 여기에서 의미한다.

예를 들면 조직목표와 성원의 협력을 동기라고 하는 조직의 두 가지 요건에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요청이며 이 요청이 어느 정도 어떠한 형태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찰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직목표 달성과 성원의 협력을 동시에 극대화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조직으로서의 문제성이기도 하다. 사실상 조직목표 달성과 개인목표달성간의 모순 혹은 성원이 조직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자발성과 복종과의 모순성은 극대화 혹은 균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마) Communication 과정 혹은 상징과정으로서의 조직

Communication과정 혹은 상징과정으로서의조직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Boulding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수신자간의 교류적인 과정으로 보고 이 교류현상과정에서 병리나 왜곡을 지적하여 조직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⑥ 조직은 본래 인간 상호전달교류과정으로 성립한다는 면을 주목하고 있으나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는 반드시 Communication 과정이나 상징과정만이 아니고 동기, 태도, 감정유인 이익과 같은 개념을 제1차적으로 도입하여 상호작용, 집단관계로서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균형과정에 있어서의 조직개념은 조직목표와 성원의 협력과의 균형에 있어서 Communication이 매개(媒介)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오직 자발적결사(예: 정당)의 경우에 적용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발적결사에 있어서는 성원의 등질적 요구가 쉽게 조직목표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대한 조직에서는 현상적으로 이질적인 여러 요구를 전체목표에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조직의 개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런데 조직은 상태인 동시에 과정이다. 상태로서의 조직은 집단으로서의 특징, 활동체계로서의 특징, 기구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 과정으로서의 조직은 관리행위, 조정력,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달성과의 균형 Communication 과정 등을 포함한다. 어느 측면이 제1의적인 비중을 가지느냐는 일방으로는 대상으로 하는 조직자체의 성격과 타방으로는 분석자의 주관적인 한정에 따라 결정된다.

① Sorokin, P. Society, Culture and personality, 1947. P. 70

② GAUS, J.M. et. al, The Frontiers of public Administration, 1936 P. 66

③ Banard, C.I. The functions of public executive, 1938, P. 81

④ 일본사회학회(日本社會學會) 사회학평론(社會學評論) 소화(昭和) 37년 46호 PP 104-105

⑤ Pfiffner J.M. Public Administration, rev, ed 1946 P. 47

⑥ Boulding K.E. The Image. 1958

이(二) 조직구조와 그의 분석

조직구조는 상대적의미로 선택된 명령(命令)이고 상태로서의 조직 혹은 비교적 항구적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조직상의 성격적 분석을 하려한다.

1. 조직의 원칙(Principle of organization)

(가) 계층원칙(Scalar Principle)

이 원칙은 최고권위의 분배에 관한 원칙이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권한은 최하척(最下尺)까지 분배하여 상호 명확한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층의 원칙은 분권화의 원칙 혹은 권한위양의 원칙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권한의 분배라는 의미에서 열외의 원칙(Exception Principle)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열외의 원칙이란 권한을 위로부터 아래로 위양하는 경우 일상업무는 하위의 직위에 위양되고 최상위층은 일상업무이외의 열외적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보지(保持)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는 취지이다.

권한위양을 계층의 원칙 밑에서 어느 정도 명제는 명백하지만 실제문제로서는 권한의 위양을 어느 정도로 추진하여 열외의 원칙을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실현할 것인가는 큰 문제이다. 그리고 계층은 권한이 관리과정으로 바뀌어 질 때 Pfiffner는 통솔(Leadership)권한의 위임 그리고 직무의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한다.③ 이 뜻은 조직이 확대하여 감에 따라서 유능한 지도자가 요구되며 권한의 위임은 조직의 성격상 필요적산물이며 동시에 상사와 하부간의 관계를 연결하여주며 마지막 계층의 단계과정으로서 각 계층에 기능을 주어서 직무의 결정을 하게 한다.

그 밖에 권한의 분배나 상사와 부하간의 연결작용으로서 명령통일의 원칙(原則)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하는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조직은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명령통일의 원칙은 존재하지 안 다고 Simon은 지적하여 소위 이원적 감독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④ 이는 후술하려는 계선조직(系線組織)과 기능조직에서 크게 관계된다.

(나) 조정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조정이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화된 집단적 노력이며 이를 조화된 집단적 노력을 위하여 Mooney는 두 가지 내용을 들고 있다.⑤ 즉 첫째는 조직에는 조직목표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따라 목표의 원칙(Principle of objective 이라함) 동시에 그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는 조직에는 그 조직의 각 부분, 각 부서의 여러 활동을 조정하는 최고권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조정의 의미로서의 조정의 원칙은 조직의 개념에서 목표, 수단의 체계화로서의 조지고가 조정과정으로서의 조직으로부터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는다. White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협동 가운데 가장 밀접한 조직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있다.⑥

(다) 통솔범주의 원칙(Span of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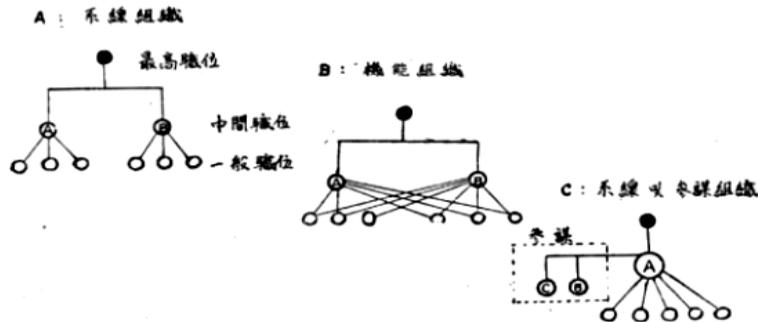
이것은 감독범위 적정화의 원칙으로서 직접 부하를 충분히 감독할 적당한 한계가 존재하여 이 범위를 넘으면 감독이 불충분하여진다는 취지의 원칙이다. 그러나 감독의 범위에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적당한 한도는 오히려 구체적인 조건에 의한다고 하겠다. Simon은 이 구체적인 조건이 마술적수(Magic Number라고 지적하고 있다.⑦ Graicunas는 수학적공식을 인용하여 피지배자의 수가 산술급수로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와 업무의 복잡성은 기하급수로 증가하여 간다고 지적하면서 업무의 복잡성, 시간적 요소 그리고 공간적 요소를 들고 있다.⑧ 그런데 단순 업무에 있어서는 15명 내지 30명, 두뇌적 운동에 있어서는 6인정도, 고도의 두뇌적 작업을 하는 업무는 2인내지 3인정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의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Span of Attention)를 인간관리에 적용한 것이며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한 내용이라 하겠다.

여하튼 통솔범위에 대한 유제한성(有制限性)은 누구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유제한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제한성문제는 심리학적조사와 심혈을 통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도자의 통솔력, 개인의 집단조직에 대한태도, 동기 및 사회적 요인을 구명하여야 할 줄 믿는다.

2.조직의형태

조직의 형성문제로서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취급하고 있는 조직의 형태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널리 말해서 명령계통과 기능의 분야에서 각 직위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규모조직의 경우에 있어서 하위조직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를 어떠한 형태로 평~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직의 형태로서 통상 계선조직과 기능조직 그리고 계통 및 참모조직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계선조직은 조직의 원칙에 있어서 명령통일의 원칙에 충실하여 상위직과 하위직이 단일의 명령계통에 따라 연결되는 것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다.(도시, 圖示, A)(2) 기능조직은 전문적분업의 원리를 명령계통에까지 적용하여 기능분화에 따른 명령계통을 설정하는 형이다.(도시 B)(3) 계선(係線) 및 참모직은 그 조직의 주업무 활동에 관해서 지휘명령통일의 일원화에 기초를 둔 계선조직을 취함과 동시에 참모로 하여금 계선조직에 전문적지식을 기초로 하는 조언 내지 보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직위를 부속시키는 편성이다.(도시 C) 또한 Dimock는 (4)의 형태로서 위원회형조직을 들고 있다.⑨ 이는 모든 통제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구성원에 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명령계통은 일원적이며 기능조직과 다르다. 그러나 앞의 세가지 형은 명령계오과 기능분화라고 하는 점에서 직위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형조직은 명령의 결정방식에 대한 형태이다.



3.조직의이중구조

조직을 규칙이나 기술의 체계로서 기구로 보는 전통적조직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안티테제(Antithesis)로 보는 견해이다. 사실상 하나의 조직은 인위적으로 작성되고 성문화된 제도상의 조직으로서 표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내부에는 조직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와 제도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전자를 공식 조직이라하고 후자를 자생적 조직이라고 한다. 이 양자 간의 차이를 요약하면 공식조직은 외형적이고 제도적이며 공식적이고 성문화된 행동의 규제인데 반해서 자생적 조직은 내면적이고 현실적이며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행동의 규제이다.

이와 같이 정의를 짓고 보면 자생적 조직이란 조직내부에 있어서 현실의 상호관계에 대한 총체이며 공식조직에 규정된 직무행동, 의사결정행동, 지위 및 역할행동 이외의 상호관계를 말하며 조직에 있어서 인간 활동에 대해서 커다란 규정력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공식조직이 요구하는 행동의 실현을 방해하며 혹은 실현을 촉진(促進)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⑩ 또 공식조직은 능력의 논리임에 대해서 자생적 조직은 감정의 논리로 되며 자생적 조직은 인간 심리적인 연구접근을 하게된다.

그런데 자생적 조직이 가지는 발견적 의의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으나 개념상으로 볼 때는 자생적 조직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식조직에 있어서 제도화된 행동규제에 오히려 자생적조직의 기능이 더 우위를 점함으로써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능력향상을 저해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조직 규범과 자생적조직 규범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조직규범과 자생적조직규범이 일치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 일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생적조직의 개념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아무리 조직형성이 발전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구체적인 인간인 이상 구성원은 각각의 욕구가 조직 속에 들어 있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조직의 협력을 획득할 수가 없다.

(나) 아무리 조직형성이 발전된 조직이라 할지라도 구성원간의 교섭은 개인에 관계가 없는 직무상의 관계에 끝이지 않고 감정, 기대의 상호교섭을 가지는 구체적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필연적으로 갖기 때문에 직위의 체계로서의 조직은 직위간의 관계에만 끝이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지위역할의 체계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조직 속에 공식조직과 자생적 조직은 관리의 합리적 체계로서의 조직과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유지되는 사회적 체계로서의 조직의 두 가지 요청의 모순과 그 조정의 필요성으로서의 표현되는 문제이다.

⑩ Gulick, L and Urwick, L "Papers on th Science of Administration" 1937.

이는 조직관리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학에 관한 논문집이다.

② 유훈(兪焄) 「행정학원론」 재판 1962, p23, p35.

③ Pfiffner J.M. "Public Administration" rev ed. 1946 P67.

④ Simon H.A. "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Winter 1946 By Pfiffner and Sherwoo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154.

⑤ Mooney J.D. "Principles of Organization"1939 rev ed. 1947 P5.

⑥ White L.D.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3rd ed. 1948 P210

⑦ Simon H.A, op cit. p154

⑧ Graicunas. G.A "Relationship in organization", in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Gulick and Urwick, eds. 1937 PP181-187.

⑨ Dimock, M.E. "public Administration" Rev ed. 1961 PP144-145

⑩ Young, K "Social psychology" 3rd ed. 1956 PP 210-245

4.조직내의 민주주의

조직 내의 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주의 다양성에 따라 목표달성의 지표도 다양적이지만 그 핵심되는 개념은 지도자와 조직성원간의 상호관계로서 이해의 등질에 대한 일치여부, 이해의 대표, 이해의 일반화, 보편화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 내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여러 조건에 따라 지표가 달라지게 된다. 조직상의 지도층과 성원간의 이해등질에 관한 일치하는 지도층 선출에 대한 조직성원의 참가와 지도층의 적당한 교체로서 충족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목표달성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일반성원간의 공통적 이해의 대표는 지도층이 조직성원간의 여론에 예민하여야 하며 조직성원의요구를 지도층의 이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충족하여야 하며 조직성원의 개별적, 특수적, 일시적, 이해의 일반화, 보편화 문제는 조직성원의 평균적인 대표로서 의미가 아니고 지도로서 이해관계를 보편화하고 일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다 일반화되고 보다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자발적인 동태적과정으로 조직내민주주의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① Pfiffner and Sherwood F.P "Administrative organization" 1960 P154.

유훈(兪焄) 「행정학원론」 재판 1962, p23, p35.

② Likert, R.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58

◇ 소·중공분쟁

자유중국의 외교문제 평론가인 타오시성(陶希聖)씨는 소·중공이념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최종목적은 자본주의의 매장이며 전세계의 정복이다. 흐루시초프·마오의 분쟁은 단순한 투쟁 방법의 상위(相違)이며 따라서 자유세계가 그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제9차 아세아 반공대회 광경〉

제9차 아세아반공대회에 참석하고

- 월남 사이공에서 개최된 -

박재간(朴在干)

〈한국아세아반공연맹 참가(參事)〉

아세아반공연맹은 아세아 각국의 개별적인 반공운동을 통합 연결시킴으로써 공산진영에 대한 투쟁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1954년 한국의 주도하에 아세아 지역의 8개국이 참가하여 진해에서 제1차대회를 가짐으로서 발족되었던 것이며 그후 아세아반공연맹의 세력은 한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각국에 점차확대되어 금차(今次) 대회에서는 회원국 25개국에 읍서버 16개단체에 달하는 방대(龐大)한 국제기구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금차대회는 작년 10월 동경에서 있었던 제8차대회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서 9번째 대회가 되는 것이며 이 대회에 한국대표단은 7명으로 구성되었다.

1. 참가한 주요대표와 대회 일정

이번 대회는 10월2일부터 동31일까지 월남공화국 사이공에 있는 디엔, 흥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전외무부차관인 김동조씨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한국대표단은 도쿄, 홍콩을 거쳐 10월 22일 저녁 7시가 지나서 사이공공항에 내렸다. 이미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문을 열고 트랩을 내디디니 훈훈한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마치 한국의 여름철 가장 더운 날 초저녁 때를 연상케 했다. 출영(出迎)나온 사람들로서는 월남 정부의 차관, 국회의원, 월남반공 연맹의 간부, 신상철 대사과 한국대사관 직원 일동 및 수명의 교포들이 눈에 띄었으며 우리의 입국 수속과 통역사무는 반공대표들에게 특별 배치된 월남의 여자안내원들이 맡아서 해주었다. 출영나온 사람들 중에서 반공연맹 전체기구의 사무총장직을 맡아보고 있는 부곡투루이씨와 고(故) 고딘디엠 대통령의 정치고문인 카도리교의 드예가신부는 작년의 동경대회때부터 필자를 알고 있는 분들이었으므로 특히 반겨주었다.

이번 대회에 모인 주요대표로서는 중국의 구증강(谷正綱), 일본의 사와다산(澤田三), 요르단의 M 수헤이마드, 말레이시아의 T.Y마, 뉴질랜드의 IR 마카룸, 필리핀의 래몬바갓싱, 터키의 테베코구르 상원의원, 태국의 탐마비트 박사, 서독의 스테츠고 여사, 인도의 트라캄다스 여사, 프랑스의 라반 여사, 이태리의 롬바르토, 라오스의 수바나봉, 미국의 대비드로우 교수를 포함한 근 100명의 민족대표들이 세계 30여국으로부터 모집하였었다.

0월 24일 상오 9시부터 사이공의 디엔흥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회개회식에는 고딘디엠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보안관계로 중단되고 트롱빈레 월남국회의장과 트란레광 농촌부장관 등이 주최측을 대표하여 연설하였다.

김동조 한국수석대표도 이 개회식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한월양국간의 굳은 단결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모든 민족이 굳게 뭉쳐 강력한 반공전선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회의장소인 디엔흥 국제회의장은 국제회의 주최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로서 약 100명의 대표가 회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는 동시통역제도의 '이어함'이 가설되어 있어 영어로 연설하면 프랑스어와 월남어로 동시통역되어 나오고 중국어로 연설하면 영어, 프랑스어로 동시통역되어 나오고 있다. 본회의장 이외에도 5, 6개의 분과위원회 회의장과 일반직원의



〈사이공 공항에서의 한국 및 월남대표단〉

사무실 및 대표들의 휴게실 등의 설비가 되어 있어 도쿄 마마세키몬(馬馬先門) 동상(東商)빌딩에 자리 잡은 국제회의장과 시설이 비슷하여 이 나라 당사자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점차 그 외교무대를 확장하고 온갖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이 요청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사정이 허락 하는 대로 이런 건물 하나쯤은 세워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었다.

2. 각국대표단의 활동

주최 측인 월남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정부의 가족정치 및 불교분쟁문제로서 국민과의 사이가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월남의 제8주년 독립기념일 경축행사와 더불어 이 대회에도 많은 힘을 집주시켰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월남은 2명의 여자변호사를 포함한 8명의 대표로서 구성하였으며 회의기간 중 주최국대표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국제회의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만족할 만한 활동을 한 것 같지 않다.

우리 한국과 더불어 아세아반공연맹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대표단은 구증강(谷正綱)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사들이 국제회의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으므로 회의기간 중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었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 있어서 중국대표단의 주요활동목표는 중공의 비인도성과 야만적인 침략성을 각국대표들에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대중공통상을 규탄내지 중단시켜려는데 있었다.

필리핀대표단은 래몬바갓싱 이사장을 비롯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 중국과 더불어 상당히 강팀으로 알려졌다. 그중 조세헤레

난데스씨는 대회가 시작되기 10여일 전부터 사이공에 와서 금차 대회에서 토의될 의제와 기타 사항 등을 연구하여 이 회의에 대비할 준비를 하였다 한다.

일본에서는 유엔대사를 지낸바 있는 노련한 직업외교관인 사와다산(澤田三)씨를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나 그다지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 않다. 그 외의 각국대표들도 대개 1회이상의 연설을 하였으며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세력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힘을 합하여 총궐기(總蹙起)할 것을 호소(呼訴)하였다.

3. 한국대표단의 활동

이번 대회에서 월남측이 가장 힘을 집중시켰던 일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전략최고사령부라는 기구를 사이공에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으로서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서울에 건축도상에 있는 자유센터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많으므로 이를 반대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각국대표들에게 활발한 배후공작을 하여 주최측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이 안을 좌절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국 측이 이룩한 또 한 가지는 아세아반공연맹기구 자체의 조직강화에 관한 문제였다. 반공연맹은 창설된 이래 근 10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날에 이르러 기까지 아직도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국가가 있으며 실사 조직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활발한 반공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대표단은 앞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반공연맹조직의 강화와 반공운동의 적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결의안을 제안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차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이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는 자유센터의 건설

〈월남 정규군의 시가행진 광경〉



및 운영에 고나한 재정지원결의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자유센터 건설업무의 조속한 완성과 자유센터 건설에 필요한 기금을 각출(釀出)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옵서버는 그의 능력이 자라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부담금을 제공한다는 요지의 한국측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대회기간을 통하여 한국대표단은 전후 5차에 걸쳐서 연설(演說)을 하였던 바 전기(前記) 개회식에서의 연설이외 10월 24일 하오(下午)에 있는 제1차본회의에서 김동조 수석대표의 한국반공활동보보연설이 있었으며 월남정부의 초청으로 동대회 참석하 바 있는 임송본씨의 특별연설이 있었다.

10월 25일 상오(上午)에 열린 제2차 본회에서는 자유센터를 대표해서 대회에 참석한 현정규대표의 자유센터에 관한 약20분간의 연설이 있었으며 10월 31일의 폐회식에서 대한공론사의 김봉기부이사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어구를 인용하여 평화애호인류의 결속을 촉구하였다.

4. 사이공에서 본 일

우리를 일행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대통령관저 근방에 있는 엠버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에 거리를 산책하며 느낀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은 동장이 대단히 느리다는 점이다. 서울이나 동경의 거리를 지나가보면 도보를 걷는 사람들이 전부 바빠 보이고 활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사이공시민들의 걸음걸이는 파고다 공원을 산보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느리다. 이 한가지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무능률이 그리 박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사이공거리에서 또 한 가지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자전거와 시크로(삼륜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점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리가 메이도록 많은 자전거와 시크로가 왕래한다. 전차는 없고 차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도쿄, 서울, 홍콩에 비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새나라차보다 훨씬 적다. 개솔린의 소비량도 적을 것이 뻔하다. 대형 승용차는 정부의 고관이나 각국의 외교관들이 이용할 따름이었다. 개솔린 한 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의 도심지를 달리는 수많은 택시, 고급승용차, 버스 등에 비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이공 시민들은 정오에서 하오 3시까지의 휴식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12시가 되면 모든 사무실의 문이 잠기며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는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기 위해서이다. 이 시간에는 날씨가 몹시 더워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대신 야간영업은 비교적 늦게까지 한다. 사이공에 머무르는 10여 일간 매일과 같이 정부고관, 의회지도자 및 재계중진들의 식사초빙을 받았는데 저녁 식사는 대개 하오 시부터 11시가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대중식사집은 12시경까지 그리고 떠나 기타주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이곳의 외식은 월남고유의 음식이 있기는 하나 외국인들을 초대할 때는 프랑сы요리가 아니면 중국요리가 나왔다.

5. 문화는 중국 구라파 월남의 혼합체

월남은 과거 수 천 년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최근 일세기 동안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월남 프랑스 및 중국문화의 혼합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서 틀림없다. 언어의 예를 들어 보면 이곳의 말은 중국 한자의 음을 따서 발음하는 것이 많았다. 대한민국을 대한이라고 부를 것이라든가 합창을 합가(合歌) 또는 대통령을 똥똥(총통)이라고 하였으며 내가 만났던 어떤 정부고관의 이름은 부만룡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는 무문룡(武文龍)이라고 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알파벳체의 월남독자적인 문자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일이며 그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했었다고 말하였다. 가두의 점포간판도 한자를 병용한 곳이 있었다.

10월 26일 트루이 반공연맹사무소장의 초대를 받아 국립고전음악원에서 월남 고전음악 및 무용을 감상하였는 바 음악의 음률과 곡조가 중국음악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악기자체도 중국의 고전악기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무용에 있어서도 의상과 그 색채가 중국의 것과 유사한 점이 많고 그 율동 자체가 중국무용을 연상케 하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사이공 시민들의 현대생활은 완전히 서구화되고 있었다. 우선 아침 호텔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을 들여다보더라도 로마자체로 되어 있었으며 한국이나 일본 등지의 일반가정에서 엿볼 수 있는 온돌이나 다다미 대신 응접세트, 테이블,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다. 월남에 있어서의 한 가지 특색은 남성들은 전부 양복을 입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들은 양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거리에 간혹 양장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월남여성들의 의복은 일종의 원피스인데 의복하부의 양변(兩邊)이 길게 터져 있었다. 중국여성의 의복의 경우와 흡사하다. 중국 옷 보다도 더 길게 터져 있었다. 더운 지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일지도 모른다. 사이공시민들은 같은 동양인인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보다도 서양문화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6. 전략촌의 모습

10월 27일 우리들 각국 반공대표는 사이공 공항에서 2대의 4반여객기에 분승하고 북쪽으로 약 1시간 비행한 후 다랏트 공항에 착륙하였다. 이곳은 고원지대로서 과거 프랑스식민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우리는 다랏트 궁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가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방마다 불을 피울 수 있게끔 뼈치카 시설까지 되어 있었다. 우리들 일행이 이곳에 올 때 내의와 코트를 준비해 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피서를 위함이 아니고 이곳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콘택나드 전략촌을 시찰함이었다. 콘택나드 전략촌은 약 200호에 인구 1,000명 미만의 작은 규모의 것이었으며 촌락들레는 침대와 목재로 튼튼하게 울타리를 하고 정문에는 부락을 자치하는 민병대가 소총을 들고 수비하고 있었다. 논사도 부락민이 합동으로 짓고 있으며 소비품의 구입도 단체로 하고 있다. 주택은 똑같은 형태의 빈약한 바라크가 100여동 있는데 한동에 두 가구씩 살고 있다.

이 전략촌에는 주택과 주택사이가 전부 지하도로 연결되고 있으며 촌민중 남성은 대부분 민병대원으로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으므로 공산계렬라의 기습을 받게 되면 즉시 이에 응전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현재 월남은 이러한 전략촌제도에 의하여 공산계렬라 소탕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라오스 접경지대를 경비하는 월남의 정규군, 우가 필자〉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나치즘의 침략주의와 우리민족의 3·1독립운동을 같은 민족주의로 부르며 선진국의 무역정책과 후진국의 국수주의를 역시 동일한 범주 속에 넣는다. 후진성 극복과 근대화라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놓고 민족주의의 참된 의미와 관계를 연구적인 자세에서 알아보려는 것이 특집의 목적이다.

- ◇ 민주주의 성장과 민족주의
- ◇ 국사상에 나타난 민족주의정신
- ◇ 세칭 민족적 민주주의론
- ◇ 한국근대화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성장과 민족주의(民族主義)



박희범(朴喜範)
〈서울대 교수〉

민주주의의 원리 그 자체는 고대에 있어 서양에서는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에서는 맹자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제도적 기반은 중세적 통일문화의 붕괴과정에서 배태(胚胎)된 르네상스 이후의 근세 합리주의 문화에 연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일대전환은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에 비롯한다는 사실은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완숙(完熟)된 것이 아닐뿐더러 또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 양상도 바뀌어 왔던 것이다. 이 소론에서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 즉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된 민주주의 변모 특히 생산력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국제적 격차에서 배태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알력(輓轡)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의 본질을 해부하려는데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민족주의(民族主義)

인류사회는 본래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코스모폴리탄적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비록 민족사회에서 부족사회, 부족사회에서 민족국가로 그 영역이 넓혀진 것은 사실이로되, 현대 국제사회가 민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라는 점을 부인하고서는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인류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생성 발전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왔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스모폴리탄적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제동기의 역할을 하여 왔음에 틀림없지만, 민족주의를 떠난 민주주의

는 개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존립의 의미 내용을 갖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그 원리가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둘째로 경제적 생산력의 국제적 격차에 연유하는 민족적 이해관계의 대립은 민주주의적 영위(零圍氣) 그 자체 내에서도 민족주의가 등장할 계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형성기에 있어서의 민족주의(民族主義)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더불어 성숙하여 왔지만 민 국가의 형성 내지 중앙집권적 국민 경제의 형성기에 있어서는 민족주의가 보다 강력한 작용을 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에 있어서도 그 원칙에는 다름이 없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족주의가 표면에 나타나고 민주주의는 다만 민족주의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한다. 본래 성숙된 민주주의는 중세의 있어서의 신의 섭리(攝理)에 대치될 수 있는 자기 완료적 통치원리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인 민족국가 내지 그것에 알맞는 국민 경제의 형성을 이룩하지 못한 전근대적 단계에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자기 완료적 통치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로서의 민족국가 내지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지도원리를 요청하게 된다.

영국에 있어서는 중상주의 단계에서 민족 국가와 국민경제를 형성하였다. 중상주의는 바로 최초의 근대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그 절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였지만 그 특징으로 중세의 집권적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풍부한 군주의 재정이 선행 조건이며 그것을 조달하는 길은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무역차액이었다. 따라서 수입의 통제는 물론 국내 산업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게끔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일단 국민경제가 형성되어 전쟁과 모험 그리고 안정보다도 변동을 축적의 수단으로 하는 상업자본의 원시적 축적기를 벗어나 산업이윤을 대표적 축적 수단으로 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민족주의는 후면으로 자취를 감추고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적인 민민주주의가 강력하게 표면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벌써 전쟁과 모험(冒險)보다도 평화와 경쟁을 축적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자유방임을 모토로 삼게 된다. 고전적 민주주의 및 그 경제적 표현인 자유무역은 바로 선진산업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이러한 국가에서만 민족주의를 그 배후에 감춘 채 민주주의만을 앞세울 수 있다.

바로 이 단계에 후진 경제는 어떠 하였는가?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세기의 독-미-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영국과 같이 선진 술로 장비된 산업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코스모폴리탄적 자유방임에 자국의 산업을 내맡긴다는 것은 그들의 산업을 선진 자본에 귀속시키는 매판적 산업구조를 항구화 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 아래서는 민족국가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사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학이나 지식인은 한결 같이 선진적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었다. 다독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지성이 있다면 국외로 추방하기가 일수였다. 그러나 지식인에 각성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대두한 신흥산업 자본가의 세력 증대는 이러한 매판(買辦)이론을 타도하고 말았다. 19세기에 있어 독-미를 비롯한 보호주의의 이론과 그 정책은 그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주의였던 것이다. 보호주의로 그들의 뒤떨어진 국내 공업을 육성하고 자주적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는 근대민주주의 성장과정에 있어 때로는 상업주의와 결탁하고 또 때로는 산업자본과 결탁하며 근대적 민족국가 내지 중앙집권적이며 자주적인 국민 경제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 형성기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주 경제의 내적 충실에 강한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족주의가 이러한 내포적 확대해서 침략적인 외면적 확대로 지향하는 것은 근세 초기에 영국의 경우 상업자본의 본원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고 19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독점자본주의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점자본(獨占資本)과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

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주적 국민경제 형성을 위한 내적 충실 다시 말하면 그 내포적 확대에 특징이 있었으며 결코 외면적 확대 이를테면 제국주의적 침략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자주적 국민경제가 형성된 이후의 산업자본을 배경으로 하고서만 그 완숙을 보게 되었다. 야경 국가적 자유방임을 허용하면서도 자연적 조화가 이룩되는 터전은 바로 산업자본주의 단계인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가격 기구의 자동적 조절작용을 뜻한다. 모든 경제문제가 가격 기구의 매개기능을 통해 자유

경쟁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며 이러한 해결만이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 절대적 신의 섭리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인간 본래의 성향에 따른 합리적 활동이 보장되는 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된다. 이리하여 인간활동에 자유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평등이란 개념이 형성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이다.

이와 같이 이 단계에 있어서는 코스모폴리탄적 민주주의를 앞에 내세우지만 일단 생산력이 발전하여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로 들어서면 그 양상은 달라진다. 민주주의는 국경 안으로 후퇴하고 추방되었던 민족주의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재등장한다. 국제사회에서는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강식약육을 일삼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민주국가와 자주경제의 이데올로기였던 민족주의는 독점 자본과 결탁하자마자 새로운 침략주의 이데올로기로 돌변한다. 이 단계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외연적 확대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이제 민족주의는 내포적 성향에서 외연적 성향으로 바뀌어지며 과거의 자비로운 천사는 이러한 폭군과 같은 악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은 대체로 1870년부터 제 1차 대전까지의 국제 사회의 영위기(零圍氣)였다.

파시즘과 수정자본주의의 후생국가

민족주의가 독점자본과 결탁 하면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고 또다시 민주주의를 그 배후로 추방하는 교체(交替)과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 수단은 되지 못한다. 강식약육(強食弱肉)의 결과 새로운 국제 세력 관계에서 한동안 평화를 이룩한다 할지라도 독점자본(獨占資本)이 내포하는 잠재적 과잉생산력(過剩生産力)은 또다시 횡포(橫暴)를 부릴 가능성을 갖게 되고 다른 한편 후진적 식민지역에서는 각성된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마련이다. 이때 독점자본은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한다. 그 하나는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적 후생(厚生)국가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파시즘이다. 이 두 체제는 그 본질에 있어 동일하다. 제국주의적인 외연적 확대가 그 한계에 부닥치게 되자, 독점자본은 국제 분업으로부터 국내에 있어서의 다양적 생산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공(公共)사업을 전개하고 관세를 높여 지금까지 수입하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고용의 증대와 국내 구매력(유효수요)을 증대하려 한다. 이리하여 케인즈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수정자본주의도 파시즘이나 마찬가지로 헨리 사이먼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극단의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지닌다. 말하자면 이 단계의 민족주의는 또다시 외연적 성향에서 내포적(內包的) 성향으로 전환한다.

다만 파시즘과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가 서로 다른 점은 이리하다. 전자는 민족주의의 내포적 확대성향을 간직하면서도 그들의 생산력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외연적 확대성향을 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후자 그 자체의 경제불러안의 풍부한 자원을 통대로 민족주의의 내포적 성향, 이룰테면 다양적 국내생산체제의 확립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소비지출수준의 안정 및 제고(提高)에 의하여 이른바 후생국가의 형성을 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민족주의의 내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원을 가지는 나라의 경우 내포적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하면서 후생국가를 형성하지만 자원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민족주의의 내포적 성향과 외연적 성향이 다 같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국내에 있어서는 강력한 전체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식민지의 양 분할을 위한 침략주의로 등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요소는 크게 위축(萎縮)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에 있어 독점자본과 결탁 하면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제국주의적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사회에서는 적어도 그 나라 국민에게는 천사와도 같은 후생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폭군과 같은 파시즘적 침략주의로 등장하기도 하는 편리한 관념으로 변모한다.

오늘날의 후진국과 민족주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주의란 고유의 의미 내용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 형태로 변장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후진국들이 지향하는 민족주의는 식민지적 귀속 관계의 청산이란 같은 여건이 조성하는 영위기(零圍氣)에서 본다면 공통적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각 국에 주어진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도 결부되어 티토이즘으로 변신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저버릴 수 없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인 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민족주의란 역사의 정당 정당한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한 민족주의이든 적어도 민주주의가 존속할 수 있는 온상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 날 후진 지역에서 배태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제양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주적 국민경제의 형성기에 놓여 있는만큼 내적 충실을 위한 내포적 성향의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따라서 이들 제국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는 침략주의와는 인연이 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민족주의를 국수주의라 해서 백안시(白眼視)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둘째로 19세기 후진국의 보호주의도 당시의 매판이론 의해서 완강한 저항을 받았지만 오늘의 후진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력한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그들은 오랜 경제적 귀속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거나 경제 협조 내지 협조라는 형식으로 도움도 받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귀속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실력에 의한 지배는 종식 하였다 하더라도 소위 문화적 침투에 의하여 후진국의 지성인은 부패 타락한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허울 좋은 매판이론이 더욱 손쉽게 판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력한 저항은 민족주의로 하여금 기대했던 이상의 폭군으로 달리게 하는 구실을 마련해주기도 할 것이다.

셋째로 19세기 후진국의 민족주의는 그 배타성이 보호주의란 테두리를 벗어난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나의 그것은 후진국 자체 내에 부식되어 있는 선진자본세력에 구축과 그것과 결착하고 있는 매찬적 경제세력의 거세를 위해 그 배타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도 및 고리대 내지 상업 자본주의적 낙후성의 불식을 위해서는 보호주의 이상의 강력한 국가통제 내지 경제 계획이 요청된다. 말하자면 자주적 국민경제 형성을 위한 경제 계획과 배치되는 요소는 배척 되어야 하는 만큼 배타적 성격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민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록 민족주의의 기치를 표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진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선진 독점자본을 위한 독재로 타락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중동의 일부 국가는 그 좋은 예이다. 그뿐 아니라 선진 독점자본은 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부패한 후진국의 독재와 결탁하여 민족주의의 기운을 거세하기도 한다. 중남미 많은 국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낫셀리즘은 아랍 민족의 통일을 강력히 방해하는 석유독점자본을 전제로 한다는 필연적인 소산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중립이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교도민주주의는 때와 장소를 바르게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민족주의를 고립시켜 공산주의 진영으로 전락하게 하는 폭거가 재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들 제국과 그 여권이 다른 한국의 있어서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할 것인가 민주공화당은

지난 선거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아마 민족적이란 수식사(修飾詞)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상당히 배려한 어구라고 생각되나. 적절한 수식사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민족적 민주주의는 수정자본주의, 파시즘 혹은 19세기적 보호주의의 어느 것보다도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우방과의 제휴(提携)를 부정할 도리는 없다. 그러면서도 자주적 국민경제의 확립이 곧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50억의 원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민주경제와는 반대로 매판적경제구조를 심화하여 왔고 이 때문에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자주를 위한 경제계획이 요청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그것과는 다른 지도적 민주주의로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요할지도 모른다. 수식사가 붙지 않는 순수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논저도 있지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말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초 독일에서도 판을 쳤고 보호주의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를 국외로 추방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론자였다.

× × ×

〈61면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보충 강화되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일제가 우리를 완전 식민지화 하여 무자비한 무단통치를 감행하기 시작하자 국내에서 의병들의 격렬한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민족의 전진적인 애국 세력들은 모두 항일 민족투쟁에 결집 되었다. 실로 일제가 우리 민족을 강점 하여 탄압하고 착취 하던 식민통치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크게 대별하면 국외의 망명 독립운동 세력과 국내의 항일운동이었다. 또 그 방법으로는 비합법적인 무장투쟁이 있었는가 하면 합법적인 개량주의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일본을 우리 국토로부터 추방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실현하자는데 있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족은 유명한 31 운동에서 맨주먹으로 민족 항쟁을 벌여 우리의 독립에 대한 투쟁성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고 그 뒤로도 민족주의정신에 보다 나은 창달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기도 되고 실천 되었다.

그런데 반신불수의 형태 남아 민족해방이 된 일에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후진 각국에서 성취되고 있는 실질적인 민족독립을 위하여 민족자주정신에 선 무한의 노력과 발전이 날이 갈수록 아쉬워지는 것이다.

국사상(國史上)에 나타난 민족주의정신



조좌호(曹佐鎬)

〈동대 교수〉

민족의 개념 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명이 있음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민족의 개념과 정의가 이즘(주의)으로서 작용되고 요구되는 경우일수록 그 표현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은 역사의 단계적 발전 선상에서 설명되고 해결되어 왔으며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근대국가의 단위로까지 발전하여 왔다.(그 유형의 다양함도 있으나) 이러한 유형의 발전과 정비의 유형에 따라서 말하자면 세계사적 규범에 입각한 이기적(혈연, 문화, 경제 등의 공동체체) 집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단위 집단들의 단계적 전개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반성 내지 공동성을 기초로 하여 우리네 한민족이 지나온 발자국도 해설 되어야 하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의 올바른 사명과 추구를 위한 하나의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보는 각도와 방법에 따라서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민족사는 민족사회에서 부족집단 또는 부족국가에서 귀족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고려하면 신라의 소위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주에 판도를 가졌던 고구려는 신라 통일 이전에는 그래도 그 활동의 한계가 한민족의 계열에서 있었으나(중국대륙과 관계에서 볼 때) 신라의 한반도에 걸친 전국적인 통일화 과정이 있는 이후로는 점차로 이질화하여 한민족과 우린 민족과의 사이에서 그 특수성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국경관계의 유동성(流動性)은

이조 세종조에 와서 그 고정이 시도되었으며 그 말기에 이르러 겨우 명백해졌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상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정신에 관한 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대체로 약탈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국가간의 대외관계에서 집단 의식, 국가 의식 등이 운명공동체로 연결될 때 민족의식의 시원적 형태가 싹트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의식자체를 바로 민족주의 정신이라고 말하기엔 이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족과 민족사이의 관계에는 늘 싸움질이 많았고 친선이라는 것도 민족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매개가 되었으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민족도 주위에 있는 중화민족, 몽고민족, 일본민족, 만주족(여진) 등과 여러 가지 형태의 대외관계를 맺어왔고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민족의 종족적 통일과 국토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이 바로 완전한 우리 민족의 종족적인 통일은 아니었다. 영토면에서 보면 겨우 대동강과 원산이남이 신라에 속하게 됨으로써 그 이북의 땅과 만주는 떨어져나가 발해, 금, 청등의 나라로 변질화하여 우리 민족의 영역에서 벗어 나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통일신라시기를 민족결정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10세기 고려 초에 와서 몽고의 거란족과 만주의 여진족과 싸우면서 평북동부를 제외한 평안도대부분과 영흥까지의 함경도지방을 찾았으나 몽고족의 원(1206-1308)이 일어남으로써 이 민족발전운동은 중지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4세기 원래(元來)에 와서 다시 평북도의 전부와 함경도의 길주까지를 회복하고 만주를 도로 찾기 위하여 요동지방을 공략하였으나 새로 일어난 명의 압박으로 저지된 적이 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과 원을 상대로 50년간의(거란과는 1010-1019, 원과는 1261-1270) 싸움을 계속하였고 고려왕실이 그들에게 신복(臣服)한 뒤로는 민족적인 저항사상이 고조되었다. 고려전기(全期)를 통한 여진족과의 대소충돌과 여말 40여년에 걸친 왜구의 약탈은 고려 사람들의 타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역대 우리민족의 북방족에 대한 민족발전 및 민족보위투쟁은 우리 역사상 높은 민족의식의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전개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조 때는 사대사상이 팽창하여 민족주의 정신은 문약한 지배층들에 의하여 도리어 탄압 당하여 왔고 일본과의 7년 전쟁(임진란 1592-1598), 청과의 5개월 전쟁(병자호란 1627년 1월-3월, 1636년 12월-익년 1월)에서 우리민족의 영토는 잡초 밭이 되는 굴욕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영토의 안전이라든가 민족적인 보위투쟁에는 항상 민족대중 즉 서민층이 희생되고 담당하는 바였으나 그 결과는 늘 귀족 지배층의 독점으로 귀착되었고 피지배 서민층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정치 형태가 귀족지배정치로 규정될 수 있겠는데 왕자의 전제와 양반 귀족의 권력 지배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귀족국가들은 우선 동일민족 내부에서 계층 간의 알력과 모순관계가 부단히 계속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민족 간의 투쟁이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귀족 국가 단계에 있어서의 민족과 민족 간의 투쟁은 귀족 지배층의 필요에서 야기되는 것이며 승패 역시 그들에게 크게 관계되는 것이지만 그 실질적인 부담과 피해는 민족 내부의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정신은 귀족국가권력의 무제한한 주구(誅求), 착취욕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지배의 강화와 온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휘되었을 따름이요 민족전체의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이익에 입각한 민족의식 내지 정신은 표현되지 못하였거나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왕조의 교체도 그 본질을 동일범주로 하는 상층부의 역성변형인 것이요 결코 민족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귀족 국가와 민족 간의 이익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아세아적 정체성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공동성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여대(麗代) 우리민족의 북방개척 및 민족보위투쟁은 높이 평가되는 바이고 또한 이조 임진란 때 민족중심의 의병들이 조국의 사수에 열렬히 참가한 사실과 이조후기의 대소 민란에서 양반귀족정부가 지닌 말기적 모순의 극한화와 부패, 무능에 대하여 민족사회내부의 자각과 항쟁이 계기되었다는

것은 진보적 민족세력이 민족적인 자기성장이란 각도에서 볼 때 하나의 전인으로서 크게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근대적인 민족주의정신이 싹트고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조말에 와서 러일청 등의 나라와 구미세력이 진출해 오던 때로부터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서구 각국에서는 봉건적인 중세 질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통일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이루게 됨으로써 국가단위의 이기주의가 성립되었고 그들은 또한 상호 간 경쟁하는 상태에서 정체인 후진국을 차례로 침략하였다. 대체로 후진국에서는 서구자본주의 세력이 침입해 들어옴으로써 자극충격 되어 근대적 의미의 민족적 각성이 촉진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도 이조(李朝)말에 이르자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한 청, 일, 러의 각축전이 벌어졌고 아세아에서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하여 가장 먼저 근대화하기 시작한 일본은 러일, 청일 양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나라의 독점침략을 강행하였고 강대국 간의 일방적 흥정 밑에서 우리조국을 제국주의 일본의 완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1910년) 여기에 앞서 1884년에는 개화파에 의하여 민족 근대화운동으로서의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1894년에는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든 동학당농민투쟁이 일어나 맹아기적이거나 민주주의적 민족 운동으로서의 민족적 실력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일면으로는 독립협회(1897년)와 독립신문이 생겨 민족 계몽 운동과 독립운동이 일어나 크게 활동하였으나 망국의 여건을 더 부채질하는 양반 귀족 세력들의 매국적 반동으로 탄압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조 후기 양반 귀족 정부 하의 민족주의 정신은 항상 자체 내의 지배층과 외세의 간섭 및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외세와 자체 내의 귀족 세력은 민족대중이 근대적으로 각성되면 될수록 그들의 의도와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민족주의 정신의 발전을 거부하고 억압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귀족세력은 민족반동세력인 것이며 외세는 곧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주독립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계사사회의 근대적 참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민족주의는 양반 귀족세력의 매국적 반동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의 들의 침략과 간섭이 심해질수록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더욱 격화되었고 여기에는 한국 민족주의도

〈57면에 계속〉

세칭(世稱) 민족적 민주주의론

홍성유(洪性兪)
〈경제평론가〉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의 개념은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 등의 역어가 표시하고 있듯이 역사적으로도 여러가지 의미로 분화되어 온 까닭에 일의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내셔널리즘의 용어 속에는 근대 세계사의 정치적 단위를 이루 온 민족(국민)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다양한 역사적 가정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내셔널리즘을 지극히 일반적으로 규정한다면 자신이 속하고 있는 Nation(민족·국민·국가)을 다른 Nation으로부터 구별하여 의식하고 그것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사상 또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이른바 민족의식의 성립은 근대사회 과정의 일정 단계 즉 자본주의의 성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본주의경제의 성립과 그 발전과정은 국민 국가의 통일 독립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했던 것이다.

대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한 권력독점에서 벗어나 이것을 국민적 기반위에 확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조직원리가 되어온 절대주의를 타파하여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내셔널리즘 운동이 역사적 운동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의 일이다. 그 이후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 체제의 발달은 국제적인 불평등과 국내적인 계층의 문화를 격하시킨 그로서 식민 새벽에 위한 외부에 관여와 외국자본과 결탁된 국내의 판자 번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속에서 민족적인 국제적 종석을 탈피하여 주권을 획득하고 봉건적인 수탈적 지배에서 국민적 의지와 국민적 의지와 이익의 통일과 경제를 되찾자는 지향이 현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지역 후진제국의 내셔널리즘의 동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셔널리즘은 반봉건 반식민주의 대항력을 이르는 것인 동시에 신생 국가에서는 권력의 추진력의 구실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자본과 지식층 등의 이른바 의사(疑以)중산층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칫하면 내셔널리즘이 권력자의 비합리적인 선동도구에 추(墮)하는 수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소박한 조국의 호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내셔널리즘의 이론성의 부족은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애고이즘에 빠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정치력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이용 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의 정치적 성격은 항상 불안정하며 반동과 진보의 양극단을 광적으로 점철(點綴) 하기가 일수이고 이에 시민적 자유와 결탁된 내셔널리즘부터 파시즘 사회주의와 결탁된 계급 해방=민족 해방=전체이익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종의 양상을 띠게 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어원은 희랍어 Democratia에 유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말은 Demos(인민)와 Kratia(권력)과를 결합시킨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원리 또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란 인민이 권력을 소유함과 아울러 인민 스스로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민 전체의 이름으로 주장되는 것이 실은 그 사회 있어서의 상대적인 다수자의 의사의 불가하다는 점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민의 참정권이 실은 소수의 정치적 사회적 새벽에 집애를 형식적으로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대민주주의의 문제는 있다. 의회정치의 조직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각종 이익집단과 결탁된 소수정당 지도자의 과두지배에 의하여 운영되며 인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은 대자본과 결부된 메스컴의 위력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관념은 이렇듯 논쟁적·역사적인 성격의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발전 과정에 놓여있는 미완성의 것으로 인류의 노력이 언제나 그것 때문에 촉발되고 있는 현실적인 이념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노력, 그 자체 속에 민주주의의 가치는 존재한다고 하는 소이(所以)도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민의 확대의 역사이지만 그것의 동질적인 일체성이 실현된 일은 역사적 경험으로서 없다. 그러므로 관념으로서 인민이 현실의 인민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해온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금권과 투표와의 야합에 의한 소수 자본가를 위한 허실만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참정권에 관한 법적 보장을 명목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제장해의 제거를 위한 인민확대(人民擴大)의 노력을 그 발전방향으로 해야 한다. 또는 전위나 당원외의 인민에게도 정치적 자유의 실질적인 해방이 얻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회의 역사적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권력참가방법 중의 현대적인 것은 간접민주제이지만은 대표의 의제(擬制), 심지어는 선출된 전제자의 위험을 그것은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대변자로서의 정당을 보완할 사회적인 압력단체의 합리적인 조직화의 의회제도를 기능면에서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합법적인 도입이 객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근대민주주의의 목적은 각인의 자유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실현할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법제상의 권리가 반드시 사회적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자본제발전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자유방임의 원칙이 실업과 기아의 자유를 초래한다는 사실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생활의 보장이라는 양면에 걸친 편등의 요청은 마치 대립되는 개념인 것 같은 착각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인간을 실업과 기아의 공포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해방의 원동력이라고 할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반대의 명제도 성립한다. 자유와 평등을 조정하고 자유권과 생존권을 실제적인 계기에 의하여 양립시키려는 노력방향, 그것은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즉 근대와 현대와의 통합적 지양(止揚)의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

내셔널리즘과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는 그 생성발전과정을 같이 해 왔으며 현대적인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후진국의 내셔널리즘도 개인과 사회조건에 대한 자각적인 의식과 행동의 조지고하란 점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의 한낱 과도적인 역사현상이라고 이해된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한정하는 의미에서의

다른 지도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목적의 실현과정에 있어서의 특수한 사회운동과 사회 정신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근대에서 현대에 걸치는)라는 가치 내용에 포함되는 개별적, 역사적인 의식이라고 이해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간섭전쟁(干涉戰爭)의 과정은 프랑스 시민에게 애국심과 국민주권과의 결합을 초래시켰고 이어 나폴레옹의 침략은 국내외에 걸친 왕조주의의 타파와 통일되고 독립된 국민적 자기결정의 시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영국은 통일국가의 조기완성과 산업혁명의 선형적인 달성 등의 특수한 제조건으로 말미암아 내셔널리즘으로의 이념적 응집이 없이도 현실적인 국민적 이익의 발전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국내에 있어서의 반봉건 또는 절대왕정의 타파와 대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지탱시켜 준 것이 내셔널리즘이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은 그대로 근대적 민주화의 초기적 관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셔널리즘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결합의 추진력이 된 것이 각국의 신흥자본가층과 지식층이었다.

20세기 아세아 아프리카 후진제국의 내셔널리즘은 식민주의로부터의 민족의 해방과 반봉건적 전통적 생산양식으로부터의 근대적인 국민경제의 형성을 그 태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셔널리즘을 추진할 하층대중의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위에 말한 신흥자본가 계층이나 지식층의 불안정성 때문에 자칫하면 급진적인 열광에 빠지거나 왜곡될 방향으로 반동화 되기가 쉬운 듯하다. 국민적 전통의 과시와 민족적 고난의 현영(顯影)이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미화되어 그것이 낭만주의에 접근하게 되면 실속 없는 쇼비니즘에 떨어질 위험이 있음을 역사는 가르쳐 준다. 또는 국가의 위신감과 결부된 급진적인 사회개혁 예컨대 국가자본에 의한 저돌적인 공업화 계획이나 자립과 자율의 즉시요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 파시즘, 카리스마적 권위주의에 기울어지는 예가 많은 듯하다.

이를테면 내셔널리즘 속에는 진보성과 반동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미묘한 상황 추이에 따라 그 운동이 전진 보다는 후퇴로 역전되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안전변(安全辯)은 현대적 민주주의이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진시킬 역사적 사회세력으로서 지식층과 생산계층의 기능적 조직화라고 생각된다.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

경제발전과 민족·민주의 기치(旗幟)

치사의 주권을 회복한 후진국이 그 국민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경제로서는 너무나 종속적이고 기형적이며 단일 사회로서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이어 받았다. 이 모든 유산은 독립과 발전의 이행단계 전에 선진공업국가의 침식을 받은 때문이며 토착지배층은 그대로 외래세력에 부착하여 매판화(買辦化)하고 이에 정체적(停滯的)인 경직화(硬直化)는 불가피 하였던 것이다.

자본과 근화의 압제는 국가자원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방대(龐大)한 사회의 저변은 무의미와 무력한 상태를 심화시켜 갔다. 이러한 여건위에 성립된 국민국가가 형식적으로 민주제를 추종한다고 하여 주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그 자율적,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회제도의 형해화(形骸化)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여 아노미를 바탕으로 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기대하게 되고 선출된 지도자는 국가적, 국민적 상실을 내세움으로서 대중의 지배에의 종조를 굳건히 해간다.

위와같은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나 모두가 가식적인 명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는 물질적 기반의 미형성 때문에 후진국에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자체 자유·평등의 역사적 추구는 절대로 인류노력의 가치로서 불신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로서 특정단계의 국가가 내셔널리즘에 의한 촉진적 요소의 조직화에 애쓰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지만 반민주적 경향으로 내셔널리즘이 작용될 때에는 국민경제의 사점(私占)과 후퇴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전란 휴전과 석유
어느 일본의 전략가는 한국전란휴전의 배후가 공산측의 석유사정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즉, 소련은 동란직전까지 만주에 300만톤의 석유를 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간의 전투에서 이 석유는 완전히 소비되고 그 수송과 보급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한국근대화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권운혁(權允赫)
〈동대법정대학장〉

1. 경제의 근대화 혁명

한국은 지금 격심한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과정(Vicious circle of poverty and unemployment)에서 허덕이고 있다.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이 날이 갈수록 빈곤해 지기만 하며 또한 해가 갈수록 실업자가 누증해 가는 경제적 사회적인 순환과정을 가르켜 하는 말이다. 이 같은 악순환에서 한국 국민은 점차로 궁핍해진 것이고 국민생활의 궁핍화는 정치적 불만으로 폭발된 것인데 연이어 폭발한 4.19 학생 혁명과 5.16 군사혁명은 바로 그 같은 악순환 과정에서 오는 정치적 불만의 표현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은 또한 반드시 정치면에 표현되어 혁명의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법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 후진제국에서 널리 실증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빈곤과 실업 그리고 또 혁명의 악순환이 휩쓸 경우 그 사회가 파멸되고 만다는 것은 자명한 사리(事理)인데 사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같은 악순환과정으로 말미암아 파국에 직면한 것이니 그 악순환 과정을 과학적인 지평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극복의 방책을 급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은 한국의 그 기형적인 산업구조에 원인을 두고 있으니 우선 그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1960년 4.19혁명전의 산업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차산업(농업, 수산업, 임업 등).....38.2%
- 제2차산업(공업, 광업 등).....10.6%
- 제3차산업(상업, 서비스업 등).....41.2%

이 같은 산업구조는 요컨대 반봉건적 식민지형의 산업구조라 할 수 있으니 첫째로 농촌 인구는 총인구의 67퍼센트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의 40% 미만을 생산하고 있을 따름이니, 농촌이 근대화 되지 못하고 봉건적인 빈곤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둘째로 공업 및 광업 부분은 전연 발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업, 서비스업만 변태적으로 팽창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외국 상품의 시장으로서 식민지형(植民地型)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이같이 반봉건적 식민지형인데 기인하여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이 초래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산업종별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과 고용률이 높은 2차산업 즉 공업, 광업이 이 모양으로 허무하여서는 국민생활이 빈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방대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국민소득은 78불이라 하지만 그 실소득은 60불도 안 되는 세계 최저의 가난뱅이 국민인 것이며 그 실업자는 완전 실업자만 하더라도 250만명에 도달하고 여기에 이른바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자를 합치면 가동(稼動)인구의 무려 반수에 접근하는 세계 최고율의 실업자의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막힌 사태에서 파산지경의 국민생활을 구제하고 실업자를 완전취업 시키려면 생산성과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제2차 산업에의 광공업 부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광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반봉건적 식민지화의 산업구조를 근대적, 자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산업 혁명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같은 공업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수행하려면 어떠한 경제원리에 입각해야 하겠는가. 한국과 같은 후진국이 공업화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자본을 총동원함은 물론 외자(外資)의 차관에 힘써야 하고, 국력을 기울여 기술의 습득과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국내 시장의 보호와 해외시장의 개척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거족적인 공업화 혁명의 수행은 모리배의 비위만 맞추고 있던 종전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 경제원리로서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거늘 종전의 낡은 지배층은 그 같은 개인주의의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입각각하여 경제를 운영하였으니, 사회의 자본을 공업부문에 집중시킬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향상에 거국적인 힘을 기울일 수 없었고

또한 선진국의 우월한 공업생산력의 시장 침식에 대항하여 국내 시장의 보호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 같은 개인영리 위주의 자유주의 경제는 사회의 자본을 폭리를 취하는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수입과 또한 그 소비를 위한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시켜 외국 상품에 의한 국내시장 침식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자본과 시장을 모두 빼앗긴 농업과 공업은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이 한국 사회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경제는 한국과 같은 식민지형의 경제구조에 있어서는 공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그 쇠퇴를 가져오기 마련이니 한국과 같은 식민지형의 후진국이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하자면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경제원리를 지양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원리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주의의 입각한 새로운 경제원리란 자유주의 경제원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인하려는 따위의 원리가 아니고 종전의 모리 위주의 자유경쟁 제도를 민족산업건설 위주의 자유경쟁제도로 높이지는 것으로서 자유주의를 그 내면에 보존하면서도 민족적인 입장에서 계획과 조정을 해 나가려는 경제원리인 것이다.

이 같은 민족주의의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연차적인 산업혁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의 자본을 공업부문에 유도하며 외자의 차관과 기술향상에 힘쓰고 외국의 자본공세에 대항하여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비로소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또한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공업화 혁명은 자본, 기술 및 시장 등의 경제적인 여건의 민족주의의 경제원리에 입각한 배치만으로써 이룩되는 것은 아니니 그 같은 경제적인 여건을 움직이는 국민대중이 민족주의적인 자각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개성을 발휘하여 공업화 혁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근대화 혁명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사회근대화 혁명은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하기위한 기초공사인 것이니 그 같은 기초공사를 소홀히 하고서 경제적인 산업혁명에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 잡으려는 것과도 같은 꼴인 것이다.

2. 사회의 근대화 혁명

부우케(J. H. Bolke)는 화란(和蘭)[네덜란드]의 식민지 인도네시아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사회의 이중사회구조

(Construction of dual society)를 밝히고 이중사회의 이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부우케에 의하면 식민지사회는 강제 이식된 선진중주국의 자본주의적 사회와 토착의 전자본주의적 농촌사회가 각각 고유의 상이한 사회경제체제로서 동시에 병존(並存)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관계의 이중사회라는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동질적사회도 역사발전의 과정에 있어서는 과도적인 형태로서 자본주의화한 근대적인 도시사회와 전자본주의적인 농촌사회의 동시 병존이라는 모습을 나타낼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내생적인 사회발전의 임시적인 과도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우케의 이른바 식민지적인 이중사회라는 것은 그같은 사회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임시적 과도적 형태의 이중사회가 아니고 과도성을 지니지 않는 완전히 이질적으로 병존하는 이중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식민지의 토착적인 사회체제는 외래적인 사회체제의 근대화적 분해작용에 대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토착사회의 주변에 있어서 약간의 분해 작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전통의 체제를 고집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같은 저항적인 자기보존의 경향은 그 근대화적 사회분해작용이 외래적인 침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경향이라 하겠으니, 선진국의 식민주주의는 토착사회의 퇴영적 정체적 성격을 더욱더 경화시키고, 식민지의 후진 사회를 피가 통하지 않는 이질적인 이중 사회구조로 변형시켰던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피가 통하지 않은 이중 사회구조에 있어서는 미일달(G. Myrdal)이 논하듯이 이중사회 사이의 사회적인 고랑이 장애가 되어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라는 경제적인 활동이 전체 사회에 파급해 가지 못하고 따라서 상호교류 하지 않는 이중경제체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산업의 근대적인 발전은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사회가 공업화 혁명을 이룩하자면 그 선행조건으로서 반드시 이중사회구조를 타파하여 동질적인 통일사회로 전환시키는 사회적인 작업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수행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사회도 과거 36년간 일제의 식민주의로 말미암아 그 사회구조가 부우케의 분석한 바와 같은 이중사회구조로 왜곡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그 같이 왜곡된 이중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의식적, 계획적인 노력을 경 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하거늘 해방 후 집권한 몰지각한 지배층은 그 같은 사회의 동질적인

통일화 작업을 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구미식 민주주의를 주책없이 맹목적으로 모방함으로써 도시에다 구미모방의 호화사치한 뿌리 없는 모조문화(模造文化)를 조성하고 이른바 대량의 국산이방인(Foreign Korean)을 산출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방적인 격차를 증대해 감으로써 한국의 식민지적 이중사회를 더욱 악화시켜 갔던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식민지적 이중 사회구조를 어떠한 이념으로서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구미식 민주주의 이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그 기본원리로 삼는 이념으로서 인민해방의 이념이기는 하나 인민통일의 이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식민지적 이중 사회를 통일하면서 사회의 근대화를 이룩해 나가자면 단순한 해방의 이념인 구미식 민주주의 이념만으로써는 부족한 것이니 그 같은 해방의 민주주의 이념을 포월(包越) 할 수 있는 통일의 원리를 한국의 정치문화의 전통에서 구하여 새로운 패턴의 한국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민족의 통일의 원리는 31 독립운동에서 발현된 민족주의에 구해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31운동은 온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한 마음 한 뜻을 단결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31운동의 민족주의는 미국대통령 윌슨(U. Wilson)의 민족자결주의의 부르짖음에 호응하여 폭발했던 민주주의로서 민족의 독립과 자결 그리고 또 해방을 위한 이른바 식민지적 민족주의(Colonial nationalism)인 것이니, 파시즘의 이른바 선민의식의 침략적이며 독재주의적인 민족주의와는 그 유(類)를 달리 하는 것이다. 한국민족은 이 같은 독립과 자결의 민족주의를 해방의 이념인 구미식 민주주의 이념의 섭취와 더불어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한국적인 패턴의 민주주의이념으로 전개시켜서 그 사회 근대화의 지도이념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지도이념으로서 이중사회적으로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잡아 새로운 근대적인 사회행태의 패턴을 형성해야 하겠으니 즉 일방에 있어서 국산이방인들에게 민족의 일을 불어 넣어서 원심력적으로 자유를 악용하여 민족사회를 쪼먹는 그들을 구심력적으로 자유를 선용하여 사회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며, 또 다른 일방(一方)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이른바 아세아적인 퇴영적 정체성에서 잠자고 있는 농민대중을 의욕적이며 창발적인 근대적 인간형으로 일깨워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서 양극적(兩極的)으로 이질화된 인간형을

동질화하고 이종적으로 분열된 사회구조를 통일적 사회구조로 변혁해 가는 것인데 그 동질화된 통일적인 민족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은 스스로의 특유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하면서도 민족적 자각에서 근심력적(近心力的)으로 협동하여 창발적으로 민족사를 건설하는 새로운 패턴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은 국민이 이 같은 새로운 패턴의 동질적인 국민이 되어 민족사회의 영광을 빛낸다는 민족적 자각에서 산업건설에 매진하게 되는 날 비로소 종전의 미국적인 이기주의 근성의 매판적인 모리(牟利)활동이 지양되고 도시와 농촌의 이중 경제적인 장애가 제거되어 한국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은 국민이 스스로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협동하여 민족사를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지낼 때 비로소 종전의 부패한 지배층이 작당하여 전근대적 의식의 농촌대중을 기만하고 사기하던 협잡(狹雜)민주주의가 지양되고 건설적인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식민지적인 이종사회를 타파하고 근대적인 의식의 동질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 선행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는데 다만 그 같은 사회근대화 작업은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단순한 이념만으로써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새로운 이념의 정신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광범한 문화운동이 일어나야하며 또한 그 이념의 정치사회적인 실천적인 작업부대로서의 민족사회의 주도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근대화의 운동은 제1의적으로는 봉건적인 의식을 청산하고 근대적인 정신으로 전환하는 정신혁명의 운동인 것이니 각국 근대화과정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언제나 정신혁명을 위한 열성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영국은 그 근대의 여명기(黎明期)에 있어서 밀턴(Milton), 드라이덴(Dryden), 록크(J. Locke) 등 위대한 사상가들이 성운(星雲)과 같이 출현하여 이른바 문필공화국(The Republic of Letters)을 형성하여 근대화의 정신혁명을 위하여 분투하였던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볼테르(Voltaire), 몽테스키외(Montesquien), 루소(Rousseau) 등 대사상가들이 대두하여 민중에게 근대적인 자유정신을 주입하기 위하여 열렬한 계몽운동을 하였다 것은 주지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같은 그들 사상가들의 문화운동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근대화

의 정신혁명이 이룩되었는데 그 같은 민중의 정신혁명은 근대적인 생활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土臺)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정신혁명의 토대위에 실천적인 사회의 주도세력으로서 부르주아 시민계급이 형성되었고 그들 부르주아 계급은 그 같은 근대정신에 입각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생활체제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 아세아 아프리카 후진제국 중에서 혁명의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고 민주주의적으로 그 식민지적 후진성을 극복해 가고 있는 나라는 오직 인도뿐이라 하겠는데, 인도에 있어서의 근대화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 이념의 내용은 영, 불 등과 사이한 바 있으나 근대화의 운동과정은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인도에서는 19세기 초두부터 로이(Roy), 차텔지(Chatterji), 타고르(Tagore) 등 종교가, 시성(詩聖)이 출현하여 힌두교의 종교개혁과 문예부흥의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20세기의 간디(Gandhi), 네루(Nehru) 등의 정치적 민족주의로 결실하였던 것이다. 그 같은 문화운동과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국민회의파라는 인도의 민족주도세력이 형성되었는데, 그 주도세력은 문맹이 80%이고 공용어가 십 수 개어이며 인구가 3억이 넘는 인도를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이끌면서 연차적인 경제건설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근대화의 과정을 보면 언제나 문화운동과 더불어 정신혁명이 진행되었으며 사회의 주도세력이 형성되어서 민중의 정신혁명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근대화인 생활 체제를 실천적으로 수립한 것이었다.

한국도 근대화된 민주적인 민족국가를 창건하려고 한다면 단축한 과정일지라도 문화운동에 의한 정신혁명을 치러야 하며 새로운 한국적인 민주주의이념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할 주도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해방 후 문화활동은 구미문화의 모방(模倣)활동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 같은 모방활동은 이른바 정신의 사대주의화(事大主義化)를 초래할 뿐이다. 사대주의화한 정신풍토에서는 언제나 무능한 부패한 사대주의적인 지배층 즉 소피스트적인 학자 및 언론인, 정상배(政商輩), 탐관오리(貪官汚吏), 간상모리배(奸商謀利輩)가 작당한 지배세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무능 부패한 사대주의세력은 민족사회의 근대화는커녕 민족사회를 좀먹으면서 파멸로 이끌기 일수인 것이다. 사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후진제국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구미문화의 모방만 해온 나라치고 부패한 지배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가 없으며 또한 부패와 혁명의 악순환

을 일으켜서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놓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또한 그 같은 비극적인 후진국 중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급속히 그 같은 비극을 극복할 운동을 시작해야 하겠다.

그 같은 비극 극복의 운동으로서 한국은 급속히 종전의 외국모방의 문화화동을 지양하고 민족문화의 부흥운동을 시작해야 하며 나아가서 민족문화와 구미문화의 창조적인 통일에서 새로운 패턴의 한국적인 민주주의의 이념 즉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의 이념의 과학적인 이념 체계를 형성하고 그 이념체계를 체득한 실천적인 주도세력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운동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새로운 이념의 주도세력이 형성되는 날 한국사회의 서구화가 아닌 진정한 근대화가 이룩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같은 주도 세력은 상술한 바 민족주의 경제원리를 실천하는 민족주체성의 지주(支柱)세력이 되어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종전의 협잡(狹雜)민주주의를 청산하고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  
〈80면에서〉

이상과 같은 생각을 굳게 가진 스카르노 대통령은 혁명지도의 일원화와 혁명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59년 7월 5일 드디어 쿠데타를 감행했다. 즉 권력분립주의에 토대를 둔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혁명지도의 일원화에 편리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스카르노 대통령은 1945년 헌법 복구를 위한 개헌안을 제헌의회에 제안했으나 3차에 걸친 표결에서 부결되자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로 재헌의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법을 무시하고 동(同)개헌안의 통과를 국민에게 선포했다. 또 한편 국론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정당을 해산 해 버리는 불법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이 혁명지도를 일원화 시키려면 반드시 혁명이데올로기를 통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혁명이데올로기를 통일 시키려면 혁명이라는 구실 하에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인 제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을 스카르노는 구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이것을 가리켜 쿠데타 또는 불법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이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 ⑧**



이극찬(李克燦)  
〈연대교수〉

**(2) 교도(敎導)민주주의의 본질**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대통령은 1957년 2월 21일 수마트라에 있어서의 군부의 반란으로 국내외 질서가 극도로 문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정치지도자들과 군부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하놓고 국가의 위기를 구출하기 위한 일대정치적 구상을 천명했다. 이것은 그의 종래의 주장을 정식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교도(敎導)민주주의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석상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서구적 민주주의로서 알려져 있는 제도의 모든 형태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한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과거 11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다보면 불수록 우리들이 계승한 서구적 민주주의 체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에는 모순된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알맞은 독자적인 민주주의 즉 교도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자적인 민주주의체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 하나는 공산당까지를 포함하여 국회에 일정한 대표를 가진 모든 정당으로부터 되는 상호질서내각(Kabinet Gotong Royong)을 조직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스카르노 자신에 의해서 지도되는 국민평의회(Dewan Nasional)을 조직하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이 평의회 내각에 어드바이즈 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사회의 여러 기능집단의 대표로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정치적 구상이 일단 천명되자 국내의 보수세력간에는 반대와 비판의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그러면 스카르노 대통령은 어찌하여 이와같은 구상을 하게 된 것일까?

**(가) 교도민주주의 제창의 배경**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후 구식민제국인 화란(和蘭) [네덜란드]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복귀하여 계속 식민정책을 감행하려 하자 양국 간에 사년만에 걸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12월에 이르러 비로소 네덜란드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완전독립을 이룩한 후의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350년간에 걸친 네덜란드 식민주의의 유산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민족의 통일, 자립적 경제의 건설 및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독립 후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극심한 민족적 순열과 정치적 불안 및 경제건설의 지체(遲滯)였다. 이와 같은 위기를 조성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 혼란이 그 직접적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스카르노 대통령이 교민주주의를 제창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당정치의 혼란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嫌惡感)에 있었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정당들은 민족의 독립이 이룩된 1949년까지는 상호간에 이데올로기와 정책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독립이라는 공통의 확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네덜란드의 식민세력과 싸워왔다. 그러는 사이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여러 정당들의 역할과 의의는 자못 큰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일단 독립을 하게 되자 이들이 여러 정당들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 보다는 오히려 당과 특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광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제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정당지도자와 그 대중적 추종자들과의 사이에 맺어진 개인적 결합체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당지도자의 수 만치 군소정당이 난립되게 되었고(주) 또한 이와 같은 군소정당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당의 이데올로기와 정강정책에 의해서 본는 정당지도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주) 1955년 현재 국회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정당 수는 25개, 여기에서 총선거에서 참패하여 의석을 잃어버린 6개의 정당을 합하면 총 31개의 정당이 난립했다.

이와 같은 정당제도는 중앙과 지방정책에 여러 가지 형태로써 반영되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과 민족적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군소정당들은 오직 자당의 이익을 위하여 의회주의 원칙과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부의 시책을 불필요하게 추궁하고 국가예산의 심의를 지연시킴으로서 빈번한 내각붕괴의 원인을 조성했다.(주)

## <지상강좌>

(주)1950년으로부터 1958년에 이르는 약 8년동안에 내각은 70회나 교체되고 있다. 내각의 평균 수명은 약 1년 4개월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각이 조직될 경우에는 각 정당 간에 각료의 자리를 둘러싼 격심한 싸움이 벌어져 언제나 새로운 내각의 탄생은 지연됨을 면치 못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루비스(Mochter Lubis)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분열되어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당제도는 현재 이 민족의 최대의 약점의 하나이다. 실로 지도권의 결여야 말로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도권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될 때에도 지도자들은 서로 물고 뜯고만 있다. 따라서 혁명과업을 수행해야할 기간에도 그 목표와 이념의 통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정부는 약체화됨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정부의 허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건설과 치안대책 등의 중요정책의 실행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철저하게 끝나게 했던 것이다. 스카르노 대통령이 교도민주주의를 제창하게된 원인의 도 하나는 스카르노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혁명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즉 그는 1956년 국내의 정권이 몹시 어수선한 가운데 소비에트 러시아를 위시한 동구제국과 중공 등지를 직접 방문하여 각국의 정치사정을 견문(見聞)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신념을 굳게 가질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는 미·소냉전 하에 끼워있는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엄정중립주의를 더욱 고수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에는 그 실정에 알맞은 특유한 민주주의체제를 강구해 나아가야 하는 점이었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그의 출생지인 자바에서 고래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적인 사상 즉 상호부조(Gotong Royong)에 입각한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현대에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스카르노 대통령이 교도민주주의를 제창하게된 원인은 그의 혁명관 속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찾아 볼 수가 있다. 1960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 15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스카르노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다.

“우리는 새로 건설하기 위하여 과거를 깨끗이 청소, 근절, 파괴해야 한다. 혁명은 파괴인 동시에 건설이다. 또한 건설인 동시에 파괴이다. 혁명은 어제를 거부다호 내일을 건설해 나아간다. …… 일단 혁명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이상이 달성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 우리는 지금 혁명속에 있다. 규모가 작은 혁명이 아니라 미국혁명 보다도,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더구나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보다도 더 큰 혁명속에 처해 있다. 우리의 혁명은 동시에 민족혁명이며, 정치혁명이며, 사회혁명이며, 문화혁명이며, 인간혁명이다. 우리의 혁명은 5면혁명, 아니 다면혁명이다. 많은 종류의 혁명들을 1세대 안에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야 할 종합혁명이다.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다면종합혁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가들의 일면 혁명(주)에 비해 장기혁명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

(주) 1774년의 미국혁명은 독립혁명에 불과했으며,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정치혁명 그리고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사회혁명에 불과했으니 1면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전면적인 혁명을 들고 나온 대의명분은 과연 어디 있을까? 1960년 9월 30일 제15차 UN총회에서 스카르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욕망혁명 속에 살고 있다. 지난날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자유를 요구한다. 지난날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날 굶주리던 사람들은 오늘날 쌀을 풍족하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날 문맹이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교육을 받기를 요구한다.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혁명의 동력실, 혁명의 화약고 속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욕망혁명에 토대를 둔 인도네시아의 종합·장기·급진·과격 혁명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특유한 세계관에 입각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에는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있는데 그 독립국가들의 대부분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히틀러는 민족사회주의세계관위에 나치스 독일을 세웠으며, 레닌은 맑스주의적 유물사관 위에 소비에트 러시아를 세웠으며, 이븐 사우드네는 이슬람(Islam)세계관 위에 아랍국가를 세웠으며, 손문은 삼민주의 세계관 위에 독립중화민주국을 세웠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혁명의 목표이며 지도이념인 고유한 세계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판차실라(Pantja Sila) 즉 오대원칙이다.’

그 첫째 원칙은 신에 대한 신앙(Belief in God)이다.

## 〈지상강좌〉

전체국민의 약8할이 회교도로 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유이린인 알라신(Allah)에 대한 신앙을 첫째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국가와 종교, 세속국가와 종교국가와의 조화균형 위에 새로운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둘째의 원칙은 민족주의(Nationalism)이다. 350년간의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로부터 자주독립하게 된 인도네시아 국민은 모처럼 얻은 독립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하여 민족주의를 내 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의 특색은 반서방,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침략주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셋째 원칙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이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오직 자민족의 이익에만 맹목이 되는 일이 없이 국제협조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올바른 국제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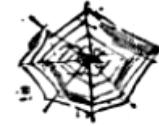
그 넷째는 민주주의(Democracy)이다. 스카르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서구의 독창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예로부터 고유의 민주주의가 존재해 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서구사회의 독점물·발명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생활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문명의 수 천년 동안에 우리는 고유한 민주주의를 간직해 왔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기본적 요소가 있으니 그 첫째는 만장일치요, 그 둘째는 대표제도요, 그 셋째는 토론제도이다. 대표자들 사이의 토론은 의견대립이 없도록 동의와 반대동의의 대결이 없도록 어느 편에도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해결의 공동광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내성있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토론에는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런데 만장일치는 다수결로 강요되는 결정 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표자들 사이의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만장일치에는 한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One for all, for one)라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려고 하려니와 이상과 같은 논리야 말로 비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물론 모든 토의에서 그때마다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다원적 사회로 변해가는 근대사회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공산주의(共産主義) 비판(批判) ⑧

김창순(金昌順)

〈평론가〉



그 다섯째 원칙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서구식 정치적 민주주의 만으로 사회정의가 실현 될 수 없다고 믿는 입장에서 스텐달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특유한 사회정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속히 빈곤이 없어져야 한다. 전 국민이 번영하고 충분히 먹고 입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서구 여러 나라에는 노국회가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본가의 자의에 맡겨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구식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민주주의(Political-economic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오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혁명의 추진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국민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스텐달은 강조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국민혁명을 방해하는 자는 인도네시아혁명의 적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와 같은 국민혁명의 강력한 주도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구식 권력분립상태가 극복되고 혁명지도의 일원화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스텐달은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독립 15주년 총회석상에서 스텐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지난 14년 동안(1945-1959) 혁명지도는 정치지도가 분리되어 있었다. 혁명지도는 서구식 정치지도로 말미암아 불구화가 되었다. 때때로 혁명지도의 이상은 정치지도의 이상과 충돌되었다. 혁명지도와 정치지도의 이원상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국가는 혼란에 빠졌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어느 편의 지도에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편에서는 혁명미완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완결이라고 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혁명적 실행행사로서 실지회복(서 이리양)을 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네덜란드와의 정중한 협상을 통해서 실지회복을 해야 한다는 모양으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과연 어느 편의 지도에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혁명 그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다. 따라서 혁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지도와 정부지도의 일원화를 단행해야 한다…….”

〈74면에 계속〉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혁명이래 서구 사회주의제파(社會主義諸派)는 모스크바 당국에 대하여 꾸준히 그 지도성을 거부하는 도전을 통하여 모스크바 노선의 수정을 요구하여 왔다. 서구 사회주의의 제파의 이와 같은 행동의 근원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금일에 있어서도 불변이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전통의 가치기준을 가지고 러시아의 불세비즘과 독재자 스탈린을 적대시하여 왔다. 후르시초프의 소위 평화공존과 평화적 경제론에 대해서도 서구 사회주의의제파는 그것이 외교정책의 명제로서는 어떨까 몰라도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문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범주안에서 후르시초프 노선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이태리 공산당은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의 내용에 대하여 주문을 붙이기를 “자유, 번영, 독립,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 인격의 충분한 존중, 각국 간의 평화협력 등에 대한 각국민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수립함에 있어 자본주의 제국의 지배계급과 평화경쟁을 제기, 전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주문은 1962년 이태리 공산당 제 10차 대회에서 표시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사회주의가 서구사회에 정착하는데 사회주의 이행과 사회주의건설의 정치형태, 사회 형성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구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시준(示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리 공산당의 주류 트리아치 당수는 레닌주의의 골격적인 명제인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까지 회의와 부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1956년 ‘사회주의의에로의 이태리의 길’이라는 논고를 통하여 표시된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국가기구란 것이 오늘에 있어서도 아직 유효한 것인가의 여부는 토론해 볼만한 문제이다”고 말함으로써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회의와 부정의 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리 공산당의 주류와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동맹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건설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지방분권과 노동자평의회와 장점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국가독점자본형태 하에서의 소련의 소유, 관리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서구사회주의제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간주(看做)되는 바이다. 이리하여 비록 후르시초프 시대에 티토 일당이 모스크바 당국과 화해관계에 있다고 할망정 양자 간의 차이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같아 보인다.

중공은 유고슬라비아형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그것은 모든 경제영역에 무정부상태를 초래케 하는 것이다'고 완강히 배격하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구사회주의제파는 모스크바 당국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일관한 반대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사회주의 제파와 모스크바 당국 간의 이와 같은 관계는 제2인터내셔널시대에 카우츠키와 레닌의 논쟁, 로자록셈부르크의 비판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서구사회민주주의 정치조류는 1951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강령 1959년의 서독사민당 바트 고데스벨그 강령, 1962년의 오슬로 선언 등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상적으로는 맑스주의와의 결별, 정치적으로는 반공, 군사적으로는 반공군사동맹의지지, 운동론적으로는 사회주의혁명의 주장,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되어 있다. 서구사회민주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현대사적 과제가 다기(多岐)에 궁(巨)하며, 따라서 이 운동조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부산물은 적지않은 것이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서구사회주의를 훼손하고 적대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소·중공 논쟁관(論爭觀)

소·중공 논쟁의 공연화(公然化)에 의하여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차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세계전략의 원칙과 구성의 차이 등이 점차 밝혀져 가고 있다.

20세기를 맞이하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는 사상의 세계로부터 지상의 정치세력, 지상의 국가, 지상의 세계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각한 고심, 논쟁, 현실적 과제의 수립 등에서 스스로를 시련의 불속에 몰아넣었다. 중공은 오늘의 소·중공논쟁 맑스주의 운동사상 세 번째의 대논쟁인 것으로 선언하였는바, 1차는 제2인터내셔널 시대의 카우츠키,

### 〈지상강좌〉

레닌, 베른슈타인 등의 논쟁으로서 이것은 사회주의가 사상 처음으로 현실적인 정체세력으로 되어진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2차는 스탈린, 트로츠키, 부하린 등의 논쟁으로서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가 러시아에 출현하고 그것이 방위건설시대에 있었던 일이며 3차는 소·중공 간 논쟁인 것으로서 이것은 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세계체제의 성립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중공당(中共黨)의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소·중공논쟁은 사회주의세계체제의 성립이라는 시대적 대응으로서 차라리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되어 진다. 따라서 방대다기(龐大多岐)에 궁(巨)하는 소·중공논쟁은 시대사적거관찰을 요하게 되는 것이며 현대라는 역사적 시대가 맑스주의 운동에 부과한 시련과 고통의 집대성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다.

지금까지 소·중공 논쟁에 나타나 있는 제문서·제연설을 보면 논쟁의 제1주제는 평화공존과 혁명의 문제이며, 제2차 주제는 사회주의세계체제와 국가주권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물론 이것은 소·중공논쟁의 모든 난제가 이 문면(文面)들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요컨대 소·중공논쟁의 심부에 잠재하여 있는 논쟁과제의 대요는 전시(前示)한 바의 제1, 2주제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사적 관찰에 의하면 현대라는 시대성격에 대응하는 맑스주의운동의 과제로 인정되는 바이다.

소·중공논쟁의 제1주제는 요컨대 현대에 있어서의 세계혁명의 고리는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제2주제는 플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여하히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있어 평화공존기조의 소련이론, 세계혁명 기조의 중공이론이 맞서게 된 것인데, 이데올로기 문제로서는 ① 현대의 규정(현대세계의 모순), ② 열(熱)핵무기시대에 있어서의 전쟁과 평화, ③ 평화공존과 혁명(자본주의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혁명, 민족독립혁명, 혁명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임무), ④ 국가와 혁명, ⑤ 민족독립혁명을 사회주의에로 성장전환하는 문제, ⑥ 전략과 전술, ⑦ 플로레타리아 독재문제, ⑧ 스탈린의 평가, ⑨ 플로레타리아 국제주의(당과 당과의 관계,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 ⑩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제1주제에 있어서의 소련이론은 “인간공멸과 문명전멸을 초래하는 열(熱)핵전쟁만은 피해야 하겠는데 지금은 사회주의세력의 세계역량에 의하여 그러한 대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세계체제의 성립과 고도의 열핵무기를 보유하는 사회주의공동체의 힘을 근간으로 하여 여기에 제국의 혁명세력(공산당), 평화

세력, 민족독립세력을 합류시키면 이것이 인류사회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어 세계사의 주도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화공존은 현대에 있어서는 제1의적인 외교정책일 뿐 아니라 세계혁명 전략의 기초이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선을 약화시키고 제국주의의 침략계층을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이와는 반대로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결집시키게 된다.

사회주의제국은 평화공존의 상황을 이용하면서 자본주의제국과의 경제경쟁에서 유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내의 노동계급을 혁명으로 고무하고, 신생민족독립국가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게 된다. 즉 평화공존은 세계혁명의 주체적 조건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전쟁이 없어도 사멸하여가는 체제이다. 각국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매장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실현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수출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자의 반혁명수출과는 결정적으로 싸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는 단지 선언과 성명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자국의 무기와 병원(兵員)을 보내어 같이 싸우게 될 것이다. 현대의 세계전략은 평화공존정책 하에서 세계의 혁명세력 - 사회주의세력, 자본주의 국가 내의 혁명세력(공산당), 평화세력, 민족독립세력이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여 세계적 규모에 있어 제국주의를 밀어내는데 있다. 계급투쟁은 평화공존, 평화적 경제경쟁, 평화적 이행의 형태에 있어서 추진될 것이다.”

이상의 소련이론에 대하여 중공의 이론은 명확히 대답한다. “제국주의는 레닌의 존재당사보다도 분명히 약체화되었다. 사회주의진영의 확대강화,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 자본주의국가내의 노동자와 인민의 투쟁의 발전에 의하여 종전처럼 제멋대로 작태(作態)할 수가 없게끔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아직도 세계인구의 3분의 2, 세계면적의 6할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논점이 시대유물로 되어 진 것이 아니다. 현대는 역시 제국주의와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시기이다.

현대세계의 기본모순은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모순, 자본주의국가 내부의 계급적 모순, 피압박민족과 제국주의의 모순, 제국주의국가 상호간의 모순, 독점자본상호간의 모순이며, 이러한 제모순의 초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의 모순인바 여기에 현대세계의 제모순이 집중되어 제국주의 연쇄(連鎖)의 최악의 환(環)으로 되어져서

## 〈지상강좌〉

세계혁명의 책원지(策源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제노동계급의 혁명사업의 성부(成否)는 현시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의 국내전쟁을 동반하는 혁명투쟁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평화공존의 명분에 있어서 이 투쟁을 압박하여서는 안 되며 원조를 은혜와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국가내의 노동계급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해방투쟁을 자기들의 가장 믿음직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단호히 지원해야 한다.

혁명은 각국인민의 사업이다. 평화적 경제경쟁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국가의 승리는 국제혁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일이지만, 각국인민의 혁명투쟁에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혁명투쟁은 제국주의를 전략적으로 경시하고 전술적으로 중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험주의에 빠지지 말고 패배(敗北)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열혈무기는 과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각국인민은 제국주의 앞에서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세계대전을 막고 핵무기의 금지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레닌이래, 평화공존의 원칙을 주장하여 왔지만 평화공존은 이질적 체제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혁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의의 국내전쟁을 평화공존의 각분(各分)에 의하여 부정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평화공존과 혁명에 나타나 있는 소·중논쟁의 원문을 대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소·중양국의 세계전략의 개요와 차이점이 제시되어 있다. 평화공존을 지상과제로라는 소련이론에 있어서는 계급모순의 혁명적 해결과 혁명완수의 운동이론이 귀납되어 있지 않으며, 거꾸로 평화적 경제경쟁에 있어서의 소련의 대기(待機)사상관점에 따라서는 국내계급투쟁에 대한 억압사상까지도 유발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공이론은 현대세계의모순의 초점에 향하여 혁명적 진격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전면적 전개 가능성을 시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상의 몇군데서 일어날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국내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아낼 평화적 보장책이 전무하다 말인가 전혀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의 세계전략원칙과 사상의 모험적이며 위험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밝혀지는 바이지만 소련의 그것이 반드시 평화적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이유도 여기에 밝혀진 바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양대공산당의 근본목적이 어디까지나 세계공산화에 있다는 제국주의적

기도를 직시하고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공과는 민주주의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바, 이것은 한국근대화의 현대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공산주의의 평화전략(平和戰略)

공산주의의 평화전략은 근본적으로 다음의 사상을 기저로 한다. 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느냐의 물과 불의 빙탄불상용성(氷炭不相容性) 모순관계에 있다. 그러되 내(공산주의)가 그(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때려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만치 나의 힘이 결정적으로 강력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느냐의 물과 물의 적대관계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때는 당신과 우리는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합시다 - 고 부드러운 약속을 내밀 줄 알아야만 공산주의자의 자격이 있다.

그러하여 자본주의 바보들이 ‘우리의 본심’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내미는 약속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다음의 목적에 이용해야 한다. 즉 내가 그를 결정적으로 때려서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만치 나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축력기의 시리(時利)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협상이다 평화적 협상의 근본적 도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산주의 평화전략은 상대방보다 자기네의 힘이 미흡하거나 도는 힘의 대결관계가 포화상태(飽和狀態)에 있을 때 한해서만 전개되는 것이다. 만일 자기네의 힘이 상대방의 그것보다 우세하거나 힘이 균현이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가까워 졌을 경우에는 실력적인 공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평화전략은 그들의 혁명사업에 있어서 최저형태의 공세이며, 전쟁수단은 최고형태의 공세인 것이다. 최저와 최고의 양자관계는 유물변증법이론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바 최고 형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작용이 평화전략의 임무인 것이다. 다시 말하여 물에다 열을 가하여 섭씨 100도에 달하면 물은 증기로 바뀌듯이 평화전략은 전쟁수단에 호소하기까지의 이행과정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은 경제력과 열핵무기의 열세 하에서의 평화전략인 것이다. 미국의 우세와 위력이 없었던들 그들의 평화전쟁 시기는 있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공산주의 평화관은 이 세계에 자본주의세력이 어느 구석엔가 살아남아 있는 동안은 일류사회의 근본적인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타파의 정력적인 투쟁은 계속 부단히 전개하고 있는바 전쟁수단을 택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되지만 하면 국내전쟁이건 세계전쟁이건 불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전쟁은 정의인 것으로 되어 있다. 자기네가 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상대방의 전쟁은 비정의 전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평화와 전쟁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다음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이행과정에 살고 있는 것이다.

## 오기나와를 다녀와서 <기행문> (하(下))

강 신 봉(姜信鳳)



소녀는 제법 귀엽게도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고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피아노를 들려주겠다는 것이다. 고개를 가우똥 거리며 조그만 손이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엘리제를 위하여’ 일본곡 몇 곡 그리고 아리랑을 쳐주었다.

그 때는 여름방학이었으므로 우리는 이삼일이 멀다하고 그 소녀와 만나 볼 수 있었고 때로는 버스로 고적을 찾아보기도 했고 밤이면 소녀의 집에 가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기도 했으며, 학교 도서관에선 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했으며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럴적마다 이 소녀는 언제나 우리의 통역을 맡아 주었으며 모든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준코(淳子)를 나의 동생으로 삼겠다고 했더니 여러 가족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 후 그녀의 특출한 재주와 미행(美行)을 보면서도 차차 순수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 (4(四)) 영원한 소녀와의 이별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녀와의 꿈도 이제는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 오기나와를 떠나기 전 날이었다. 저녁에 조용히 마지막 이야기나 할까 하고 나는 김하사와 함께 준코네 집을 찾아 갔다. 우리는 준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용히 이야기 할 곳을 물색하다가 다방으로 가기로 했다.(이곳에서는 학생도 다방을 갈 수 있음) 조용히 발을 맞추어 서서히 건더니 무거운 듯한 입을 열면서 언제나 생긋 웃는 표정 그대로 나에게 살며시 말을 건넸다.

자기를 믿고 또 사랑하느냐는 말이다.  
나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예스란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OK! 하면서 손에든 책속에서 조그마한 편지 하나를 꺼내어 나의 아랫주머니에 살며시 넣어 주는 것이었다. 나는 다방에 들어가 변소에서 그 편지를 읽어 보았다.  
이 편지를 읽고 나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뒤덮였다. 서투른 작문이지만 고등학교 일학년생으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글이며 대담한 선언인가? 십육 세의 소녀가 선언하는 ‘나는 당신의 것’ 그리고

‘당신은 나의 것’이란 애절한 호소! 나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준코를 사랑하고는 있지만 준코가 설마 그렇게까지 나에게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나는 변소를 나와서 음악을 더 듣는 척 하면서 얼마쯤 생각해 보았다. 김하사는 자꾸만 부대 클럽으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다. 얼마 후에 김하사는 혼자서 클럽으로 가고 나와 준코만이 남게 되었다. 나는 준코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다시금 처음 만나서 음악을 듣던 학교 음악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음악실에는 다른 한 소녀가 홀로 앉아 열심히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준코가 안내하는 대로 한 쪽 방에 들어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얼마쯤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나는 내일 떠나야만 한다고 입을 열었다. 소녀는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격해 오르는 목메임을 억누르려는 것 같았다. 얼마 쯤 아무 말도 없이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욱 가슴은 뛰고 목이 막혀 오르는지 자꾸만 헛기침을 하며 목청을 가다듬으려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별안간 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살며시 준코의 등을 어루만져 주며 무겁게 이별에 앞서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다. 다만 목 메인 가슴의 안타까움을 진정시키려는 듯하였다. 잠시 후 소녀는 조용히 입을 들릴까 말까 하게 오물거리더니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 있게 그러나 목 메인 소리로 다짐하는 것이었다.

“사랑, 공부(工夫), 인생 등 매사에 강한 자가 되소서”

목메인 눈물 속에서 나에게 전해주는 이 말, 정녕 이것은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얼굴을 파묻고는 나를 꼭 붙든 채 몸부림처럼 애걸하는 것이었다. 나도 붙들고 울고만 싶었다.

그러는 사이 자꾸만 시간은 흘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녀의 정열은 더욱 더 나의 가슴속에서 심하게 전파되어 왔다. 나는 더 이상 흥분되어 가는 마음의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본 정신을 잃은 두 가슴을 어떻게 위로 할 길이 없었다. 서로가 목메인 소리로 주고받는 대화는 신의 소리같이 엄숙해 가기만 했다. 밖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부수는 듯한 어느 여학생의 피아노 소리만이 빈 강당을 마구 진동시키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흥분을 다소라도 진정시키기 위하여 소녀를 내 품에서 떼어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자국을 씻겨 주었다.

잠시 후 나는 소녀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아무 말도 없이 손을 꼭 쥔 채 길을 걷다가 어느 잔디밭에 나란히 앉았다. 또 아까와 같이 소녀는 나의 무릎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목 메인 대화는 또 계속되었다. 언제고 그와 같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다.

11시가 되어도 떨어지려 하지 않는 소녀를 억지로 택시에 실려 집에 바래다 주고 나는 부대로 돌아왔다. 너무나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튿날 우리는 귀국준비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부대에서 내 주는

택시를 타고 ‘요자다께’에어 스테이션을 떠나게 되었다. 3개월이나 내가 거주하던 방을 비롯하여 그곳 식당에서 일하던 웨이트리스 여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던 미군들, 무엇이건 모두가 마지막 아닌 것이 없었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사요나라’는 정말로 섭섭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오는 길에 준코네 집을 들렀으나 의외에도 준코는 눈에 띄이지 않고 다른 식구들만이 나의 환송을 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준코는 방송극 하러 방송국에 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나는 부리나케 이층 홀로 올라갔다. 선생과 학생들이 녹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본 준코는 별떡 일어나더니 달려 나오는 것이었다. 선생과 학생은 다같이(잘 알므로) 일어나더니 손을 흔들며 ‘사요나라’하고 외쳐 주었다. 언제고 만나면 생글 웃는 준코는 내가 군복 입을 것을 처음 보고는(언제나 사복으로 외출하였음) 험스럽다고 놀리면서 충계를 내려와 밖으로 따라 나왔다. 나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마지막 악수를 청했다. 나는 힘껏 준코의 손을 흔들었다. 나의 두 손으로 꼭 쥔 준코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한마디라도 이야기 할 것 같으면서도 목이 메어 말 못하는 소녀의 맑은 눈에서 벌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등 빛에 아롱져 흐르는 두 뺨 위의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자니 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아무 말 못하고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만 있는 소녀의 입술은 살며시 떨리고만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는 여유 없는 시간이니 그렇게 더 있을 수도 없어 그만 강(強)한 사람이 되려는 작별을 고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따라오다 뒤에 서 버린 준코의 ‘Strong’하는 외마디 소리가 들린다.

무정한 이별!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는 손짓! 그러나 그나마도 보이지 않게 차는 멀어져만 갔고 어둠은 짙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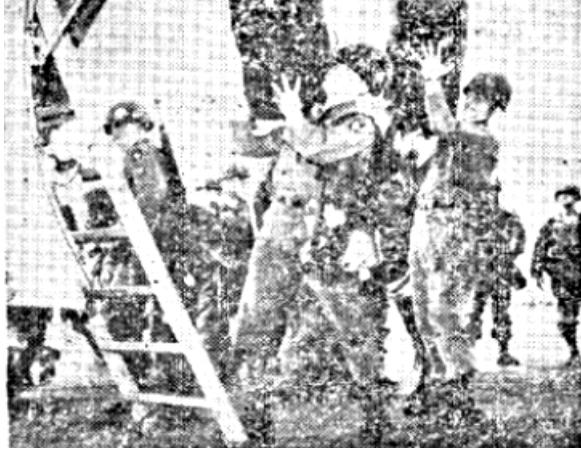
언제나 다시 만나게 될지 하염없는 기약을 하고 떠나야 하는 ‘사요나라’는 정말로 슬펐다.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정열의 소녀! 나에게 모두를 바치려는 순진한 소녀와 이별하고 텅 빈 가슴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움! 아무래도 연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요나라’는 너무도 슬펐다. 카데나 비행장으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나는 말 할 기력조차 없었다. 지금도 그 소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대고 한없는 동경에 싸여진다. 더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외쳐 주던 ‘Strong’의 음성은 지금도 귀에서 울리는 듯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나는 소녀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한없는 동경과 행복에서 나는 몇 번 되풀이 해 읽었는지 모른다. ‘준코여 네 말대로 강(強)하라! 강(強)한 여성이 되라!’

-끝-

#### ◇중공(中共)의 국경선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는 중공이다. 또 가장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도 중공(中共)이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경선 문제를 가진 나라도 중공이다. 중공의 국경선은 거의 모두가 분쟁문제를 품고 있다.



〈빅·리프트 작전에 출동차 수송기에 짐을 싣고 있는 미군병사들〉

## 미대공수연습(美大空輸演習)

### 빅·리프트 작전(作戰)의 분석

김 득 준

☆ 미국은 작년 10월말 기갑 1개 사단을 본국기지에서 서독기지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송할 수 있는 사상 최대의 공수작전에 성공하였다. 보통 1개 사단을 미국에서 구라파로 수송하려면 6주라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었는데 이 공수능력은 실로 놀랄만한 것으로서 이것이 미국 전략구상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제 대공수연습(Operation Big Lift)의 전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습(演習)의 목적(目的)

대공수(大空輸) 연습의 목적은 긴급한 사태에 처했을 때 미국 본토에 있는 사단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분쟁지점으로 수송할 수 있는가—긴급사태에 처했을 때의 공수능력을 실제로 시험하는 데 있었다.

#### 2. 연습(演習) 경위(經緯)

대공수 연습은 작년 10월 21일 23시 57분(한국시간으로 10월 22일 14시 57분) 1번기의 출발로 개시되었다. 즉 제 1전기 C-135 공군 제트수송기에는 제 2기갑사단의 장병 75명이 탑승하고 Fort Hood 남방 약 20킬로 지점에 있는 Bergstrom 공군기지에서부터 10시간반의 대서양 횡단비행을 출발하였던 것이다. 금번 연습에서 공수된 것은 Texas의 Fort Hood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 제2기갑사단인데 동주(同州)에 있는 4개의 공군기지 즉 Sheppard 기지, Gray 기지, Connally 기지, Bergstrom 기지로부터 남북 두 개의 루트를 통하여 서독에 있는 Ramstein 기지, Rhin-Main 기지, Sembach 로 공수되었다. 수송된 병력은 15,278명 그중 약 9,500명이 연 141기(機)의 수송기에 의하여 북회로 8,960킬로를 NONSTOP 10시간반, 도중급유(途中給油)의 경우에는 200시간 내지 30시간 걸려서 수송되었으며 약 5800명은 남회로 9,600킬로를 연 95기(機)로 도중급유를 하면서 20시간 내지 32시간으로 수송되었다. 이외에 제2기갑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는 공군 공격부대의 전투 폭격기, 정찰기 119가 북대서양 연안에 있는 기지 Westover, Dow, Loring 등 기지로부터 프랑스 내에 있는 공군기지에 공중급유 또는 지상급유를 받으면서 NONSTOP의 경우에는 6내지 7시간, 도중착륙의 경우에는 20시간에 도착하였다.

공수된 제2기갑사단의 병사는 M-14 자동소총, 총검, 개스마스크, 기타 일용품 약간을 휴대하였을 뿐 미리 준비되어 있던 M-48형(型) 50톤, 탱크 319대에 분승(分乘)하여 10월 31일부터의 NATO연습에 참가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1기(機)가 21일 23시 57분에 출발해서 최후의 수송기가 서독내의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63시간 5분으로 예정하였던 72시간을 9시간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연습에 사용된 탱크나 또는 그 외의 무기는 1961년의 백림위기때 미국에서 서독에 수송(輸送)된 그대로 서독에 보관되었던 장비이다. 그리고 금번 공수작전의 주역은 조-W·케리 대령이 지휘하고 있는 공수부대—MATS

(Military Air Transport Service)로서 금번 작전에는 동부대에 소속되고 있는 대형 수송기대의 약 4할(割)에 해당하는 206기가 참가하였다. 이 부대 수송기의 연(延) 비행횟수는 236회, 연비행시간은 13,000시간, 연료 소비량은 650만 개롱이다.

그동안 안개가 끼어 착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지의 이유로 착륙지점을 변경한 일이 약간 있는 정도이고 사고다운 사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기술적면에서 이 연습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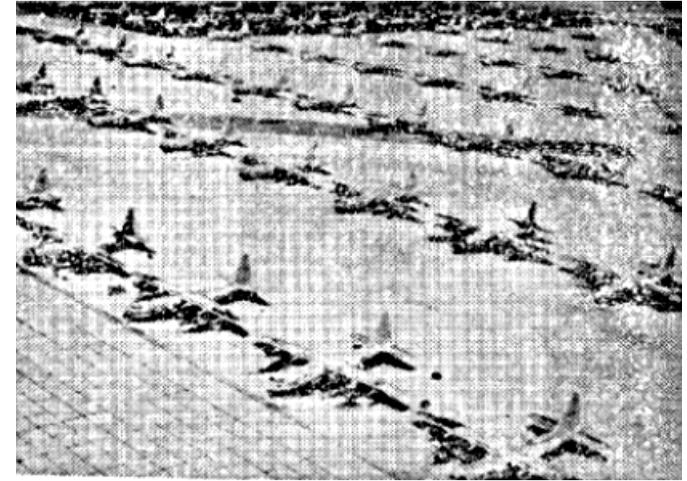
### 3. 연습의 군사적 의미

완전한 성공을 거둔 사상 최대 규격(規格)의 대공수연습의 군사적 의미는 대량의 군대를 극히 짧은 시간에 장거리로 수송하는 능력이 실증되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이미 병력 공수 작전을 전개한 바 있거니와 이처럼 대규모적인 공수는 금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적인 작전이 실시되고 군당국은 또한 64년도에는 이 작전을 더욱 발전시켜 아세아 중동방면에로의 공수를 실시할 뿐 아니라 구라파에는 한꺼번에 2개 사단의 공수연습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작전이 근대전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작전임에 틀림없다.

### 4. 공수부대(空輸部隊)의 역할

이상과 같은 우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수부대(MATS)는 공수작전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이제 공수부대의 지난날 활동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수부대는 공군과 해군의 수송기 부대를 통합하여 1948년 6월 1일에 조직되었다. 공수부대는 탄생 후 1개월 후 백림봉쇄에 대항하기 위한 공수를 명받았는데 이 공수는 15개월간 계속되었고 그동안에 250만 톤의 물자가 수송되었다. 그 후에도 공수부대는 여러 가지 공수작전을 행하여 왔는데 그중 주요한 작전을 보면 1950년부터 53년에 걸친 한국동란 때 본국과 전선을 연결하는 태평양 공수작전이 있고 1956년에는 14,000명에 달하는 헝가리 피난민을 서독으로부터 미국으로 공수, 1956년에 레바논 출병시에는 5,500톤의 화물과 5,400명의 군인을 구라파 및 중동으로부터 레바논에 수송하였고 1960년 콩고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엔군부대의 수송을 인수하였는바 그 높은 기동성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한 63년 10월 쿠바위기 때 관타나모 기지의 증강에도 활약하였고 계속 뒤를 이어 일어난 중(中)·



〈빅·리프트 작전에 출동차 대기중인 미공군 수송기의 넘름한 모습〉

인(印) 국경 분쟁 발발시에는 인도에 자재를 공수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공수부대는 이와 같이 실제의 공수작업을 실행하는 한편 각종의 연습도 실시하여 왔다. 62년 10월 15일부터 19일에 걸쳐서는 육군부대의 교체를 공수부대가 담당하고 1,500명 이상의 병력과 가족, 무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라파로 수송하였으며 구라파로부터 2,000명의 인원을 미국에 수송하였다. 그리고 작년 초에는 1,133명의 병력을 미국에 수송하였다. 이와 같이 1,000명 정도의 인원수송은 지금까지도 종종 행하여 왔는데 그 규모를 다시금 확대하여 금번과 같은 사단 단위로 공수작전을 실행하게 되었다.

공수부대의 공수능력이 이와 같이 대폭으로 증대하게 이른 것은 대형 수송기의 등장과 동시에 이른 것이다. 금번 연습 공수작전에서 주로 활약한 것은 민간 항공에서 활약하고 있는 BOEING 707 형기를 군수송기용으로 개조한 C-135 STRATOLIFTER로서 63년 9월 현재 공수부대는 동형기를 44대 보유하고 있다. 금번 연습 공수작전에 참가한 것은 C-135형 STRATOLIFTER, C-133형 CAGOMASTERS, C-130 HERCULES, C-124형 GLOBEMASTER, C-118형 LIFTMASTER 이다.

### 5. 연습과 미국의 전략(戰略)

이와 같은 대형 수송기의 출현으로 미군은 매우 큰 기동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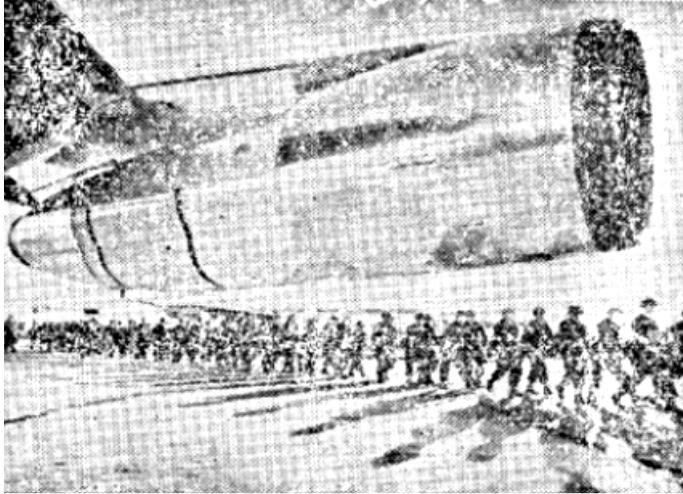
보유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다만 병력의 장거리 수송을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형기를 공중 급유용 TANKER기로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연료소비량이 많은 초음속 전투 폭격기 등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실적으로서는 최근 B-58형 전투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도쿄-런던 간을 무착륙으로 8시간 만에 비행하고 있다. 기동성의 증가에 수반하여 미군의 해외주류(海外駐留)의 필요성도 감소되고 있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량의 군대를 언제든지 수송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해외의 어느 한 곳에 집결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 금번의 제2기갑사단 경우에는 미리 서독에 보관하여둔 무기를 사용하였는데 이와 똑같은 체제를 구비하여 놓는다면 병력의 해외 주둔은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해외주둔은 경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당시는 병장을 국내기지에 그대로 주둔시켜 두고 무슨 일이 일어 날 것 같은 경우 짧은 시간에 증강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만성적 적자에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해외 주둔군비의 절약은 지상명령이었다. 전략적으로 보았을 경우 해외 주둔군을 철수하고 그 대신 강대한 기동력을 구비한 전략 예비군을 본국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병(輸兵)한다는 구상(構想)은 영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중앙예비군을 본국에 두고 COMET기로 수송하는 체제를 만들고 동시에 헬리콥터-항공모함에 언제든지 상륙할 수 있는 기습부대를 탑승시켜 경계에 임하고 있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이와 같은 전략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 전략은 군사비의 절약이라는 지상명령으로부터 생겨진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략방식을 계승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간단히 장래의 미국 전략의 배비(配備)를 개관한다면 미국은 전면적 핵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산권으로부터 여하한 기습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일부는 견디어서 적에게 괴멸(殲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견고한 지하진지에 음폐된 몇 백 발이라고 하는 고품 연료 미사일인 '미뉴트맨'과 해중 깊이 있는 폴라리스 잠수함이 언제 어느 때라도 짧은 시간의 예고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전혀 띄이지 않는다. 미국이 방위의 약속을 하고 있는 자유세계의 각지에는 미군의 자태는 전혀 눈에 띄이지 않지만 미국 본토의 육군기지에서 단기의 예고로 출동할 수 있는 병력과 수송기대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의 강대한 전력은 모든 면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강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 6. 연습작전과 서독의 반향(反響)

이상과 같은 전략적 배경에서 행해진 BIG LIFT 작전은 구라파 특히 서독에 큰 반향을 야기(惹起)시켰다. 이 연습계획이 전해지자 서독신문은 이것을 대서특필(大書特筆)하고 '미국은 현재 서독에 파병하고 있는 6개 사단의 병력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고 언명(言明)하기 시작하였다. 서독은 지금 동독과의 경계선에서 항시 공산권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언제 공산권의 대군(大軍)이 국경을 돌파하여 살도(殺到)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 그 위성국의 대량의 지상군 병력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지상군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의미에서 미국이 지금 서독에 주둔시키고 있는 6개 사단의 병력은 큰 신뢰(信賴)가 되고 있다. 최근 서독은 병력을 증강하여 12개 사단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미군 6개 사단으로 신속한 병력 증강 능력이 실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수된 미군이 위기에 처하여 복귀할 것인가는 미지이다. 아무리 미 정부 당국자가 서독을 방치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며 이 연습 작전을 구실로 삼아 병력을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서독에 퍼지고 있으며 특히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구라파는 구라파가 수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한 드골 장군의 언명이 재삼 상기된 기운이 들었다. BIG LIFT작전이 병력 철수를 하나의



〈빅 리프트 작전 중 미육군보병과 전차가 도로를 경비하고 있다.〉



〈미 공군 제트 수송기 C-135에 탑승하는 미군들〉

이유로 삼아 실시하였다고 한 서독의 걱정도 무리는 아니었으니 그것은 이 연습의 전후에 구라파에 있는 미군의 삭감을 시사(示唆)하는 움직임이 얼마간 나타났다.

(1) 10월 19일 미국 방차관 기르파드리크 씨는 시카고의 UPI 연차대회에서 연설하기를 “미국의 재외 병력의 구성과 전개는 일련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과거 몇 년간 미국은 자국의 기본적 이익을 수호하고 우방에 대한 약속을 다하기 위하여 현역병 대부분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100만 명 이상을 해외에 주둔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십년간 계속해 온 병력배치 형태를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는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수송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 한 후 이러한 대수송력의 보기로서 연습 작전을 실시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전을 통하여 병력배치를 대체한다는 전제라고 생각하였음은 무리가 아니다.

(2) 한편 BIG LIFT 작전을 시찰하기 위하여 서독을 방문한 자카트 공군장관은 10월 2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연습을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송할 능력을 시험한 것이 미국이 해외로부터 병력을 철수할 의도가 있음을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병력배치를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장기적 목표는 병력을 해외에서 주둔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절감(節減)하려는 의도이다.”라고 하였다.

(3) 그리고 10월 23일부터 뉴욕 타임지는 미국 정부가 해외병력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즉 국방성 고관은 서독의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후 18개월간 구라파로부터 현재의 주둔 병력을 삭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주고 있다. 그러나 1년 내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전술공군을 철수할 것이다. 현재 다음 회계연도인 1964-65년 국방예산 원안이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안에는 구라파에 있는 6개 사단 철수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65년 이후에 있어서는 1개 사단 또는 그 이상을 철수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국방성 당국자는 그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모두 서독 각지에 전해졌고 서독 사람들 간에는 역시 미국은 병력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는 인상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 국방장관 러스크 씨는 이러한 서독의 염려를 억제하기 위하여 서독을 방문하였고 서독 정부 당국자에 대하여 미국의 구라파 방위에 대한 결의는 변함없다는 것과 당면 지상군 철수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연설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독일에 6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단을 필요가 있는 한 이곳에 주둔시킨다. —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계속 주둔시킴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독에 있는 우리 군대는 세계 최대의 보급망에 의하여 가장 새로운 강력한 장비로 정비되어 있고 최고의 입전 체제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들 사단은 거의 상상외의 핵전력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중앙부전선만이 미군이 수호하고 있는 자유를 위한 경계선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는 27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100만 가까이가 미국 대륙 이외의 육상과 해상에 배치되어 있다. 40이상의 우방국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우리의 병력 기동성에 대하여 당연한 일이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의 공수연습에 대하여 한마디 하면……이 1기갑사단의 공수는 독일로부터 미군을 삭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현재는 일곱 번째의 사단이 있다. 그 외에 또 1개 사단을 장비할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불안은 아직도 일소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 구상 중에 있는 다각적 핵전력 계획과 관련하여 장차 서독 내에서는 미묘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 7. 연습작전과 그 기동력

이와 같이 현재로서 이 연습에 최대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서독인데 미국의 대공수 능력은 미국과 기타 우방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번 작전에서 서독에 수송된 제2기갑사단은 즉시 NATO연습에 참가하였는데 BIG LIFT연습 그 자체는 미국 단독으로 실시된 작전으로서 중계(中繼)기지만 확보한다면 미국의 단독 행동에 의하여 세계 중 어느 곳이나를 막론하고 사단 단위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놀랄만한 기동력은 미국의 지상 병력의 효과적 활용에도 몇 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상병력면에서 미국의 우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NATO, CENTO, SEATO와 같은 집단방위 기구에 의한 공산권 포위의 구상도 변화될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다. 군사력은 정치, 외교의 배경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면 핵무력, 통상무력, 게릴라전력 등에 의하여 각각 정치적 효용(效用)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핵무력보다 열등하였던 미국의 육상 통상 병력이 금번 작전에 의해 표시된 높은 기동력이 가해짐에 따라 질적인 향상을 보았고 그 정치적 효과도 변해질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에는 지금 전투부대로서의 지상 미군은 없고 보급, 관리요원이 약 1만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공군 2만5천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바 그 중 일부는 전술공군의 전투부대이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제국에 있는 전술공군을 철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철수도 그와 동시에 실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지의 추측으로 그와 같은 예측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술공군을 본국에서 파견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이다. 그리고 장차 미국의 전략배치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공수력에 위주하느니 만큼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가 중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당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 8. 연습작전과 한국의 영향(影響)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시한 미군의 공수작전과 그 전략구상의 변화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12월 5일 미국 관변(官邊) 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 방위력을 구라파에 있어서의 미국 방위력만큼 신속하게 증강시키기 위하여 64년도 봄(3월이나 4월)에 BIG LIFT작전과 같은 중요한 군사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현재 기갑사단1, 보병사단1, 비행사단1, 계 3개 사단 ※전술 핵무기 장비)은 현대식 장비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한국군 역시 잘 훈련되고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려는 미국방총성의 이 계획은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한국의 잠재적 방위력을 크게 약화시키기가 없이 크게 잡아 완전한 1개 사단의 병력이 본국으로 철수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할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이동시켰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방위에 지장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극동방면의 대공수 연습은 64년 3월이나 4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미본국의 중부나 서부연안 방면으로부터 자유중국에 향하여 실시될 모양이라고 하며 제2후보지는 한국이라고 한다. 한편 중동 방면의 공수연습은 64년 여름이나 가을에 토이거나 회랍을 목표지수로 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하여 미 국방성 입안자들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적어도 개편은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1개 사단을 철수시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브닝 스타'지가 지난 12월 5일에 철수를 부인하는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개편이라고 하면 주한미군을 '공수 공격부대'의 성격으로 대폭 개편함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수송용 트럭과 중포(重砲)를 헬리콥터 및 공수포로 대체하여 분규지점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언급하여 김군방부장관은 지난 12월 6일 BIG LIFT작전은 아직 미비하고 비현실적이므로 지금 당장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려함은 현명한 방책이 아니며 극동 방위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언명했다. 또 김장관은 이제 만일 미군일부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북핵과외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으로 오산하고 6.25때와 같은 무모한 짓을 저지를 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철수 문제를 가지고 한미당국이 정식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어떤 공산 휴계에도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날로 새로운 장비로 현대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으나 주한미군 공중공격부대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통고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조지 R 크릴 대령도 유엔군 당국으로선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전연 이는 바 없다고 말하였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실시된 BIG LIFT작전은 사상 유례없던 대규모의 공수작전으로서 그 성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자유우방에 대한 방위력을 더욱 과시(誇示)하였다.

이 연습은 장차 미국의 전략을 변천(變遷)시키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이후 세계에 배비(配備)되고 있는 미군의 배치양태도 시기적 차이는 있었으나 많은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그렇다고 미국이 자유우방에 대한 방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또 등한시 한다든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마지않거나와 침략자를 도처에서 여지없이 물리치어 자유우방을 수호함에 보다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새 생활(生活) 새 가계론(家計論)**

제3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1964년의 새해가 됐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무질서했고 비합리적이던 생활을 깨끗이 버리고 새롭고 활기있는 새 생활과 새 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새로운 식생활, 새로운 의복생활, 새로운 주택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닐까?

- ◇ 새로운 식(食)생활
- ◇ 새로운 의복(衣服)생활
- ◇ 새로운 주택(住宅)생활

새 생활



**새로운 식생활**

윤 주 영(尹注榮)

새 생활

**금강산(金剛山)도 식후경(食後景)**

모든 생물은 자기의 개체(個體)를 유지하고 변화 혹은 쇠퇴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러한 변화나 쇠퇴방지의 경향이 없다면 개체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쇠퇴를 방지하고 평형(平衡)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생물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식물(食物), 수분, 산소 등을 섭취하려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체를 파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구(欲求)라는 것인데 욕구의 외형적인 면, 즉 동적(動的)인 표현이 추동(趨動: Drive)이다.

그러면 생물의 여러 가지 생리적 추동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썰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추동(飢趨動)과 성추동(性趨動)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한 두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모스(Moss)교수는 기(飢)와 성(性)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강한가를 조사하고자 숫쥐(雌鼠) 5마리를 72시간 동안 굶긴 다음, 가운데 칸에 넣고 한쪽에는 먹을 것, 다른 한 쪽에는 발정(發情)한 암쥐(雌鼠)를 넣어 굶은 쥐로 하여금 먹을 것과 암쥐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5마리 중 4마리는 먹을 것을 택하고 1마리만이 암쥐를 택하였다.

또 차이(Tsai)교수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숫쥐 19마리를 24시간동안 굶겨서 실험했는데 선택회수(選擇回數)의 77%가 음식, 그리고 23%가 암쥐를 택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 두 가지 실험은 기추동이 성추동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

아무튼 먹는다는 것은 생물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말에도 금강산(金剛山)도 식후경(食後景)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쥐가 아닌 우리 인간이 단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람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한평생 활동하는 것이고 이런 활동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배불러 죽겠대서야……

얼마 전에 판문점 구경을 갔다가 미군부대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다. 그

릇을

물로 닭은 듯이 깨끗이 비우고 커피 한 컵마저 다 들이켰건만 도무지 배가 차지 않았다. 우리네 도시락 한 그릇을 먹고 났을 때의 포만감(飽滿感)이 영 아쉬웠다. 그런데 그 적은 양식의 진가(眞價)를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5시간이 지난 뒤였다. 보통때 같으면 한창 시장할 텐데 그때까지 든든했다. 이상적인 식생활이란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우리는 흔히 배불러 죽겠다는 말을 하고 듣는다. 또 그런 상태 즉 포만감의 절정에 이르러야 만족한 식사를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큰 잘못이다. 밥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소화가 과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졸음이 오고 사고능력(思考能力)이 저하되는 현상이 온다.

배를 두드리고 먹는다는 관념은 완전히 씻어 버려야 한다. 칼로리를 따져서 적은 양(量)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살림에 무슨 수로 칼로리를 계산하고 영양가를 따져서 식생활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커다란 인식부족이다. 가난한 살림, 쪼들리는 가계(加計)니까 한층 더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다. 영양가가 훌륭한 식품(食品)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녀석지 못한 우리 살림으로 보다 합리적인 식생활을 꾸미기 위해 다같이 머리를 짜보자.

### 개미 먹는 뉴욕과 메뚜기 먹는 한국(韓國)

얼마 전 몬도가네라는 영화에서 어여쁜 미국 아가씨들이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 둘러앉아 개미튀김과 나비알 볶음을 압전히 드시는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짝 끼쳤던 일이 있다. 식도락도 그만하면 가위(可謂) 뉴 후런티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개미튀김을 포오크에 얹어 핑크빛 루즈의 입술 속으로 옮겨가는 그 아가씨들의 용기(?)를 배워야겠다.

훌륭한 구황식물(救荒植物)을 단지 벌레라는 생각 때문에 꺼려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것이 못된다. 우리 주변에서 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메뚜기를 예로 들자.

메뚜기는 64%의 단백질을 함유한 우수한 구황식품이다. 메뚜기를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된장죽이나 찌개에 쳐보라. 그 맛이 멀치보다 몇 배 훌륭함에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은 지지미, 빵, 과자 중에도 널리 쓰여질 수 있다.

번데기도 마찬가지다. 그 징그러운 꼴과는 달리 약 55%의 우수한 단백질과 24%의 지방(脂肪)들을 함유한 짭짤한 식품이다.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를 볶아서 곱게 빻으면 깨소금처럼 쉽게 쓸 수도 있다. 이들은 우수한 지방분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깨소금 이상의 맛을 내기도 한다. 야생식물, 나무열매, 해초 등등 이밖에도 보급되지 않은 구황식물 가운데 영양가 높은 것이 수두룩하다. 그것을 찾고 먹자는 것이다.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마에 주름

살을 굶지 않아도 된다. 식도락으로 개미 먹는

뉴욕보다 식생활 개선을 위해 메뚜기 먹는 한국이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다음은 입이 짧은 우리네 식성(食性)을 뜯어 고치자. 꼭 쌀밥이 아니면 잡곡 이라야 보리나 밀에 고작해서는 지금 우리들 처지론 말이 안 된다. 대용주식(代用主食)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밀가루를 비롯해서 옥수수, 수수, 콩, 조, 고구마, 감자 등을 이용한 분식(粉食)이나 기타 대용식은 얼마든지 입에 맞게 요리될 수 있으며 또 훌륭한 영양가를 지니고 있다. 옥수수 죽, 감자스프, 고구마 사라다 등 새롭고 창의적인 메뉴가 번갈아 식탁을 장식해야 한다. 그러자면 주부들은 항상 보다 진취적으로 새로운 미야(味野)를 개척하기 위해 연구, 노력할 줄 알아야 한다.

한편 식단표(食單表)를 만들어 규칙적인 영양섭취를 하도록 하자. 가족들의 식생활의 가이드라 할 수 있는 식단표가 너무 푸대접을 받아 영양섭취가 매우 불규칙하게 되어 버린다.

식단표를 짜는데 기초로 알아야 할 것은 5가지 기초식품을 매 끼니마다 식단에 배합하는 동시에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하며 가능한 한 중복된 조리법을 피하면서 주기적이고 변화성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새롭고 산뜻한 요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평범한 콩나물을 예로 들자. 콩나물 볶음, 콩나물 지지미, 콩나물 스프, 콩나물 사라다, 콩나물 고로케, 콩나물 오믈렛 등등 실로 무진장이다.

그러므로 주부는 식단표 구성에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머리를 짜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전가족의 건강을 보전하는 노력이기도 한 것이다.

알팍한 월급봉투를 원망하기에 앞서 다부진 마음으로 머리를 쥐여 짜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정부가 잘 해주고 농사가 잘 되기를 빌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머리를 모아보자.

<105면에 계속>

신사복 같은 것도 오래 입은 다음에는 다시 국민복이나 근무복으로 개조한 다면 2,3년은 더 거뜬히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같이 밀가루 포대나 쌀 자루도 상표를 크게 인쇄하지 말고, 한쪽에 조그맣게 따로 만들어 붙이고 그 바탕에 의복 색에 어울리는 무늬를 찍어낸다면 커튼이나 어린이들의 간단한 운동복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았는데 이밖에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줄 안다.

우리는 외형에만 사로잡힘이 없이 정신미를 길러 교양이 있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품위가 나타나는 의복생활을 함과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복장의 선택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의복생활



문 혁(文赫)

인간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게 여기는 것은 의식주(衣食住)라 함은 동자(童子)의 상식이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복이 첫째로 관심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풍토, 기후가 별거벗고 지내는 것을 예사로 하는 야만인들이 사는 더운 나라들과는 달라서 화창한 봄, 산뜻한 가을,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의 사시(四時)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철을 맞추어서 육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보기에도 서투르지 않게 걸을 단장하려는 자연의 심리적 작용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나 문헌을 통해서 의복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 제도가 은비(隱秘)함을 보아서 의복이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을 떠나 오히려 예절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복에 대한 예절적 관념은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의 사치적 현상을 초래했고 후진국에 있어서는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과시효과(誇示效果))란 유행어를 창조해 낸 만큼 의복생활의 기현상을 빚어 냈다.

이 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제적 후진국의 국민들이 선진국의 생활 환경을 무비판 모방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하니 국민소득이 78불(弗)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소득과 의복생활을 견주어 볼 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에 빠져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못 살게 된 중대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후진국의 탈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의복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복장에 있어서 미적가치(美的價値)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나 개인의 경제적 능력 내지 생활환경과 동떨어진 의복이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복이란 자기의 생활환경에 맞는 것으로 디자인 하거나, 색의 선택에 있어서도 환경과 조화되는 복장을 갖추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신분에 맞는 의복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만약 학생들이 화려한 면만을 추구한 나머지 검소하지 못하고 비활동적인 복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학생에게서 과연 학생으로서의 침착성이나 세련된 지성미를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런 복장의 학생에게서는 허영과 경박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복이란 그 사람 자체의 마음의 표현이며 인간성과 품위와 인격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복이 날개'라고 하여 집에는 저녁 지을 쌀이 없어도 빛을 내서라도 걸치레를 해야만 타인에게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고루한 생각 때문에 즐겨야 할 명절날에 자녀들에게 새 옷 한 벌 못 해줄을 비판하고 자살을 한 아버지들도 있었다.

이런 비극이 다 우리의 사고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높이 평가하려는 노예적 근성은 의복문제를 떠나서도 우리의 근대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지상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립경제 확립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어떤 의복이 우리 생활에 플러스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굳건한 정신적 각성이 없는 한 어떤 의복생활의 제창도 무의미한 것이 되며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의복생활이 우리 환경에 적합한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청결하고 단정한 의복이어야 한다. 고가하고 유행을 따른 옷 보다 청결하고도 단정한 옷차림은 남에게 좋은 호감을 줄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믿음직한 마음을 주며 자기 자신도 기분 좋은 것이다.

둘째는 개성에 맞는 의복이다. 무엇보다 사치를 떠나 각자의 개성에 맞는 옷차림을 잘 줄 알아야 한다.

해방 후 물밀 듯 흘러 들어온 각종 각칭의 의료(衣料)는 우리 안목을 넓혀준 것도 사실이나 의복 원래의 목적을 생각지 않고 사치로만 흐르는 경향이 있다.

각자의 체구, 피부색, 성격을 고려하여 자기의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리는 의복이라야 될 것이다.

자기 몸, 성격 등을 생각함이 없이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따라서 맹목적으로 같은 것을 입는다거나 유행에 휩쓸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복지(服地), 색, 디자인을 택한다는 것은 지각있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값싼 복지라도 자기의 체구에 맞추어 성격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면 그것은 어떤 고가한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며 품위가 있어 보일 것이다.

셋째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복장이나 색의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에서는 사시사철 계절에 맞춰 의복을 해 입기도 곤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계절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의복도 생각해 볼만하다. 색에 있어서도 호화찬란한 색을 사용하는 것 보다 2종-3종의 색을 사용하여 그 색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의 생활감정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고 믿는다.

<103면에 계속>



## 새로운 주택생활(住宅生活)

유기영(柳起英)

—문(門)간방(房)은 좋지 않아 셋방살이 뉴·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의 주(住)생활이라고 하면 얼핏, 아담한 문화주택과 멋있는 집 구조를 연상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러한 주(住)생활을 싫다고 하겠소?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사람치고 더욱이 수입이 한정된 군인들이 이러한 주택을 꿈꾸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나 않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꿈의 세계를 떠나서 실지로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부면을 들여다 볼까한다.

농촌의 주택생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분들의 대다수가 도시의 샐러리맨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봉급생활자의 현실에 기초를 두어 참고 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볼 생각이다.

셋방살이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통계적으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봉급생활자 중에는 자기 주택을 가지지 않고 이른바 전세나 사글세로 셋방살이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에 달할 것으로 본다. 세상에서 못할 노릇은 이 셋방살이다. 불편하고 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는 이러한 셋방살이나마 가능한 한 셋방살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같은 값이면 보다 좋은 셋방살이를 할 수는 없겠는가.

필자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셋집이나 셋방을 얻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아무리면 어때, 내 집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점이다. 물론 내 집도 내 방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이상 그 집 그 방이 나의 생활의 근거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셋방살이 뉴·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첫째 집이나 방을 정하는데 임시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한두 달 있으면 옮기는 것이……3,4개월 후면 옮겨야 할 것이니 하고 집이나 방을 얻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일단 입주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음 생각한 것처럼 옮기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교통, 시장 등의 거리관계를 참작하여 셋방을 얻는 것은 누구나 상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수도사정, 전기사정, 인근에 병원이 있느냐, 파출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밤에 집으로 돌아올 경우의 길 사정 이밖에 주택부근의 환경 상황 등까지 미리 알아서 셋집 셋방을 얻는 이는 드문 것 같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단순히 일 반적인 편의나 편리상으로만 고려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웃에 병원이 있다면 도보로 갈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버스나 합승을 타야 한다면—그리고 며칠 다녀야 한다면 의외의 교통비가 지출된다.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전기사정이 매우 나쁜 곳이 있다. 이런 것은 가정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셋방살이 번두리 이야기이다. 중요한 조건은 울안의 사정들이다.

같은 값이면 주인이 좋은 집을 찾아야 한다. 돈 내고 있는데 저는 저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크게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내고 있다하더라도 셋방, 셋집에 산다는 그 자체가 이쪽의 저자세(低姿勢)를 은연중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한 교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자기 집에 선타살이 하는 사람을 낮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돈 내고 계약해서 방을 쓰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특히 셋방을 얻는 데는 그 집의 건물 구조의 조건보다 그 집 주인의 성격이며 가족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인집의 자녀가 얼마며 아이들의 성질이 어떠한지 늙은이가 있다면 그 늙은이의 성격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같은 방세를 주고 있으면서도 주인집 가족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셋방살이 하는 사람의 가정생활에 편이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매우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주인집이 너무나 가난한 것도 쓸데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주인집 가풍이 자녀의 가정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깊이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집 구조다. 셋방이라면 방의 위치와 방의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도둑이 들기 좋은 방이 있는가 하면 채광(採光)이 나쁘고 변소가 바로 옆에 붙어서 악취를 풍기는 위치에 있는 방이 있는 것이니 이러한 방은 피해야 할 것이다.

대개 보면 대문채 방을 세 놓는다.

남의 방을 얻는 사람이 방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셋집, 어떤 방을 구해서 드느냐 하는 자유는 이쪽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대문채 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도둑이 들기 쉬운 방이 이곳이다. 또 대문채 방은 이 집의 안내원과 같은 역할을 피할 수 없다. 이 집을 찾아온 손님이면 누구나 이른바 문간방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 안내원과 같은 귀찮은 역할을 맡기 마련이다. 또 밤이나 낮이나 문단속의 책임을 지기 마련이며 마치 문지기과 같은 노릇을 해야만 한다. 엄동설한 한밤중에 집주인 가족이 늦게 돌아와서 대문을 두들기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다.

심히 귀찮은 일이다.

대개 셋방은 문장치가 허술하고 구들도 신통치 않다. 남이 들어있는 방이라 해서 집 주인이 그 방에 손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失物)을 잘 하고 연탄가스 사고가 이러한 방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국의 주택구조는 대개가 대문체에 변소가 붙어 있다. 때문에 세를 놓는 방은 변소와 붙어 있는 예가 많고 악취가 풍겨 위생상 좋지 않다.

위생관념이 없는 집에 셋방을 얻을 때 집안 청소와 살균작업을 도맡아 해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세를 들기 전에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이 셋방에 들 때는 그 집 아이들의 버릇이 어떠한지 쫓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말버릇, 손버릇이 나빠서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

더욱이 전속이 자주 있는 군인 생활은 자기 주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무처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 셋방살이를 해야만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셋방살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필요한 것이다. 만일 주택이 없어서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한다면 집 없는 설움이 누구에게나 빠져리게 느껴진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 설움을 덜 하는 셋방살이 방법을 연구해서 명랑한 셋방살이 뉴아이디어는 각자가 연구하면 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시간은 금이다

피뢰침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유명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쇄소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상점에 들어와 책 한 권을 골라 들더니

“이것이 얼마지요?”

“1달러입니다.”

“얼마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기분이니까요.”

“그러면 1달러 25센트로 하지요.”

“뭘리구요? 그런 농담은 말고 정말 얼마에 팔겠습니까?”

“그럼 1달러 50센트에 드리지요.”

“이 친구 사람을 놀릴 작정인가, 시간마다 비싸진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희롱도 작작하게!

그 신사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돈입니다. 지금 1달러 50센트에 파는 것보다는 맨 처음 정가대로 1달러에 파는 편이 이득입니다.”

신사는 비로소 <시간은 금이다>하는 말의 뜻을 알고 1달러 50센트로 사가지고 갔다.

## 중공병사(中共兵士)의 신분 및 사기분석

장세원 역(譯)

### 해설

미국 국무성은 최근 중공군 총 정치부의 비밀문서 ‘공작통신(工作通訊)’을 발표했다. 이 ‘공작통신’은 중공군의 기밀기관지인데 이 기관지는 군의 연대 장급 이상의 고급장교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작통신’은 부정기 간행물이며 월 2-3회 발간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성이 입수한 것은 1962년 1월 1일호에서 동년 8월 26일호까지이며 미국 국무성이 이 기밀 기관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공작통신’에는 군 전반에 걸친 문제가 게재되어 있다. 즉 정치사상, 교육훈련, 군의 관리문제, 보급문제 등이 보고형식으로 취급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한 것은 1962년 2월 1일자로 된 ‘공작통신’ 제 7호에 실린 중공군 참모장 뤼리칭(羅瑞卿) 군사찰 보고문이다. 뤼리칭은 그의 보고문을 군사위원회와 주석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는 동 보고문 중에서 중요한 점을 발췌한 것이다.



<중공군 총참모장 뤼리칭(羅瑞卿)>

나는 1월 20일, 쿤밍(昆明)구구의 작전사단을 시찰하였다. 여기에 그 상황을 간단히 보고한다.

1. 금년의 군사훈련 공작은 목하 진행 중에 있으며 ‘양억삼사(兩億三查)’운동은 이미 교육을 마친 중대가 있고 3월 1일부터 전 사단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

<주>

양억삼사(兩億三查)운동은 하나의 정군(整軍)운동이며 양억이란 과거의 민족고(民族苦), 계급고의 고통을 회고함으로서 현재를 이해하려는 교육운동이며, 삼사라 함은 장교, 사병의 각개인의 사상적 계급적 입장, 활동, 생활태도를 점검하는 정풍공작이다. 말하자면 공산독재고(苦)에 허덕이는 그들을 무마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2. 부대의 사상상황은 기본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며 ‘양억삼사(兩億三查)’운동은 사단전체에 걸쳐 극히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상의 요동(搖動)

식량사정이 긴박해진 이래 부대 병원들의 사상은 상당히 크게 동요하였다. 야포 제2중대의 병사의 사상상황은 조사에 의하면 전 부대원의 61.4%는 사상이 건전하며 나머지 38.6%는 애매하거나 잘못된 사상을 가졌다.

이들 잘못된 사상 소유자의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병사는 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를 들면 XX중대의 49명의 병사는 윈남(雲南), 쿠이조우(貴州), 쓰촨(四川)의 출신이다. 그들의 고향은 농산물 생산이 흉년이며, 그 상황을 분석하면 작년에 비해 증산 9명 18.1%, 무변동 21명 43%, 멸산(滅産) 9명 18.3%, 재해가 무심한 것 10명 20%이다. 대다수의 가정은 그들의 감수 재해등의 불만 불평을 부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로 말하고 있다. 1961년의 1년간에 중대의 사병들은 314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좋은 소식과 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42.3%

◇ 고통과 불만을 알리는 내용이 40.7%

◇ 나머지는 보통의 편지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식량이 부족한 가정과 증산된 가정에서도 좋지 못한 내용의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좋지 못한 편지를 받고난 뒤의 사병의 상황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멸산지구 및 재해지구의 실가(實家)〈자기가 태어난 집〉를 가진 19명의 병사 중

◇ 편지를 받고난 뒤에도 태도가 엄정하며 사상이 건전

하고 부모를 설득시킨 자는 7명

◇ 편지를 받은 후 사상이 동요하고 눈물을 흘린 자 8명

◇ 극도로 반동적인 태도를 취한 자는 4명

◇ 이 중 교육에 의해서 본래의 자세로 돌아선 자 6명

◇ 교육을 받고도 애매한 10명

◇ 아직 반동적인 자 3명

◇ 반동적인 행위로서는 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욕질하고 당 및 정부가 취한 저수준을 비난하며 테마를 퍼뜨리고 탈출의 조직화를 기도했다.

◇ 전 사단중에서 이와 같은 반동분자를 38명 적발했다. 이 중에는 반당공작원이 숨어있는 것 같으나 아직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양억삼사’운동은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지난날의 구사회의 고통을 충분히 회상시키고 앞으로 맞아들일 희망적인 상황을 설득한다는 것은 교육가치가 크다고 본다. 내가 시찰한 도중 어느 중대는 ‘양억’교육의 방법으로 모주석의 저작을 학습시키는 곳도 있었고 ‘중국사회회의 각계급’을 분석 비판하는 곳도 있었다.

동 사단의 한 연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해지구, 멸산지구에 실가를 가진 사병의 사상문제는 비교적 설득하기가 쉽다. 그런데 식량자족지구와 증산지구에 실가를 가진 사병은 식량 배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사상공작이 어렵다.”

이들 사병에 대한 교육공작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문제는 이들에게 공산주의와 계급우애의 정신을 주입시키는 일인 것이다.

〈중공과 홍콩의 경계선에 배치된 중공병사들〉



### 계급별 출신을 중시

3.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의로 하달된 정치사상공작 강화는 '38작풍(作風)'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 '38작풍'이란 3은 ① 올바른 정치방향을 파악한다. ② 고난을 극복하고 겸소한 생활기풍을 일으킨다. ③ 기민하고 적극적인 전략전술을 존중한다. 38의 8은 다음 8자를 지칭한다. 단결, 긴장, 엄숙, 활발.

또 하달된 11개 군가도 보급되고 있다.

전박적 현상으로 중대에 당원 수가 적고 특히 사병당원이 부족하다. 많은 지부위원회에는 거의 당원이 없으며, 연락위원은 아직도 간부가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단 단위의 당의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 같다. 앞으로 지부위원회에는 일정한 사병당원의 수를 확보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부가 많은 일반주민과 제휴하는 공작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의 말단조직과 말단간부 속에는 중농출신(상중농과 하중농을 구분하지 않고)이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사병 중에도 중농출신자가 많다. 이 하나의 예를 들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탄포 제3중대의 53명의 사병 중 빈농 27명, 중농 23명, 수공업노동자 3명이며, XX연대 제2중대 120명중 빈농 67명, 중농 31명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각 중대의 지도간부 중에도 빈농출신이 우위를



<한군전란시 귀국을 거절하고 자유를 택한 중공병사>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탄포 제3중대에는 중대장, 정치지도원 및 3명의 소대장 중에서 지주출신이 2명이며 중농, 빈농이 각각 1명, 도회의 빈민출신이 1명으로 되어 있다. 내가 지난해 동북지방(만주)을 시찰했을 때도 그 군대의 구성성분이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전군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초보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의 요인은 주로 이들이 비교적 문화적 성분을 가졌고 활동능력이 있으며 말단 간부와 연대 또는 사단당국이 그들에게 흥미를 갖고 접촉하였기 때문에 간부들에게 발탁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에 있어서와 같이 이들 중농출신은 당의 정책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사상이 견고하지 못하다. 앞서 지적한 사단에 심각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38명의 좋지 못한 분자들로 3분의 2가 중농출신이다. 동 사단의 고사포중대의 14명의 중농출신중 11명은 당에 대해서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나의 의견으로서는 금후 당원을 늘이고 말단간부를 발탁할 경우에는 빈농층(하중농을 포함해서)의 우위를 유지하게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인민공사에서는 간부구성에서 빈농층의 우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예가 있다. 군대는 더욱 그러한 것이니 이점을 살려야 함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활기없는 군사기(軍士氣)

4. 군의 풍기문제에 있어서 현저하게 눈에 띄우는 것은 활기가 없다는 점이다. 용호와 같이 생기발랄(生氣發刺)해야 할 장병들이 모두가 그렇지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중대를 보았을 때 나는 마치 송장을 보는 것 같은 인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소진한 군사기를 크게 우려하는 바이며 나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 홍군시대(광동시대)에 비해서 = 그때보다도 못하다. 그 때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60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팔로군시대(연안시대)에 비해서 = 그 때보다 훨씬 못하다. 그때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40으로 볼 수 있는 정도다.

◇ 해방전쟁시대(제2차대전 종전 후 국부군과 싸우던 시대)에 비해서 = 그때보다는 훨씬 더 못하다. 현재의 부대의 조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대단히 좋은 편이다. 병사들도 그때는 노병이 많았으나 지금은 모두가

청년들이다. 활기가 없는 것은 부대장의 통솔이 졸렬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짖음이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정기발달(精氣發刺)한 작풍(여기서는 사기)은 부대 전투력을 구성하는 제요소중 가장 중요한 하나다. 수미침체(愁眉沈滯)한 부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다.

현재 동 사단은 1일 7시간은 병기고나리와 신병정리 및 독서시간으로 주고 있으나 그 밖에 사기를 진작시킬만한 오락시설과 시간이 전연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대에는 작업 시간 외에는 젊은이들의 노래 소리가 드높고 연극무대가 벌어지며 구희(球戲)가 벌어지고 이렇게 돼서 비로소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다.

운남성의 사단을 시찰하고 나는 부황병 사병이 많음을 발견했다. 이 사단은 금년에 들어서 농작물이 작년에 비해 좋았으므로 앞으로 부황병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5. 이번 시찰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면 무엇보다도 중농이상의 출신자를 경계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가 '사호연대(四好聯隊)운동에 비협조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

'사호연대(四好聯隊)운동= ① 정치사상호(政治思想好) ② 38작풍호 ③ 군사훈련호(軍事訓練好) ④ 생활관리호(生活管理好)의 4호이며 즉 이 네가지를 잘 하는 연대를 육성하자는 운동이다. 이 '사호연대'운동은 그들의 건군활동의 중심 운동이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또 그들이 때때로 행하는 이른바 정군운동도 부대평가 또는 개인평가도 모두 이 '사호연대' 운동을 분석하여 총 점수의 반을 여기서 채점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사상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의 맹점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공산주의에의 사상적 충성심이 부족 또는 미열(未熟)한 것이며 군내부에 공산당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사기문제에 있어서 군사위원회는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다. 군량을 확보해서 이들의 기아상태를 최소로 줄여주는 방안은 시급하다.

단시일에 걸친 시찰인 만큼 아직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은 보유하고 쓰촨(四川)사단을 시찰한 다음 자세한 보고를 다시 제출할 생각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시가 있기를 바란다.

**윗 사람 공경하고  
아랫 사람 사랑하자**



**중간지휘관 능력측정에 대한 소고**

최규순(崔奎淳)  
<공군대령>

**목 차**

- 1. 서론
- 2. 본론
  - (1) 평가의 중요성 및 기본성격
  - (2) 평가기준 및 범위
  - (3) 63년도 종합계획
  - (4) 통계에 의한 분석평가
  - (5) 전망
- 3. 결론

**1. 서언**

과건 공군본부감찰감실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열(綜合檢閱)시에 사례가 없었던 하나의 방법으로서 중간지휘관 및 각급참모에 대한 능력측정필답식 평가를 63년도 중반기부터 종합검열 때마다 예하부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필답식평가 실시 중에 각급지휘관과 참모들로부터 다각도로 평가실시에 대한 찬성, 반대, 방법개선문제 그에 대한 효과성 또는 가치성 등 많은 의견이 야기되었으나 일년 간 전부대의 중간지휘관 및 각 참모에 대한 평가실시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중요성을 재론함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평가실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군발전과 개인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기 임무수행 상 기본적인 제문제를 주무특기분야별로 공군교범, 규정, 지시공문에서 선정하고 그 숙지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다음 중간지휘관 및 참모로서 부하의 신상파악, 내무생활상태, 군기보안문제, 제반정보급품문제 등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직무수행능력향상 및 사기를 더욱 앙양(昂揚) 시키는 동시에 복무의욕을 고취하여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63년도에 실시한 평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본론**

**(1) 평가의 중요성 및 기본성격**

한정된 범위이나마 개인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하(現下) 모든 평가제도를 보며 교육기관, 사회조직, 군대조직에 있어서도 개인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기준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 점수제도로써 우열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임무수행능력 및 사기를 세밀히 관찰하고 더욱 발전 향상시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자신을 견고히 하겠음 감화 지도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공군본부감찰관실에서 주관이 되어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평가문제를 선정하여 실시에 따르는 제반 애로(隘路)를 극복

하고 63년도 중반기부터 종합검열 시에는 중간지휘관 및 각참모에 대한 능력 측정평가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 (2) 평가기준 및 범위

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가. 평가실시대상범위

중간지휘관으로서 전대장(단급이상단), 각 대대장, 중대장, 각 과견대장(OSI대장, 7항보단과견대대장), 항공본창에 있어서는 각 실장 및 각공장장 등이며 일반참모로서 계획, 작전, 인사, 군수, 관리처(과장)장, 특별참모로서 감찰, 안전, 행정, 법무, 정훈, 군중관실장 등이다.

나. 시험문제관리책임

평가문제관리책임은 검열통제관에게 있으며 평가실시목적에 주시시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기술적인 방책과 관리를 한다.

다. 시험문제출제구분

- (ㄱ) 주임무사항 : 각직무수행상 각 특기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본적인 문제.
- (ㄴ) 공통사항 : 편제, 직능, 병력 현황, 예산관계, 교범, 규정, 군기보안, 정기 보급품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
- (ㄷ) 부하에 대한 관심도 : 공사훈련, 내무생활, 급량, 휴가, 생활규정에 대한 문제.

라. 시험문제 구성 및 작성

(ㄱ) 주임무사항에 있어서는 공군본부각국감실 주무부처로부터의 의뢰사항과 검열과 각검열장교가 출제하고 검열통제관이 종합하여 문제를 선정 작성한다.

(ㄴ) 공통사항 및 부하에 대한 관심도의 문제는 검열통제관이 선정 작성한다.

(ㄷ) 검열통제관은 시험문제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요구도에 따라 추가, 취소 또는 새로 선정할 수 있다.

(ㄹ) 시험문제 대한 형은 OX형, 선택형, 기재형 등 세 종류로 한다.

(ㅁ) 시험문제취급은 특별취급으로 한다.

마. 시험평가기준

시험평가기준은 주 임무사항, 공통사항 및 부하에 대한 관심도별로 평가 채점하여 백분율의 비율로서 산정한다.

바. 시험평가결과

능력측정결과에 대하여 검열통제관이 각부대 지휘관에게 그에 대한 결과측정 일람표를 일부 통보 제출하고 종합검열결과 보고서 참모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 (3) 63년도 종합통계

(부대비교가 되기 때문에 생략함)

## (4)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

각 예하부대 능력측정평가통계를 보면 평균수치가 61.6%로서 우수한 부대가 3개부대가 있고 평균치이하의 부대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아 63년도 중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여 비교해 볼 때 점차적으로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부내용상으로 보면 첫째 보안문제에 있어서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규정에 숙지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보안의 중요성은 새삼 논하지 안더라도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로 자기부하들에 대한 정기보급품의 지급기준, 급식기준, 휴가 및 외출기준, 복지시설문제 등의 숙지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이다.

상관으로서 부하에 대하여 위엄과 함께 사랑의 통솔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상관으로서 부하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면 부하는 진정으로 감응되며 명령에 복종하여 생명까지도 초월하여 따를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군에 있어서의 중간지휘관 및 각참모급의 개인능력이 매우 높지 않으면 평가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요하는 당 군실정에서는 각 중간지휘관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각기 직무능력 및 전문지식의 배양과 부하의 신상 파악문제라든가 내무생활상태 복지문제 등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부하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의욕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1회 있는 종합검열시 자기직무능력에 대하여 공부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생각되며 모든 지휘관이 점차적으로 이 평가실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향상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현상이라고 하겠다.

## (5) 전망

앞으로 있을 중간지휘관 및 각참모능력측정 문제는 63년도 실시방향을 연구 개선하여 문제자체의 출제개선과 권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선정에 중점을 둘 것이며 과거 종합검열시 전예하부대에 실시하였던 것을 시기 및 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하고 상부에서 실시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일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에 있는 것이다.

## 3. 결언

군의 당면과제인 전력증강에 있어 엄정한 군기와 상하단결을 확립해서 군의 명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휘관 및 각참모는 솔선하여 자기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행(履行)은 물론 자기부하에 대한 신상파악 복지문제 사기의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상하 서로 단결하여 정신적인 무장과 책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맑은 바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냉전시기에 있어서 적의 간첩침략을 막기 위하여 군의 보안문제를 춘음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각기개인이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이외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모든 중간지휘관 및 각 참모는 능력측정평가를 통하여 느끼는바 같이 임무수행에 왕성한 책임과 개인능력배양을 기하고 꾸준한 노력으로서 현하 제한된 예산, 인원, 물자를 가지고 군발전에 기여하여 각 분야에 대한 능률적인 임무완수를 기할 수 있음을 바라마지 않는다.

〈공부감찰감실 검열과장〉

**몸과마음 한데모아  
방공대세 강화하자**

## 생활 설계도

공군장병들의 앙케이트에서

- 64년의 나의 강행군 -

### 설 문

귀하가64년에는꼭 실천, 실현시키겠다고 생각한 목표를 개인, 가정, 근무 상에 한해서 100자 이내로 써 주십시오.

이상의 앙케이트는 63년 12월, 본부를 비롯해서 예하 각 단대에 500매를 배포하였는데 303매가 회수되었다. 즉 응답자가 3003명, 약 60%가 앙케이트에 응한 셈이다.

이 앙케이트가 의도한 바는 공군장병들의 일반적인 생활경향 즉 무엇을 희망하고 있으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의 방향 및 경향을 통계적으로 알아보자는 데에 있었다. 또한 이 앙케이트는 이 앙케이트를 받음으로서 누구나 빠지기 위순 목표 없는 생활, 계획성 없는 생활에 자극을 주어 무계획한 생활에 계획성을 가지게 하고 목표 없는 생활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겠끔 촉구하는 데에도 의도가 숨어있다.

그런데 막상 앙케이트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 애로를 느꼈다. 첫째는 100자 이내로 기술해 달라는 요구가 무리였음인지 목표를 명확하게 지시치 못하여 분류에 애를 먹었고, 둘째는 주에 '군 운용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오니 솔직히 기입해 주시오'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었음인지 '실천실현 시키겠다고 생각한 목표' 즉 의도하는 계획을 쓰지 않고 군복무상에

관한 일종의 요구(불평, 불만, 불편)를 쓴 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 정리의 기준

본 앙케이트를 분석하여 장병들의 생활방향 및 생활경향을 통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회수된 앙케이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못 응답해온 앙케이트를 제외해야하며 제외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했다. 즉 실격된 앙케이트를 정리한 것이다. 이 실격 앙케이트를 아래의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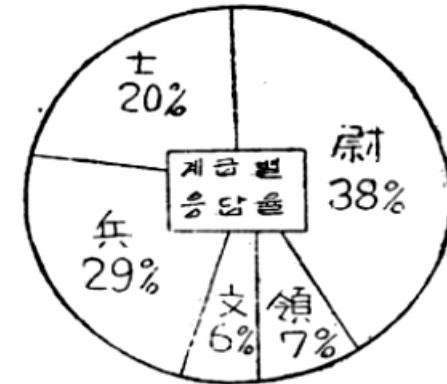
A. 64년에는 꼭 실천 또는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감상문 같은 것. (예 ①) 군 생활도 어언간에 11개성상을 넘어섰다. 그간에 뚜렷한 공적은 없으나 큰 과실도 없이 보냈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자위할 수 있다고 할까!(이하략)<계급 상사, 연령 34>

(예 ②)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특기분야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계급 중사, 연령 25>

예 ①은 하나의 감상문이고, 예 ②는 일종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동문서답식의 응답 예는 이밖에도 많다. 이것은 금년에는 꼭 실천해야겠다고 실현시키겠다는 사항과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니 응답은 했다고 하나 실격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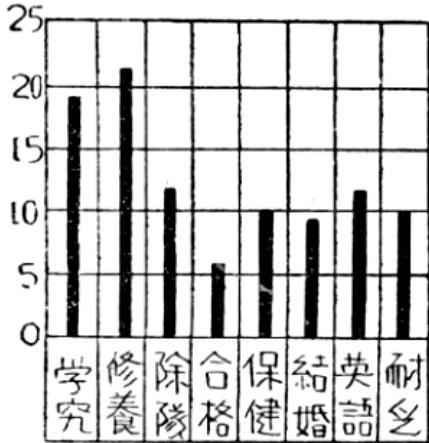
### 실격자의 수

이상과 같은 내용의 응답으로서 실격된 자는 상당한 수에 달했다. 302명 중 78명(26%)이었으며 계급별 전응답자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 전응답자 | 실격자 |
|----|------|-----|
| 영관 | 21   | 3   |
| 위관 | 111  | 18  |
| 사관 | 73   | 24  |
| 병  | 89   | 78  |
| 문관 | 3    | 2   |
| 계  | 297  | 78  |



(전 응답자 302명중 계급 및 연령이 불명한 것이 5명이 있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앙케이트를 분석한 매수는 302매-5매-78매=219매가 된다.

전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15명, 30대가 83명이다.

**어디에 관심이 큰가?**

공군장병들은 개인신상, 가정상, 근무상 중에서 어디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유효표 319매 중에서 개인문제에 목표를 둔 것이 116, 가정문제에 71, 근무 상에 32순위로 나타났다. 개인문제에 가장 높은(53%)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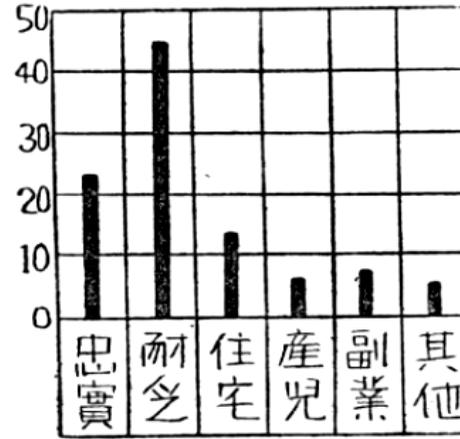
**연학열(研學熱)이 으뜸**

**-개인관심 분석-**

약 절반 이상이 개인신상 문제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고 있는가? 먼저 계급별로 보면 영관이 7명, 위관이 47명, 하사관이 25명, 병이 36명 문관이 1명으로 위관이 개인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수양 26, 학구(學區) 21, 영어공부 15, 제대준비 13, 보건 12, 결혼 11, 각종시험합격 6, 내핍(耐乏)생활 12로 되어 있다.

① 수양에는 어떤 특성서적(교양, 종교 등)을 조직적 규율적으로 읽겠다는 것, 단연 금주, 금연하겠다는 것, 대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 노하지 않겠다는 것, 일기를 꼭 쓰겠다는 등을 들 수 있고 ② 학구에는 대개가 상급학교의 취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③ 영어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가 중, 소위였다. ④ 64년에는 꼭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중, 소위가 많았다. ⑤ 비교적 관심을 표시한 것이 보건문제이며 체위향상 보건관리를 위한 계획이 었보였다. ⑥ 시험에 꼭 패스해야겠다는 속에는 주로 국가고시였으며 장교 시험을 목표로 삼은 하사관도 있었다. ⑦ 약 9%가 제대준비 즉 제대하고 난 뒤의 취직자리, 자정정리, 사업관계 등을 생각



하고 있었다. ⑧ 끝으로 내핍(耐乏)생활에 주력하겠다는 장병이 약 9% 연령적으로 보아 21, 22세의 독신사병들이었는데 이들이 만일 결혼자라면 그들이 말하는 내핍생활은 가정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내핍생활에 주력 - 가정내의 관심분석 -**

다음으로는 31%가 가정문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는 거의가 가정을 가진 기혼자이며 대위와 상중사들이

생활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중요한 목표며 계획은 내핍생활을 하겠다(약 45%).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약 12%). 부업을 가지겠다(약 8%). 산아제한을 하겠다(약 7%) 등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가지겠다 산아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모두가 대위와 상사였으며 보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영관급이 많았다(약 22%). 기타가 6%.

① 가정에 충실 하겠다 = 가족의 친목 화합을 도모하겠다.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겠다. 등등이다.

② 내핍생활하겠다 = 일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봉급의 범위 내에서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것, 적자생활을 지양하겠다는 것, 계획생계를 수립하겠다는 것, 금주금연으로 가정생활에 도움되겠끔 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것은 장사병들의 경제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좋은 경향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예 1) 절약에도 한계가 있다. 어쨌든 적자가 없는 선까지 내핍할 목표다. <대위 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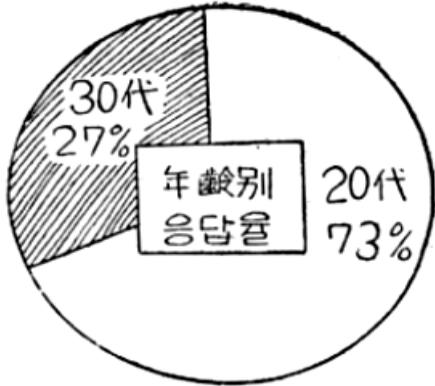
(예 2) 현물가로서 가족 6명을 단칸방에 수용하고 있으나 내핍으로 이를 유지할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여 현 수입으로 균형을 맞출 생각이다. <소령 33세>

(예 3) 월급의 3분의 1을 저축할 것을 강행군한다. <대위 33세>

③ 주택문제를 해결 하겠다 = 가옥을 보수할 계획. 셋방살이를 탈피 할 계획 등이다. 셋방살이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고충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셋방살이를 면할 것인지?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예 1) 전관방(專賣房)에서 판자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위 29세>

(예 2) 하꼬방을 장만할 계획이다. <대위 28세>



(예 3) 수명의 가족이 가는 곳마다 셋방살이 서러움을 맛보아 왔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판자 집을 꾸며볼 각오다.

<상사 32세>

④ 가족계획(산아제한)을 실시하겠다.

(예 1) 단연 산아제한으로 돌입 <중사 30세>

(예 2) 산아중지하여 2남이나마 남달리 좀 굶직하게 길러낼 생각이다. <중위 31세>

(예 3) 산아제한을 강행하여 자

족팽창을 막을 계획이다. <소령 34세>

⑤ 부업을 가지겠다. = 부업을 가지므로 적자생활을 보충하겠다는 뜻이다. 어떠한 부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지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예 1) 건전한 부업을 가져서 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위 30세>

(예 2) 봉급으로서는 살기가 힘들고 쉬운 일은 아니나 부업을 가질 계획이다. <대위 31세>

### 거의가 동일한 내용

#### - 근무상의 관심도 -

그날그날의 일과에 관심을 가진 장병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앙케이트의 성질이 사실상 근무 상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 못되게 되어 있다. 군의 복무란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앙케이트에는 전 응답자 중에서 약 2%가 근무상에의 관심을 표시했다. 계급별로 보면 병이 가장 많고 다음이 위관급이다. 위관급 중에서도 소위가 많은데 아마 신입소위들이나 것 같다. 병은 영내생활자요. 임관되지 일천한 소위는 그만큼 임무에 대한 벽찬 희망을 안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반영된 것 같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책임완수, 군기확립, 명령복종 등을 다짐하고 있다.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이른바 계획생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관급이었다. 다음이 병, 다음이 하사관급으로 되어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약 73%, 30대가 27% 응답해 왔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정문제에서는 경제적 관념이 두드러지게 표시되었고 개인적 문제에 있어서는 취학과 각종 고시에 합격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장병들의 일반적 경향이 실생활문제와 향학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이것이 우리 공군 장병의 전경향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일면은 나타낸 것이라 하겠으며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 <가정(家庭)페이지>

### 군인의 아내론(論)

이인숙 <동명여고교사>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남자면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게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이 이 평범한 과정에서 이탈하고 있으나 이를 순조로운 이치에 대한 거역자라고 생각된다.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후회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결혼을 재미있게 풍자한 얘기다. 기왕에 후회할 결혼이라면 호기심 투성이인 인간으로서서는 해놓고 후회하는 것이 격에 어울리는 태도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전연 무의미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고 눈이 뱅뱅 돌아가는 현대 문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오묘한 섭리에 대한 착실한 설명이다.

한국적인 사고로서는 남편은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용된다는 계약 체결 절차를 결혼이라고 믿고 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을 위한 취직에 불과하다는 투다.

결혼이 새로운 중주관계의 형성이라고 믿는 말한다면 너무도 가혹한 이야기다. 인간들은 결혼을 통하여 또 하나의 자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위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밑도 아니다. 둘을 합해서 둘로 나누는 하나가 남편이고 아내다.

남편인 하나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하나가 아내로서 성실할 때 부부라는 이름으로 결합된 예술이 향기 높게 승화될 것이다.

옛날 시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마음 속에 기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0평생을 미리부터 있어 온 사랑만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의무, 사랑한다고 약속한 편지사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면 너무도 지루한 사랑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는 얘기책 속에서 끝날 일이고 생활의 실제에선 사정이 많이 달라진다.

여자는 음식 요리 솜씨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랑거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남편의 마음속에 질서 없이 들어 차 있는 사랑이란 보물들을 꺼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 이 보물을 하나하나 꺼내어 요리한다면 평생을 지루한 까닭이 없다. 이러한 생활이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래서 무릇 아내된 여인들은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아내의 도리를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옛날 어느 고을의 원님은 자기 고을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기의 괴로운 형편을 하소연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놀려지나는 사람은 방의 오른쪽으로 옮겨 앉으라고 분부했다. 모두들 오른쪽으로 옮겨 앉았는데 한 사람만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에게 놀려 지나지 않는다는데 모두들 놀랐다. 원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남자들의 상식적인 존재라고 극구 칭찬을 하고는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리둥절하여 더듬더듬 설명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 틈에 끼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는 마누라의 말에 복종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한 고을 전부가 이렇듯 독부(毒婦)들로만 철저히 구성되었을 리가 만무하다. 남편들이 받는 피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 마누라의 바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마나님의 보살핌이라고 받아들일 남편들의 아량이 아쉽다. 남편들의 생활영역이란 아내에 비할 바 못 된다. 그러나 가정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만은 주부들이 깊고 세심하다. 지나친 구속은 아내의 도리를 욕되게 하고 지나친 무관심은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나는 군인의 아내다. 군인이란 직업의 개념도 이젠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과 군인으로 대별될 정도로 특수한 직업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활과 창을 쓰던 옛날 무사들과는 다르지만 제복을 입고 명령 일하에 행동하는 엄격한 군속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까닭에 독특한 생활 습성이 많이 있다.

## 〈가정(家庭)페이지〉

우선 집안 살림을 장만하는데도 다르다. 전속 명령이 자주 있는 군인들은 휴대용 가구를 구하게 마련이다.

처음엔 어지간히 우겨봤지만 이제 와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번 기념행사 때 육군 병사들이 등에 짊어지고 행진하던 살림 보따리를 바라보면 서 군인가정엔 휴대용 가구가 제일 어울린다고 느꼈었다.

군인들의 대화에는 수식어가 적다.

그리고 특수한 용어와 억양이 있다. 무식하다든가 불친절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얼마간의 이해가 있어야 할 풍습이다. 농담삼아(군인 티를 내느라구) “형편 없구나”라던가 “차렷 쉬엣 차렷……”하고 소리를 버럭 지를 때는 돌 못 된 꼬마와 함께 나는 멍청하니 남편의 교양을 의심한다. 그러나 웃는 모습으로 되돌아 왔을 때는 모두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면서 경상도 태생인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어머니의 고민이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란 원래 질투하는 관계지만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장벽이 고민이라는 것이다. 몇 분간의 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못 나올 투의 이야기가 웃는 얼굴에서 쏟아져 나오는데는 딱 질색이라는 얘기시다. 군인들의 대화가 그렇다. 집에 오는 친구 군인들의 대화가 느릿느릿 맥 빠진 템포의 대화보다는 호감이 간다. 짤막하고 명확하고 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겨울 일인데, 11월 하순 강추위가 시작되던 날이다. 남편이 자고 있는 틈에 외투를 손질해서 입고 가도록 준비를 했다. 속으로는 이 추운 날씨에 외투를 내놓으면 고마워할 것이 뻔하다고 마음먹고 어린 마음이 되었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외투는 12월 1일부터 입는다고 잘라 말하고는 그대로 출근하였기 때문이다.

날씨는 추운데 옷이 있어도 못 입는 군우에게 여자다운 심술이 났었다.

군인 가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소동이 가끔 있다. 새벽에 대문을 두드리는 비상훈련이다. “×××님 비상입니다.” 새벽에 찾아온 분주한 전달이다.

잠꾸러기 남편은 오늘따라 파수병처럼 귀가 밝다. 훈련받던 때의 흉내를 내느라고 상의를 걸치면서 허리를 조르고 양말을 신으면서 모자를 쓴다. 처음엔 어리병병했으나 이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게끔 고참 아주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소란을 부리고 횡 떠나고 나면 새벽이 너무 조용하다. 실제 전쟁터로 이렇게 떠났다면 집안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머리를 흔들다. 어떤 싸움터에서 누구와 싸울 것인가 머리를 흔들어 모두 지워버린다.

그러나 전쟁 없는 군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해본다. 닥치면 또 어떻게 될 일이고.

## 군인으로서의 남편론

— 아담에서 2등병까지 —

이 문 규(李文奎)

군인의 아내는 남편보다 한 계급 높다든 말이 있다. 내 경우엔 아는 게 너무 없으니 높아도 곤란한 계급이다. 언제나 출근시간에 바쁜 날 명찰과 계급장을 잘못 달았다가 고쳐 달고 나가보니 출근차가 떠났다는 것이다. 명찰은 몇 센티 올려서 몇 센티 옆으로 달고 계급장은 어떻게 단다고 몇 번 배웠지만 너무 잘 잊어버린다.

이런 것은 뺏다를 맞고 메츠레스 맘보를 하면서 배워야 잊지 않는다는 것쯤은 결론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쯤 군대생활의 개념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계급장(특히 사병들)도 잘 모르겠고 전쟁도 안하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지내며, 밥술은 얼마나 큰 것이고,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김치는 얼마나 많이 담그는가, 두루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새로 군인의 아내가 되는 신부에게 필요한 상식의 안내서 같은 것이 보내진다면 남편에 대한 호감이 두터워질 것 같다.

남편들은 가정에 돌아와서는 지나치게 군인다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남성들만의 딱딱한 직장에서 떠나서 가정생활과 휴식을 잘 조화시키는 현대인의 지성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면이 아내들이 봉사하고 같이 즐겨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이 함께 앉아 웃는 얼굴도 좋고, 음악회나 미술전, 운동경기, 또는 학회활동 같은데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정서적인 생활의 좋은 양식이 될 것은 물론이고 가정과 개인들이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 보람있는 일일 것이다.

가정 경제와 어린이의 교육문제가 무거운 비중의 난제이다. 한국의 어느 주부가 웃는 얼굴로 가게부를 정리할까만 솔직히 말해서 좀 가난한 생활이다. 특별한 보장이 없는 장래를 위하여 얼마쯤의 저축을 안할 수 없고 그러자니 힘에 겨웁다. 서울에다 뉴욕이나 파리의 생활을 옮겨온 것이 고민이다. 셋방을 살면서 냉장고다 텔레비전이다가 부작용의 화근이다. 조국의 현실에 알맞게 생활한다면 그대로 중류의 생활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현저양모가 탄생되리라 믿고 노력하려는 각오다.

군인의 아내이기 전에 한 남성의 아내다. 그리고 한국에 태어난 한 여자다. 가정에서부터 생활혁신이 시작되어 온 나라에 파급시킬 책임이 주부들에게 크다고 생각한다. 보다 훌륭한 내일을 위해 착실한 오늘을 살아야겠다. 많은 남편들 많은 군인들이 생활에 허덕이며 오고가는 언덕길로 저녁 준비를 위해 바구니를 들고 내려가면서 나는 많은 마누라들이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은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다.



### 부부(夫婦)의 역사

부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길이를 같이한다. 흔히 불의 발견으로부터 인류사를 쓰기 시작하지 마는 참된 인류사는 그 기원을 최초의 부부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문명도 그 최후의 가치는 여하한 모양의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 어느 철인(哲人)의 말은 음미할수록 수궁이가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수의 남자나 여자가 부부되기를 거절하고 독신으로 종신하고 있지만 그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성(異性)속에 둘러

싸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성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부부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민족 설화(說話)의 창세기 제1장에는 예외 없이 부부의 기원이 기록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최초의 결합을 이룬 이래 이 지상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민족과 문화권을 달리 하면서 무수한 종류의 부부가 존재했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부부가 됨으로서 인간이 최초로 독립된 하나의 사회인으로 대접을 받고 또 행세하게 된다는 것만은 보통이다. 총각이니 처녀이니 하는 말 속에서 풍기는 '미완성의 덕머리'는 그래서 이 땅의 남녀들이 그 부부됨으로서 차지하게 되는 새 영토에 대한 수줍은 미소다.

그러므로 이 부부중의 베스트 하프인 남편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인류사의 절반과 오늘의 인류세계의 반을 -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를 - 이야기 하지 않는 한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이다.

파피루스의 종이도, 피사의 사탑도 로댕의 위대한 조각도 남편의 참가 없이 잉태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류사의 첫날부터 모든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은 환희와 영광만이 아니었다. 이브의 가슴에 안겨진 해산(解産)의 고통과 더불어 아담의 등골에 영원히 새겨진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리라는 저주는 이 지상의 모든 평야와 산과 골짜기를 파헤치게 했고 폭풍의 바다와 가없는 하늘에의 도전조차 사양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 한국의 남편

그러나 '남편'측에게 지워진 책임이 오늘 이 땅을 갉아먹고 사는 전 식민(植民)의 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남편'의 그것보다 더 무거웠던 예는 드물 것이다.

그는 자기 생애의 전 길이의 다섯 배나 되는 시간을 등에 지고 이를 소화해야 한다. 그는 오늘의 한국에 동서(同棲)하고 있는 단절된 세 계층을 동시에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조심스런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삼강오륜을 맹세해야 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출세와 영당을 보고할 줄 알아야 하고 아들 딸 앞에서는 민주주의 원칙과 비트제네레이션의 의미를 이해하는 척 해야 한다. 그는 18세기에서 20세기를 동시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파리채와 냉장고를 동시에 사들여야 하는 그는 파리채와 냉장고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절된 세대 간의 대화를 이해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한국의 남편들은 여기서 어떤 일이나 항상 결단에 앞서 회의와 도피의 습성을 배웠다. 더구나 그는 세계사의 주류로부터 벗어나 오늘의 고난을 자초한 근대화로부터의 탈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세대의 남편들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남편들에게는 말이 없다. 그들은 자기 어깨에 지워진 짐이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단절된 세대 간의 공백을 메꾸기가 벅차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남편들은 어느 나라의 남편들 보다 그 부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동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마나님들께서는 남편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기 보다는 동양적 가족제도의 오랜 잔재를 되씹으며 남편의 얼굴만 쳐다보고 산다. 부부된 것을 운명으로부터 돌리는 그녀들은 아직도 남편이 자기가 선택한 신앙임을 잊고 있다. 그렇지 않은 부인들은 너무나 하이힐과 텔레비전에 집착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남편들은 자기의 고민을

## 〈가정(家庭)페이지〉

덜어주지 않는 그의 부인들로부터 고개를 돌린다. 여자와 아이들이란 소물(小物)이란 예부터의 말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곤 하면서 아내들이란 물방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무지개 같은 족속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남편들이 가왕소천(家王小天)의 절대적 권위를 다시 주장할 만큼 반동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남편들은 이러한 가왕형(家王型)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일방적으로 쫓쫓매는 가복형(家僕型) 남편 못지않게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는 허다한 하숙인형(下宿人型) 남편들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책임은 우선 천하의 모든 아내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의 보금자리'를 '무미한 하숙'으로 만든 것은 스스로 아내의 위치를 포기하고 하숙집 주인내지 식모로 후퇴한 무수한 아내들의 무기력한 애정 관리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째서 여편네들은 결혼 전에는 것처럼 아끼던 꽃 같은 아름다움이나 새 같은 노래 소리, 미풍 같은 부드러움, 파도 같은 웃음 그리고 양 같은 온순을 버리고 여우같은 교활과 먹구름 같은 고집, 그리고 소나기 같은 변덕만을 부리는 것일까? 향기 없는 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듯이 자기를 기누지 않는 여편네를 남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일 년 가야 선물하나 사 올 줄 모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는 무딘 감각으로는 그가 하숙생(下宿生)을 탈피할 수 없다. 아내를 하나의 인격자로 대접한 일이 얼마나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아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했나를 고백해야 한다. 흑자는 말 할지 모른다. 도시 레벨이 맞지 않아서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나 이처럼 어리석은 변명은 없다. 그녀가 백치가 아닌 한 그를 전적으로 교육하고 감정적으로 성숙시켜 주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의 남편들은 자기 이전의 남편족들이 저지른 잘못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남편들이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부인을 부인으로써 대접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하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자기의 여편네를 부인으로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어떤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복종의 타성에 눌러 감히 남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여편네들에게 신이 그의 입김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넣어 약동하게 하듯 새 생명을 주어야 한다. 사소한 잘못은 눈감아 주라.

믿고 일을 맡기라. 그리고 한번 맡긴 일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맡겨놓고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아니 맡기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부인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남편측 자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사고방식은 바로 남편측 자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사고방식은 바로 남편 측(族) 자신의 무능—곧 여성의 능력을 이용할 능력이 없다는—을 고백하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더불어 새로운 가풍의 창조에 나서야 한다. 아내의 버릇없음을 탓하기 전에 남편인 자기는 얼마나 예의바른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옛 도덕과 새 도덕이 엇갈린 완충지에서 보다 남편답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의와 범절과 행동양식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새로운 가풍이라 함은 민주적, 인격적 인간관계 위에 수립된 가정의 품위를 말한다. 우리가 어느 집에나 척 들어섰을 때 느끼는 분위기—우리는 그것이 검소하고 깨끗하며, 부지런하고 온화하며 곧고 거짓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 전래의 미풍양속 위에 세워진 새로운 요리 관념이 가정 가정마다 저마다의 가풍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은 그 가정의 장(長)인 남편들의 주도가 없어서는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래의 모든 의타적, 책임 회피적 습성을 버리고 자주적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가 가정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아내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노예근성의 변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각 가정은 스스로의 가계(家計)를 독립적으로 가져야 하고 자기대로의 생활계획을 가져야 한다. 요즈음 흔히 문제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자주성도 우선 개개인의 자주성이 확립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실험되어야 한다.

### 군인으로서의 남편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한국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군인의 남편도 사람인 이상 일반 남편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의 남편의 고민을 군인이라고 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요, 또 안하고 배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그 특수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일반 사회인과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군인으로서의 남편은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상에서 이야기 한 것 이외에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군인은 그 생명을 국토방위를 위해 직접적으로 내놓은 사람을 말한다. 그는 전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통수권의 지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집단의 강제성을 일반적으로 그 가입과

### 〈가정(家庭)페이지〉

탈퇴의 자유가 개인에게 확보되어 있는 여타의 사회단체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가정생활은 일반인의 가정생활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일반사회의 모든 남편에게는 가정의 이익과 직장의 이익이 대립될 때 가정의 이익을 위해 직장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탈퇴하면 그만이니 까) 군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또한 남편은 남편대로 딱딱한 병영에서 듣는 상사의 말보다 아내의 달콤한 말에 더 끌리게 되어 자기의 신분을 잊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과거 군인 사행정을 부패케 했던 정실인사의 대부분이 친족보다 처족(妻族)의 청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나 군 범죄의 배후에 거의 예외 없이 여자의 허영심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명백한 것이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 군의 이익과 모순되는 여하한 개인적 충동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끊임없이 계몽해야 한다. 물론 사회전체가 건전하고 아내의 교양이 풍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노고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처럼 개인주의적 사조가 저급한 공리주의로 착각되고 있음으로 해서 봉사와 희생의 미덕이 냉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군대와 가정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군인인 남편은 군대안의 일과 바깥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 군대안의 일을 가정으로 끌어들여도 안 되고 가정의 일을 군대 안으로 끌어들여도 안 된다.

언젠가 ‘당신은 군의 기밀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앙케트를 읽는 중에 자기는 군영내의 꽃 한 송이에 대해서도 가정에 돌아가 이야기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구절이 있음을 보고 감명을 받은 일이 있거니와 친구(군인)의 집에라도 놀러 갔다가 그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의 동료나 상사, 또는 최근의 부대 행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민망한 것은 없다. 더구나 그 말 속에 나 자신은 잘 모르는 어떤 불미한 인간관계라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 남편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은 군인스런 가풍을 가져야 한다. 군인은 금전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군인은 검박질소할 수밖에 없다. 무역상 못지않은 호화로움이나 필요 이상의 낭비는 군인인 남편과는 인연이 없어야 한다. 무거우면서 온화한 가풍을 가져야 한다. 일상행동의 우아함이라든지 고상한 말씨라든가 아무 것에도 비굴하지 않으려는 긍지라든가 지조가 겸손한 가운데 씩씩하게 흐르고 있어야 한다.

군내현상작품입선작



〈수상가작〉

밤 열시(時) 후(後)

상병 구월환(丘月煥)

또 하나의 고요한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 있다. 흠뻑 땀에 적어 분망(奔忙)하던 세계가 달히고 편안한 안식이 서서히 육박하는 밤 열시. 오뉴월의 황소 걸음처럼 느릿느릿 울려 퍼지는 트럼펫 소리가 우리를 잠재울 때면 약속이나 한 듯 형광등이 승위치가 딸각하고 어둠을 뒤덮어 준다. 아주 옛날 언젠가 들어 본 듯싶은 어머니의 자장가 같이 베어드는 이 '밤의 서곡'은 너무도 확연하게 낮과 밤을 구획한다. 활짝 열린 창 너머 저 멀리에는 별 한 쌍이 다소곳이 나를 지켜보고 어디서 왔는지 서늘한 미풍이 얼굴을 간지럽히고 간다.

어느 여배우의 침실처럼 그렇게 호화롭지는 못하나마 세하얀 베일의 모기장이 시원히 드리워져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젊은 가슴을 태우던 조금 전의 격렬한 멜로디가 서서히 식어간다. 시급히 달려온 이 귀여운 밤의 사자 앞에서 이제 적막한 낭만의 페이지를 엮어 보는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그 타이틀 조차 읽은 채 분망하게 오가는 갖가지 얘기들이 흡사 개미의 행렬처럼 엄습해 온다. 이 서늘한 초저녁의 어둠을 뚫고 어디선지 금방 피리 소리라도 들려 올 듯싶다. 하지만 여기는 빨간 페인트가 버티고 서 있는 출입제한구역 - 단지 내일의 전투준비라는 긴급선무가 전제되는 곳이다. 이 시간이거나 그런 차가운 얘기들을 잊고 싶다. 너무나 자주 우리 젊은 가슴에 우울과 갈증을 주어 왔던 모든 것을 잠깐 저 어둠 속에 매장하고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싶은 것이다.

정말 두서없이 오가는 사념들은 그런대로 놓쳐버리긴 싫다. 철로처럼 아스라이 빠른 험하고 혹은 평탄한 인생행로. 그리고 거기서 명멸하는 흡사 연극 같은 일들……. 항시 흠에 매어 살며 흠처럼 거무죽죽하게 야원 어머니은

살며시 몇 말씀 주시고 가신다. 그것은 언뜻 신의 묵시(默示)처럼 멍멍한 환각을 자아낸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으니 아예 걱정 말라던 고향으로부터의 안부를 되새겨 본다. 전번 휴가 때 집에가서 흠뻑 먹었던 그 노란 참외가 눈에 선하다. 지난 수 외출 때 거나하게 취한 기분으로 떠들어 댔던 유원지에 서의 일들이 머리를 어지럽힌다. 이런 생각들이 제법 지저분하게 머리를 스쳐간 다음에는 또 고고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그것은 어느 외로운 가을의 보름달처럼 환하게 혼자서 온다. 이때는 마치 선의 경지에 몰입한 듯 내 호흡조차 잃어 버린 채 전신이 정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꼭 입대하기 전날 밤 “언젠가는 또 한 번 만나겠지. 너무 슬퍼할 건 없어.”하며 술선했던 때처럼 보낸 그녀는 일거이(一去而) 무소식. 그날 저녁, 일분이 멀다하고 잇달아 오던 신촌행 버스. 광화문 부근의 그 버스 정류장. 그때는 인적이 드물어 가던 밤 열한시쯤이었을까. 헤어지기는 못내 아쉬워 나는 거의 마지막 버스에 밀다시피 하여 그녀를 태워 보냈다. 회화를 전공하던 그녀는 일요일이면 곧잘 캔버스를 들고 나와 내 손목을 흔들었지. 새까만 머리칼이 나부낄 때면 흐뭇하게 웃어 주던 그 귀여운 모습! 하늘은 자꾸만 높아가고 온 누리에 풍성한 초가을의 내음을 맡으며 달리던 푸른 들의 회상 - 정말 이제는 가버린 '그린 필드'의 사연이 되고 말았다.

지나쳐 버린 사라의 얘기들은 제법 멀리 한 밤의 오솔길을 달린다. 나 혼자만의 오롯한 제세를 여미며 아무도 모르는 내비(內秘)를 씹어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시간은 진정 나 자신에게로 귀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내일 새벽에 올릴 그 요란스런 기상나팔은 생각지 않아도 좋다. 그저 지금 이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싫은 것이다. 밤의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의 색다른 역사가 창조되어 가는 야영의 밤 열시 변화한 도심지의 환락가에 흐르는 시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간이다. 그들이 지폐를 헤아리며 흥분과 난잡 속에서 하루살이 같은 향락을 찾을 때, 나는 잔잔한 어둠의 물결 속에서 회상과 반성과 계획에 젖어 몸을 뒤척이는 것이다. '현대는 내일이 없는 오늘날의 세계'라고 규탄하던 어느 사상가의 말이 떠 오른다. 그들이 눈을 번득이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조국을 지키는 예리한 방패를 꺾어야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신사적인 자유경쟁에서 우리는 물론 그들보다 얼마간 낙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닌게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름 밑에 가장 발랄(潑刺)한 시기를 묶여야 되는 것이 우울한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의 꿈과 투지와 실력을 배양하고 있는게 아닐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법 이숙한 밤기운이 느껴진다. 어느새 깊은 잠에 취한 사람도 많다. 훌훌 뽀아내는 저 거센 숨결! 그것은 젊음의 정열과 낭만을 외면하며 시계종처럼 낮과 밤을 되풀이해야 하는 권태에 대한 항변이 아닐까? 아니 그것은 보다 나은 내일

〈현상작품〉

을 위해 오늘을 불사르는 비장한 각오의 상징일 게다. 꼭 무슨 원한에 찬 것처럼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도 있다. 옆 친구의 허술한 잠꼬대는 정말 피곤에 시달린 신음 소리같다. 한낮 동안 직속상관이나 여러 조종사들의 손발이 되어 동분서주하는 말단 병의 밤은 피곤에 지친 몸부림으로 깊어만 간다. 군인의 밤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달리해서 각기 묘미가 다르다.

이 슬한 밤들 중에서도 신병대 기술병 시절의 밤은 서러웠던 수난의 심볼로서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머리를 뺨뺨 쥐고 군복으로 바뀌 입을 즈음의 기술병 시절은 피로와 우울에 찬 명인(鳴咽)의 밤이 오는 어두운 계절이다. 숨가쁜 훈련과 매서운 반장의 눈초리로 주입되는 군기 밑에서 맥을 못추는 기술병 시절 - 점호라는 이름의 가혹한 형벌(?) 속에서 차차 군인화하는 고달픈 시절이다. 이때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먹는 것과 잠자는 것 - 밤 열시의 그 은은한 트럼펫 소리뿐이다. 꼭 열시 정각 소등과 더불어 찾아오는 그 '취면기사(催眠技士)'가 우리의 심신을 어루만질 때 그때는 불현 듯 고향의 어머니나 옛 애인이 찾아와 속삭이는 시간이며 약간은 부당(?)하게 얻어맞은 분노가 봄눈처럼 사그러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시간은 8:15 해방보다 더 기쁜 석방의 시간이기도 하다. 몹시도 무디던 가슴을 열어 제치고 환희에 넘쳐 몸부림친다. 너무 귀하게만 커온 막내동이들에게는 고향을 그리며 흐느끼게하는 애수(哀愁)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내일의 불안을 잉태한 채 잠간 동안의 해방에 도취하는 것이다. 허나, 이렇게 과격한 일 들은 환경의 급전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몇 주일을 지내고 나면 제법 익숙하고 여유 있는 밤을 지낼 수도 있다.

지금은 이미 자취를 감춘 야식이지만 그때만 해도 일석점호가 끝나면 빵이 분배되곤 했다. 이 빵 맛이 또한 천하 별미였다. 모처럼 휴가를 가서 대하는 진수성찬도 이 맛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 할까? 이 빵의 보급이 단절될 때 우리는 무척이나 그와의 영결을 애도하였다. 누가 창시한지는 모르지만 빵은 그 별호가 많았다. 수면제, 안정제, 점호빵……. “전달”하고 외치는 소리만 나면 그렇게도 이맛살을 찌푸리고 울상을 하던 친구들도 “빵사역 즉시집합”하고 떨어지는 날이면 모두들 한결같은 음성으로 “와아”하고 함성을 친다. 얼마나 대망리(待望裡)에 이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영묘한 신약으로 인해서 한 낮동안 누적되었던 피로와 분노 같은 것이 하나의 웃음으로 중화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생리작용이다. 새까만 계급에 새까만 얼굴의 기술병들이 이 빵을 들고 어린애처럼 희죽거리며 침구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다. 이때의 밤 열시는 빵과 자유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황금의 시간이요 안전절대보장의 시간이다. 빵과 자유 - 이것은 행복이란 이름으로 바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기술병의 밤. 하지만 이 속에는 더 많은 침묵과 더 심각한 회한의 한숨이 묻혀있는 것이다. 이 밤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될게다.

이렇게 열시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밤은

괴로운 심신을 고이 물어주고 또 모든 것을 자유로이 창조하는 천부의 시간이요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인 것이다. 모두들 제대로의 여장을 차리며 전전하는 가운데 스스로 눈이 감긴다. 하지만 눈을 뜬 채 자못 엄숙한 자세로 이 시간을 맞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 완전무장의 중압을 감내(堪耐)하며 어두운 구역을 왕복해야 하는 보조병에게는 사실 너무 가혹(苛酷)한 시간이다. 이러한 사람은 눈물어린 초승달이 감싸주는 외로운 밤 열시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또 책가방을 들고 지습실로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불우한 후보생도 있다.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이 심오(?)한 교육들을 받노라면 밤 열시의 그 달콤한 미각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한주일이 멀다하고 코앞에 닥쳐오는 시험에 대비하자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습실행을 해야 한다. 좁다란 방에 모여 앉은 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공리를 되새기며 책장을 넘긴다. 다행이 시험에 패스가 되는 그날이면 중노동 후의 후련한 이완(弛緩)을 음미하며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다. 그때는 꼭 오랜만에 풀려 나온 죄인 마냥 또 다른 별천지에서 안도의 밤 열시를 지낸다. 그러나 좀 불행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 - 재시험 후보자들은 옆 친구들의 편한 자세를 선망(羨望)리에 굽어보며 침실을 나와야 된다.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밤 열시는 죽기보다 싫은 침울한 시간이기도 하다.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두 개의 현상 - 이것은 승자와 패자의 극대적인 표정이다.

또 밤 열시가 되어도 잠자리에 들기를 꺼려하는 특수한 일군이 있다. 이른바 바둑광 들이다. 또 밤 열시가 되어도 잠자리에 들기를 꺼려하는 특수한 일군이 있다. 이른바 바둑광 들이다. “아다리”를 흥겹게 부르며 결전의 극에 오른 흑백의 투사들은 위기(圍基)삼매경에서 아예 시간의 영역을 탈출하려 한다. 시간의 구속에 무관하려는 이들은 급기야 서로 합의 끝에 중반전의 스틸 있는 결승을 다음 날로 미룬다. 그리고는 못내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침상에 누워 머리를 식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상적인 밤의 향유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게다. 특수근무의 명을 받고 밤을 낮삼아 지내는 조국의 불침번들이 실상 얼마나 많은가. 하여튼 트럼펫 소리에 맞춰 스스로 열려진 밤의 문을 들어서며 여러 사람들이 색다른 여장으로 웅성거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로 통하는 이 칙칙한 터널 속에서 잠간 동안의 이방인이 되어본다. 군대 - 여기는 불면증 환자가 없는 곳이다. 한가한 사람들이 외치는 일철의 ‘문화병’이 서식할 수 없는 건강한 체구들의 집단이다. 조국을 지키는 전우들의 거센 숨소리가 한데 어울려 흡사 거대한 짐승의 진행 같기도 하다. 무엇인가를 후폭 뿜어내는 저 예저지의 발산! 진정 우리의 밤은 정중동의 의욕에 찬 밤이요, 고요한 사색의 밤이다.

**밖에서는 군민친선  
안에서는 인화단결**

<콩트 가작(佳作)>

『털보 처(妻)상자』



소령 김 병 로(金秉老)

금년 여름엔 유달리 비가 잦다. 거의 매일같이 찌푸드러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따금씩 비를 절끔거리곤 한다. 오늘 아침만 해도 웬 일인가 싶게 제법 새 맑은 하늘을 보여서, “아유, 인젠 살았구나.”로 모두들 환성을 올렸었는데, 어쩔쇼, 한 시간도 못 가서 하늘은 다시금 토라진 여인의 얼굴빛으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후부터는 가랑비를 뿌리기 시작했고 점차 빗발이 굵어져서 퇴근 무렵에는 주룩비로 화해 버렸다.

아침 날씨에 깜박 속아서 우장을 준비 않은 영외자들이 퇴근차를 기다리느라고 매점 처마 끝에 모여 서서들 원망 댄 눈길을 위로 보내다간 뭔가 투덜대곤 한다.

영외자가 아니더라도 요사이 비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저기서 물난리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는 물론이고 가까이 영내에서만도 비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건물은 비가 새고 벽이 썩어드는가 하면 길은 질고 흙탕물에 군화가 말아 아이다. 옷은 축축이 습하고 환경은 도통 쓸쓸스럽기만 하다. 더구나 내무반은 이것, 냄새로 인해 배길 도리가 없다. 빨래가 썩고 빨랫감에서 땀국이 흐르고 양말에서, 발에서, 옷에서, 이불에서 그리고 몸에서 습기 때문에 배어나오게 마련인 후덥지근한 냄새가 합치고 겹쳐서 고약스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서 해가 나서 일광소독을 하고, 빨래를 하고, 환기를 시켜서 가장가상하게 안팎을 말려야만 총각, 홀아비의 소굴인 내무반의 공기가 맑아질 터인데 큰 일이었다. 퇴근버스가 도착하자 영외자들은 우르르 처마 밑을 나와서 앞을 다뒤편 차에 올랐다.

버스가 잉하고 크게 엔진소리를 내고 진창물을 뒹기면서 정문쪽으로 사라지자 김영삼 병장을 곧바로 사병식당으로 달려갔다. 의자에는 사람이 성글었다. 김병장은 먼저 배식구로 가서 남이 받아가는 부식그릇을 살폈다. 두부찌개였다. 별정계 고춧가루가 뿌려지고 하늘하늘한 두부점 사이로 돼지 비빔점이 이따금 보이는 것이 펍 먹음직스러웠다. 김병장은 대번에 두 그릇을 먹고 고작했다. 낮에 외출가는 동기생에게서 얻은 식권 한 장을 아무쪼록 유효하게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한 그릇부터 타다 맛 볼 겸 먹었다. 맛이 괜찮았다. 두 번째 타왔다. 입에선 얼마든지 들어오라는데 뱃속은 그렇지 만도 않았다. 이미 들어간 분량만으로 약간 부족하지만 그런데로 그만 되었다는 감각이었다. 그러나 기왕 타다 놓은 밥을 물리거나 남에게 줄 용의는 추호도 없었다. 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김병장은 욕심에서 두 그릇째를 거뜬히 비워버렸다.

식당을 나온 김병장은 주룩비 속을 내무반으로 걸었다.

“아, 김병장님 식사했습니까?”

김병장이 막 내무반을 들어서는데 내

감으로 혼자 남아 있던 노일병 놈이 좋아라 맞달려 나오면서 물었다.

“음, 어서 가!”

“아, 고맙습니다.”

노일병이 사라지자 텅 비고 음산한 내무반엔 김병장 뿐이었다. 모든 것이 축축히 젖어드는 듯해서 얼핏 몸 둘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선체로 서성거릴 수만도 없고 또 두 그릇을 포용(包容)한 뱃속이 아무래도 정상이 못되는 것 같아서 김병장은 자기 침대에 가서 벌렁 뒤로 나자빠져 누웠다. 뱃가죽이 아프도록 땀이었다. 스프르 오른 손을 런닝셔츠 사이로 밀어 넣어서 뱃가죽을 쓰다듬어 봤다. 뒹기면 소리가 날가싶게 팽팽히 팽창되어 있었다. 싸늘히 차가운 손의 타인지 몰라도 뱃속이 곰실거렸다. 뱃가죽이 땀기우는 것만도 급한 판국에 뱃속까지 휘저어서는 견디기 곤란할 듯싶었다. 얼른 몸을 돌려서 모로 누웠다. 그리고는 배를 움켜 안는 꼴로 등을 구부리고 배를 움켜 안는 꼴로 등을 구부리고 두 다리를 무릎에서 구부려서 사타구니 쪽으로 굽혔다. 훨씬 나아졌다.

“원, 이렇게 험한 걸, 공연스레 뒤로 나자빠져 가지구서……”



김병장은 혼잣 속으로 이렇게 뇌이면서 조금 전의 우행(遇行)을 자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망된 속단이었다. 얼마 못 가서 곰실거리던 뱃속이 점차 크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구렁이라도 한 마리 잠복해서 요동을 치는 듯 뱃속을 마구 휘젓는 것이었다.

“이거 큰 일 났군……비도 오시는 데……”

뱃속이 이 정도가 되면 우레질 끝에 소낙비 오듯 한 바탕 설사가 난다는 여태까지의 관례를 생각해서 김병장은 초조하게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닥 경망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즉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연통이나 굴뚝 쭈시는 사람들이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쭈시개였다. 굵다란 철사에 형질나부랭이를 수북이 꿰맨 이쭈시개를 목구멍으로 거꾸로 넣어서 항문으로 잡아당기면 뱃속의 구진 것들이 말끔히 쏟아져 나와서 금세 개운해질 것 같았다.

이거 그만 변소로 내닫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위급해졌다는 생각을

<현상작품>

하면서 몸을 일으키는데 주변병이란 놈이 썩근덕거리고 달려 들어왔다. 그리고 김병장 앞에 다가서면서 경례를 했다.

“뭐야?”

김병장은 신을 찾으면서 성급히 물었다.

“주변병, 김병장님께 용무?”

“그런 거 치우고 빨리빨리 용건부터 말하란 말야!”

호통을 쳤다.

“네. 강상사님한테서 김병장님에게 주변서관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변병은 잔뜩 긴장해서 더듬듯 한마디씩 읽어나가다 싶어 했다.

“네, 강상사님한테서?”

김병장님은 당황해 했다.

“네. 빨리 받으시랍니다.”

“알았어……. 저기 빨리 비웃 좀 빼겨와! 그리구 저 휴지말이다, 휴지두 좀 주구…….”

김병장은 서둘러왔다. 그러나 본래 좀 둔한 주변병은 김병장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 주질 않았다.

“저—이게 김병장님 비웃이든가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아무거나 빨랑 못 빼겨와? 임마!”

주변병은 콩 튀듯 서둘러대는 김병장에게 비웃과 신문 한 장을 가져다 주었다. 비웃을 걸친 김병장은 무조건 밖으로 튀어 나왔다. 그리고 빗속을 주변서관실 쪽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사태는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다.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뱃속의 것은 당장 나올 기세로 항문쪽으로 총집결하고 뱃속을 뒤틀어서 추진력을 격증시켰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진퇴유곡! 바지에 쏟아져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강상사로부터의 전화를 받느나 아니면 이 생리적 처리부터 단행하느냐의 다급한 순간에 김병장은 선뜻 단안을 못 내리고 냉큼거리기만 했다.

“야, 강상사님더러 전화 좀 기다리고 해!”

주변병에게 이렇게 소리지르고 변소쪽으로 향할 땐 김병장은 뛰기는커녕 죽을 힘을 다해서 비어져 나오려는 항문을 봉쇄하느라 어기적 거리기만 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사고처리장에 도달했을 적엔 허리띠 끄르기가 무섭게 기관총 소리가 시작되었다. 무서운 추진력에 의해서 연발로 발사되는 기관총탄은 마구 변소 밑바닥에 흩어졌다.

시작 같아서는 순식간에 총탄이 떨어지고 일의 결말이 날 것만 같더니, 웬걸, 연발 발사가 끝나자 다음은 산발적이고 불규칙한 발사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공격이 끝나 주질 않았다. 뱃속이 뒤틀리고 무줄한 뒤에 힘이 빠지면서 간헐적으로 총탄이 튀길 뿐 거뜨히 일어설 결말이 오질 않았다. 등허리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병장은 근 이십분이나 경과해서야 사고처리장을 나왔다. 아직도 평온치가 못한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변서관실로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주변서관실에서 수화기가 제자리에 놓인 전화를 발견했을 때 김병장은 에쿠! 싶었다.

“야, 전화?”

“네 강상사님 끊으셨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다고 오시면 전화드리라드군요.” 주변병은 여전히 굳어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병장은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림을 느꼈다.

“강상사님. 통신보안”

저쪽이다.

“네, 네, 저 김병장입니다. 근데 선임하사관님…….”

“가만 …… 잠깐, 자네 왜 통신보안 앉구서 통화하나, 응?”

“아, 네……. 그럼 통신보안…….”

“그럼 통신보아니 아냐. 지킬 건 지켜야지…… 자, 어서 사무실로 오지. 와서 이야기하기로 하구…….”

“네. 곧 가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어,” 김병장은 황급히 주변서관실을 나와 사무실로 달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선임하사관님, 그만 배탈을 만나서…….”

사무실에 들어선 김병장은 사과부터 하였다.

“괜찮아. 어서 이리 앉지……저녁은 먹었어?”

“네……. 약간 과식을 했더니 그만 뱃속이 좋지 않아서…….”

김병장은 머리를 굽적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후—과식이 안 좋지.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음식물에도 조심해야 될 거야……어때? 약은 먹었어?”

“아니요. 인젠 다 나왔습니다. 한바탕 설사했더니……근데 선임하사관님은 저녁 어쩌했습니까?”

“나? 난 먹었어. 집에 나갔다 온 걸……자, 이걸 먹어보지.”

“집에서 만든 빵이야, 걸모양은 비슷한데 맛은 역시 좋지가 않아.”

“고맙습니다. 이거 신나는 구편데 고만 배탈때문에……근데 선임하사관님은 저녁 때문에 이 비를 맞구 집엘 나갔겠습니까. 야근을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제게 스페어 식사전표가 한 장 있었는데…….”

“그래? 허지만 그래선 안 되지. 영외자가 영내에서 취식을 해선 못 쓰니까……지킬 건 지켜야 돼. 자, 그건 그렇구 인제 일 좀 시작할까. 얼마나 했지? 전번에 내가 부탁했던 일 말이야…….”

전화가 왔다는 전달을 받는 순간에 이미 짐작을 했던 일이지만 막상 이렇게 정면으로 질문을 받고 나니 김병장은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그러니까 약 열흘쯤 전 일이었다. 강상사는 김병장에게 몇 가지 통계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다. 끝내야 하는 기한을 바로 오늘로 정해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일거리란게 따지고 보니까 김병장의 솜씨로 두 세 시간이면 거뜨히 해치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었다.

그래서 미루기만 했다. 하루, 이틀…….이렇게 민 것이 드디어 마감날인 오늘까지 밀렸고 진도란 겨우 착수만 해 놓은 형편이었다. 오늘도 아침부터 강상사로부터 독촉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싶어서 마음이 안심치가 않았는데, 워낙 성품 순후한 강상사였기 믿는(?) 마음에서

어물어물 넘기려 들었고 또 그것은 거뜰히 성공을 거뒀던 것이다. 실로 이렇게 엉뚱하게 불리워서 진땀을 뺀 줄은 약삭빠르다고 자처하는 김병장도 미처 몰랐었다.

× × ×  
강상사가 이 부대로 전입해 온 지 오늘로서 꼭 오십일이 된다. 하지만 그가 호인이란 평판은 벌써 영내외에 골고루 퍼져서 군인이나 가족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김병장도 이를 칠두칠미 시인했고 따라서 가장 기꺼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김병장이 차지하는 사무실에서의 위치, 즉 선임 하사관 다음 가는 선임자로서 아래로 병들과 선임하사관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그토록 성격이 부드러운 강상사를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 아닐 수 없었다. 전 같으면 의례껏 뒷자가 되었을 휴가증, 외출증이 강상사가 온 뒤론 척척 무사통과가 되니 밀엿 사람들에겐 경사요, 김병장 자신에겐 영예(?)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의 경우는 조금 유가 달랐다. 여전히 부드럽긴 하면서도 전에 없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빼있는 말을 두차레나 하는 데는 더욱 더 날카로워진 김병장의 신경에 무관할 수만은 없었다.

× × ×  
“자, 일을 시작해 볼까? 어디까지 했는지 하던 것 좀 가져오지.”  
“네……. 겨우 시작만 했는데요…….”  
김병장은 난처한 표정을 하고 머리만 굴적거렸다.  
“좋와. 바빠서 그랬겠지. 어서 그걸 가져와.”  
“네”  
김병장은 마지 못해 자기 책상으로 가서 설합속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았던 일거리를 꺼내왔다.  
“오—라, 제법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계속하면 되겠구만……. 자넨 이걸 좀 불러 주지, 난 받아 쓸터이니.”  
“아닙니다. 제가 쓰죠.”  
“괜찮아. 어서 하라는대로 해.”  
강상사는 벌써 펜을 들고 있었다. 김병장은 장부를 보고 부르기 시작했다. 긴장한 때문인지, 아니면 기관총 소사가 주효인지 김병장의 뱃속은 무사한 상태에 있었다. 김병장은 문득 신문에 돌돌 말린 빵뭉치를 봤다. 먹어보직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저……. 선임하사님, 빵 드시면서 하시죠.”  
방금까지 배탈이라던 것이 급새 빵을 풀어 먹기가 미안스러워서 슬쩍 강상사를 구슬러 봤다.  
“아냐, 난 많이 먹었어. 어서 자네나 먹으라니까…….”  
강상사는 계속 펜을 놀리면서 김병장이 예측했던 대로 대답을 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김병장은 빵뭉치를 끌렀다. 과연 길모양의 빵집의 그것과 흡사한 황토빛 식빵 덩어리가 비어져 나왔다.  
“아유, 멋지네요.”  
“뭘……. 어서 먹어.”

“실례합니다.”  
김병장은 빵덩어리의 마디 진 곳을 힘 주어 문질렀다. 보기 좋게 빵이 갈라졌다. 빛은 누렇지만 갈라진 측면이 별집처럼 구멍이 송송한 것이 제법 먹음직스러웠다. 한 모서리를 툭 문질러서 입에다 넣었다. 달고 구수한 맛이 하관찮았다.  
한참동안 강상사 혼자 싸야 할 일거리에 부닥쳤다. 김병장은 입에다 빵조각을 넣고 질근거리면서 던져 강상사를 바라봤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열심히 펜을 놀리고 있다. 숨도 제대로 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김병장은 강상사의 이렇듯 진지한 얼굴을 대할 때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강상사를 연상하게 되곤 했다. 대대장의 심부름으로 강상사를 찾아 집으로 갔더니 마침 일요일이라, 교회에 갔다가로 달려가 벌떡 문을 열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요속에 머리 숙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김병장은 영겁결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강상사는 남자석 뒤쪽에 앉아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표정에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김병장에게도 이 엄숙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진지한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  
강상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뭔가 일을 붙잡으면 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고 김병장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강상사 앞에 서면 자기의 고참이란 관록이나 반부라는 감투의식 따위가 쪽을 못 쓰게 되는 것을 체험도 했다. 물론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다시 애써서 그런 의식을 회복시키곤 했지만. 일은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물론 김병장에게 지시되었던 일이 강상사의 손에 의해서 완성된 결과가 되었다.  
“나가 볼까? 김병장한테 미안하군, 이렇게 늦도록 붙잡아서…….”  
강상사는 기지개를 펴며 일어났다.  
구레나루에 둘러싸인 너무죽한 입 언저리에 만족해 하는 미소가 어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강상사님.”  
김병장은 죄된 심정에서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보였다.  
“또 그런 소리! 쓸데 없는 소릴랑 그만두구 어서 치우구 들어가도록 해.”  
강상사는 손수 흩어진 서류뭉치들을 치우려 했다. 이것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김병장은 한사코 막아 놓고 자기가 서둘러서 치웠다.  
둘은 밖에 나왔다. 칠흙 같은 어둠속을 주룩비는 아직도 오시고 있었다. 고집불통인 개구쟁이의 행패처럼 짓곳은 비라고 김병장은 생각했다.  
“길이 질어서 어떻습니까?”  
김병장은 먹다 남은 빵조각이 싸인 신문지 뭉치를 비옷 속에 쑤셔 넣으면서 강상사를 염려했다.  
“괜찮아. 어서 가 봐, 수고 했어.”  
강상사는 주저 없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절벽절벽 하는 소리와 함께 물당을 텅기며 걷는 강상사의 너무죽한 뒷모습이 정문 외등아래를 지날 때까지 김병장은 우뚝히 서서 지켜 보았다.  
강상사가 정문밖으로 사라지자 김병장은

몸을 돌려 내무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룩비를 아랑곳 않고 천천히 발자욱을 옮기면서 김병장은 어슴프레 꽤배의식에 젖어들고 있었다.

박병장의 집은 부대에서 기차로 1시간과 정거장에서 30분쯤 걸으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외출이 있는 토요일마다 집엘 가던 박병장은 그날도 집엘 갔었다. 때마침 월요일이 자기 생일이라서 박병장은 집에 가서도 일요일 저녁 귀대할 생각에 마음이 걸려 있었다. 꼭 24시간이면 되는 것을 순순히 제 시간에 돌아간다는 것이 병장쯤 된 사람으로서 바보처럼 느껴졌다. 더구나 적당히 눈 감아 줄 선임하사관이 있는데야 염려할 게 무어냐? 전보 한 장이면 오랜만에 집에서 생일잔치가 될게 아닌가? 펍 많이 망설였지만 박병장은 끝내 전보를 치고야 말았다.

“독감으로 일일 미귀영 예정, 박영구”

박병장의 전보를 받은 강상사는 대대장께 결재만 맡았을 뿐 덤덤한 표정으로 일을 하다가 오후엔 불 일이 있다고 대대장께 허가를 얻어 조퇴를 했다.

전보만으로 만사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박병장은 월요일 아침부터 생일잔치를 벌였다.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는 안주의 막걸리를 마시면서 동리 친구들과 목이 찢어져라 노래 부르고, 트위스트를 추고, 상 모서리가 으스러지도록 장단을 쳤다. 오전에 일단 중단했다가 오후에 다시금 잔치를 열고 한참 주흥을 돋구는데 느닷없이 강상사가 나타났다. 아프다고 과자까지 한 상자 사들고 찾아 온 강상사 앞에 박병장은 말린 오징어가 아니 될 수 없었다.

전후의 사리(事理)를 깨달은 강상사는 묵묵히 저녁 대접을 받고 박병장을 대동하여 귀대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은 끝이었다. 여전히 부드럽게 친근하게 대해 줬다.

곽병장은 거짓 약혼을 한다고 했다가 발각이 되고 오늘 밤 박병장까지 이렇게 되고 보니 셋이 모두 강상사 앞에 굴복된 셈이었다. 길모양은 초라하기만한 강상사! 작은 키에 구부정히 흰 허리, 통통히 벌어진 몸에 모 없이 둥글기만 한 얼굴, 그리고 깎아도 깎아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원상복귀가 된다는 구레나루—이것이 강상사에게 털보란 관을 씌웠지만, 개발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다가 끝에 가서 크나히 마무리진 코와 코끼리의 그것처럼 작은 눈등 위 엄이라곤 조금도 없어 보이는 강상사 앞에 셋이 모두 나부죽히 엎드리게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어느 모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 서글픈은 약하다 약한 인간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끌려서 원찮는 방향—죽음따위—으로 가야만 할 때의 서글픔과 같아야 할 것 같았다. 당연히 가야만 하는 곳 의당 받아야 하는 잔! 그것은 쓰면서도 사람의 마음에 부동한 납득을 준다. 강상사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시간까지 끝내 해 치우고 말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느 모론 쓴 맛도 있었지만 김병장의 마음에 움직일 수 없는 납득을 주었다.

김병장은 주룩비에 함박 젖은 비옷을 벗어서 털고 괴괴하니 잠든 내무반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끝-

〈생활기 가작(生活記佳作)〉

마음을 적셔주는 비속에서



병장 박래창(朴來昶)

‘누가 웃는 거야? 내 말이 그렇게 우스운가? 웃는 사람 앞으로 나옴’ 서중위의 유리알 깨지는 듯한 음성이다. 내무반에 3열중대로 집합해 있던 분위기는 대번에 얼음장처럼 굳어 버리는 것 같았다. 대열에선 사병들의 긴장된 숨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금요일의 정기적인 총기 수업을 끝마치고 각자의 내무반에 돌아가기 위하여 이곳 3내무반에 전원 집합한 가운데 ‘수고들 했다.’라는 칭찬이라도 들을 법한 분위기가 오히려 역행하여 이처럼 갑자기 차가워진 것이다. 모름지기 칭찬이라도 해주려고 사병들 앞에 나선 주번사관인 서중위의 이야기 가운데총기를 애인처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항상 자기총은 자기가 깨끗이라는 구절에 몇 사람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웃었던 사병 사오명이 성큼 앞으로 나가 그 중 선임자가 보고를 한다.

‘김병장의 5명 부르심이 있어 나왔습니다.’서중위는 아무런 대꾸도 없는 채 앞에 나온 6명을 하나하나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한다. 부동자세로 묶인 칠십여 사병들은 다음순간이 어떻게 돌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3분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리라고 생각될 때

‘5분 내로 전원 우의를 입고 이 자리에 다시 집합!’한마디의 몽둥이 같은 선고가 내렸다. 모두들 뜻밖의 사건에 당황하며 아무소리 없이 부산하게 흩어졌다. 내무반콘센트지붕에는 억수 같은 빗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부딪힌다. 나는 우선 훈련화를 찾아서 바꿔 신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기압이라도 받으면 발이 가벼워야 힘이 덜 들것이며 비에 젖어도 괜찮으리라는

선후평(選後評)

뽕고나서

이번 군내작품현상모집에 응모한 작품은 총46편에 달하고 있어 우선 양적으로 따지자면 꽤 풍성한 느낌이 들지만, 그 질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도 향상된 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펍 섭섭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소재의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소재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박력이 없어 마치 김빠진 맥주와 같은 작품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개중에는 너무 특수한 소재에 착안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가 인위적으로 처리되어 독자에게 깊은 공감을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개의 단편에 표현된 대화가 마치 신파극의 대본 같아서 오히려 읽는 사람의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다. 그러나 수필, 단편등 산문부분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다. 논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제 의식과 논리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논문의 핵심이라





여행원시험문제에서 판문점 해설을 출제 한 바 ‘문 등을 제작하는 곳’ 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 등등의 답이 전용시자의 37%라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서 송파나루 청태종비를 물어버렸다는 얘기가 하제에 오르지 못하는가 보다.

PAN MUN JOM

어느 외국인 기자가 한국에 들렀다가면서 자기 집 사람에게 줄 기념품을 구했노라고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보니 집포 형의 라이다 하나, 가운데 유엔 마트에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라는 글자가 기입된 장식품이 붙어 있고 그 위에 J.S.A. PAN MUN JOM 이라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 Korea 그리고 그 뒤에 Ko-mwal Super Japan이라고 상표가 찍혀있었다.

한국제일의 관광지 PAN MUN JOM. 지난 7월에 우리 사관학교에 찾아왔던 미공사생들에게 한국에 온 김에 어느 곳을 보고 가겠느냐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PAN MUN JOM and Walker Hill Sir!”공산군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Iron Curtain의 세계유일의 반투과성막이니 외국인의 충분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

지난 11월초 정훈장교 보수교육의 하나의 일과로 판문점 견학을 갔을 때일이다. 가는 도중 버스 속에서 평소부터 유머스러운 한 장교 한 분이 “여러분들 판문점에 가서 통역문제는 아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북 말과 이남 말에 모두 능통하니 통역은 내가 하지요.”하여 모두 웃은 적이 있다. 정말 이렇게 나가다가는 같은 민족끼리 통역을 두고라야 이야기 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날 당장에 공동관리구역 내에서 얻어들은 군관, 전사, 총위, 상장 등의 단어를 적어도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낱말들이니까. 남들은 관광지로 여기고 카메라를 메고 피뢰군을 관광하여도 좋다. 하만 우리에게는 이 반투과성막에 얽힌 한 많은 전설들을 숙제문제 받아드는 학생처럼 느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이론이전인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생리적 요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리라.

## 2. Libby Bridge

입진강은 입진강. 도대체 강자체가 생겨먹은 풀이 전쟁터에나 놓여있게 생겨 먹었다. 땅이 쭉 갈라진 자리에 물이 흐르는 풀이다. 양안은 수직의 절벽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콰이강의 다리같은 나무다리가 하나 걸려있으니 이를 하여 Libby Bridge. 이 다리너머는 벌써 민간인이 얼씬 못하는 전선지구다. 그래서 그런지 다리 경비를 하는 흑인병사의 표정이 무척 엄숙하다. 이 다리자리에 옛 선인들이 멋진 아취의 돌다리나 세웠더렸으면 드리나 강의 달 이상의 얘기들이 영겼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다리만 건너서면 비화(秘花)마당 속 같다. 도로 즉 Safe Lane만이 가르마처럼 숲을 가르고 뻗쳐있고 양측은 모두 울창한

숲이다. 청노루 한 마리쯤 유유히 거닐만한데 귀족은 듯 고요한 것은 이들 도 이곳이 모조리 지뢰밭인 줄 아는 모양인가 보다. 들판도 나타난다. 쌀섬이나 좋게 거두었을 옥답(沃畝)엔 10년 두고 자랐다. 쓰러졌다. 새싹이 나서 자라고 한 갈대가 한창 흰 꽃을 날리고 있다. 이 눈을 매던 복돌이 금순이 아버지는 지금 어느 하늘밑에서 망향에 잠겼을까? Libby교라는 낯선 다리를 넘어 서부터 다시 이 다리를 넘어 나오기 까지는 정녕코 우리 땅에 서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한국 땅 속의 외국,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이방인이 된다.

## 3. 파주

파주 언저리 일대는 옛날엔 경기 땅에서도 가장 알뜰하던 땅이다. 가장 한국적이던 이땅엔 지금은 어설픈 서부영화 오픈세트가 널려있다. 전면만 유리도 끼고 색깔이 찬란한 페인트로 영어를 써놓은 가건물들. 서양 사람처럼 분장한 한국 여인들. 그들의 얼굴엔 시나리오 내용도 모르는 피어로의 춤추다 지친 허설(虛漚)한 그림자가 덮여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화 아닌 생활자체가 매일 진행되어가고 있다.

숫자상의 평균국민소득 70여 불이라는 참뜻은 여기서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술한 전쟁영화를 보아왔어도 버스타고 잠깐 지나면서 훑어본 이 광경만큼 뇌리에 남을 신은 없을 것 같다.

## 4. 언제 가는 그날이

언제 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입진강에 노릿배를 띄우고 양안절물들은 시로 읊으며 흐뭇해 할 날이. 그리고 파주 길에 백 여리에 아담한 부락들이 들어서고 고운 저녁노을 빛긴 삼각연봉을 바라보면서 Libby교에 맺힌 어떤 서양병사의 슬픈 설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날이 말이다. 얼굴에 두껍게 그려 붙였던 서양여자의 분장을 말끔히 씻어버린 파주댁 아가씨가 개성장터에 들렀다가 평양친구와 함께 백천온천에 놀러가는 날이 말이다.

판문점에 처진 반투과성막은 건히고 백오십마일에 늘어선 노란 말뚝으로 표시한 군사분계선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위로 달구지가 왕래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니 꼭 와야 한다. 이북말을 통역으로 알아듣게 되기 전에 와야 한다. J.S.A.의 콘셋트가 콘크리트 영구건물로 바뀌기 전에 와야 한다.

역사는 공것이 없다. 애써 가꾼 들판에서만이 먹을 수 있는 나락이 거친다. 파주를 외면하고 판문점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절로 전선이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버려두면 또 하나의 판문점의 비극이 우리 역사에 새롭게 기억되고 말 것이다.

별들이 고운 여름밤이거나, 눈이 소리 없이 내려쌓이는 고요한 겨울밤이거나, 가끔 눈을 감고 파주 Libby교, 판문점을 한 번씩 여행해보도록 해야겠다. 적어도 젊은 사람이라면 우리 세대의 이 피할 수 없는 이정표를 외면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역사는 압축될 수 있어도 중간생략이란 있을 수 없다. 두드리는 자에게도 잘 안 열리는 문이 스스로 열릴리는 적어도 없을 것이다.

<시(詩)>

## 조국(祖國)의 하늘

공군대위 박웅진(朴雄鎭)



펼 펼 휘날리는  
깃발 아래서  
조국의 이름으로  
하늘로 외쳐보는  
자유와 평화

깃발이 찢기우고  
목이 터지도록  
조상의 지켜온  
유구한 역사

보라 조국의 하늘  
저 푸른 창공을

쌌이 - 하게  
솟구치는  
폭음(爆音)의 웅자(雄姿)

아아  
혼(魂)들이 터지는 단심(丹心)  
그 모습  
피끓는 난무(亂舞)를 보라.

장  
병  
페  
이  
지

<시(詩)>

## 미로(迷路)

병장 김석철(金錫喆)

영 대결하여 볼수도 없는 서러운 음조(陰助)속에  
능금빛 노을로 마악 까물어져 가는 낙조에의 마지막 여광(餘光)처럼  
좁게 트여져 후미져 버린 먼 사양(斜陽)길이  
내 마음을 부르고  
어쩌면

지옥계로 갈라진 어느 골목처럼  
가녀르게 모형(模型)한 노변(路邊)에는  
반음으로 작곡된 심포니의 연주곡이 자지러지게 울어오고 죽어나는데,

너무도 아스므레 쓸쓸한 길(路)에는  
코스모스같은 사연만으로  
단 한송이의 소박한 장미꽃도 보이지가 않아  
나의 나그네길의 발돋움은 지맥(地脈)을 울리어 갔다.

아아 하늘이 저렇게도 미치게 푸르고 당은 거창하게도 넓은데  
한낱 부조리(不條理)의 틈바구니에 버려진 이 몸은 울음젖은  
얼굴을 어둠에 숨겨야만 하고…….  
곱게 여물어진 마지막 염원을 채 토로하지 못한채  
어느 황원(荒原)의 고독한 나목처럼  
이 서러운 음조속에서  
어둠게 길어간 노정(路程)을 다스려 가고 있는 것이다.

<기교단>

## 겨울이 폐(肺)를 앓는 도회(都會)

글·그림 장윤우(張潤宇)

불행한 <현대>여  
찬란한 빛의 근원이여  
단절된 아픔 속에서  
머리 위로는 침엽수가 돋는다.

습지를 찾는 거상군(巨像群)의 확대(擴大)된  
동공(瞳孔)처럼  
<케이프·케네디>를  
불 안는 문명이여  
사생이라면 너는 차라리  
오늘을 사는 행복한 몸

미증유의 가속으로 회전하는  
검은 거리와  
뿌리를 뽑는 겨울나무와  
절개한 폐에서 오는  
뺨 뚫린 고독

겨울은 지금  
검게 뿌리를 드리고 있다.





## 선 본 이야기

이 현 희(李炫熙)

<한국역사문제연구소 간사(幹事)>

“넌 연애하는 여자도 없니, 시시하게 말아”

이 말은 내가, 결혼하여 지금은 성북동(城北洞)에 살고 있는 누님에게 중매나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던질 때 즉각적으로 떨어진 대답이었다.

“연애는 지금 내가 어린사람모양으로 연애하게 됐수, 시시하게...”

나도 지지않고 곧장 받아 넘기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시시한 것만은 틀림없다. 적어도 ‘연애사건’에 있어서는 말이다.

대학을 다닐 때는 ‘씨클’이다, 무슨 ‘친목회’다 해서 모임에 나갈 때는 나 또래의 여대생과 ‘데이트’도 하고 ‘아페크’도 했으나 이것은 ‘걸 프랜드’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장래를 굳게 약속할 처지는 못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여대생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나 결국은 나와 결합되지는 못했다. ‘쓴잔’을 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관계의 모임에서 알게 된 C라는 여대생은 내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며 ‘걸 프랜드’라는 본연의 입장에서 이탈할 정도의 사이였다. 그때는 그런대로 아가자기한 맛이 있었다. 집안 환경이 나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 더욱이 ‘핸디캡’이란 동령(同齡)이기 때문에 양가의 부모들이 굉장히 반대하였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원인이라고 꼬집는다면 외모(外貌)보다는 내모(內貌) 즉 마음씨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자의 매력이란 ‘내면충실’에 있다고 보는 나의 지론(持論)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기에 그때는 훌쩍할 지경이었다. 깊이 사귀려고 할 찰나에 입대(入隊)하게 되었는데 내 생각으로는 헤어지는 것으로 알았으나 서로의 감정이란 이를 계기로 더욱 ‘열열’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느꼈던 당시의 소박한 중심이었다. 전방에 가 있던 어떤 날 인사계 나리께서 뛰어오며 “이병사 전속명령이 나왔다. 제○군 사령부 ○○참모부로—”

짹짹하고 굵직한 목소리에 난 어리벙벙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C가 뒤에서 ‘운동’을 한 모양이다. 이리하여 전방신세는 6개월로 면하고 원주에서 제대할 때까지 있었던 일이 지금도 내 감정을 흐트럽게 해준다.

그런 곱고 맑은 C였건만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는 집안의 ‘강권’으로인지 제대이후 약혼—결혼으로 지금은 어떤 의사의 아내로 충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등포(永登浦)를 가게 되면 그의 거처(居處)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습관화 되었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영영 단념해 버리고 말았다. 아주 깨끗이 미련마저 지워버린 것이다.

그 뒤 난 대학을 나오고 다시 대학원을 거쳐 지금의 직장에서 계속해 국사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 B

그런 ‘연애 전과자’인 나는 교체니 연애니 ‘데이트’니 하는 것을 깨끗이 단념하고 몇 년을 지내온 요 근래에는 부모들 친구들 선배며 이웃동네의 아낙네까지 ‘중신’을 들쭉다고 ‘뽕쟁이’들이 내 심종을 건드리게 되어 이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게 되었다.

기실 나도 전연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초가 튼튼치 못한 것을 이유로 번번히 ‘여기’가 아니면 ‘노 코멘트’로 일관해 왔다.

이런 것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금년 봄부터였다.

이웃집 ××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는



“참한 혼처가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주셔야 겠어요.”  
 “어떤 자리길래 참하다는 겁니까.”하니 “××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나이는 30이고……” 하면서 그 집 자랑을 신나게 하고 있다. 이런 처녀라면 분명 ‘올드 미쓰’였다. 더욱이 나이도 나오는 맞지가 않아 즉석에서 거절해 버렸다. 그후로도 이런 종류의 여자가 7,8명은 죽히 되었는데 보자.  
 한결같이 가벼운 거절로 저쪽의 의사를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라앉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중신애비’의 강청이 있었다. 우리집과는 건건하게 된다고 하는 형님형렬의 한 분이 집으로 전화했다.  
 “자네 아직 정한 데 없지?”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한 사람 소개하겠네, 어떤고 하니 집안 좋고 E대학 약학과 나왔고 지금은 집에서 놀지만 결혼만 하면 약방 내고 자네는 땡 땡단 말일세 그리로 하게.”  
 하면서 ‘장점’만을 늘어놓고는 다짜고짜로 아카데미 옆 ××다방으로 ×월 ×일 오후 1시까지 나오라고 하면서 이쪽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끊어 버리는 것이다.  
 너무나도 내실 기분이 좋지 않았으나 그분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지정한 날 그 시각에 나갔다. 집에 어머니의 형수를 대동하고 킁킁한 다방 구석에 앉아 있었다.  
 1시가 조금 넘더니 저쪽에서도 약학과 양의 모친 및 수행원이 뒤 따라 들어왔다. 중신애비씨의 간단한 소개로 인사를 교환한 뒤 어색하게 의자에 마주앉았다.  
 그날 따라 토요일이라서 다방은 초만원을 이루어 이곳저곳에서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나와 어머니 E양과 그 어머니 4명 및 수행원이 그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키 위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난 처음 산 상록수만 없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이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만이지 계속적으로 나올 화제는 없는 것이다. 이때 이미 상록수 한 갑이 비어 있었다.  
 미리 알고 있는 가정이야기며 그 밖에 군신변잡설(軍身邊雜說)로 끝마치고 말았는데 그 다방에서 C일보 문화부장, 친구를 3,4명이나



만나게 되어 더욱 불안하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 속에서는 TV 드라마 배우 K도 만났다.  
 “자네 오늘 좋은 공사하는군, 잘 해 보게”  
 하면서 농담을 던지고 있으며 ‘레디’는 그들대로 호기심에 찬 눈으로 쳐다보며 저희들끼리 쭈군쭈군 하다가는 킬킬거리고 웃는다.  
 차를 마시는데도 그 약학과양, 너무 긴장했는지 뜨거운 차를 쪽 들이키다가 혀끝을 데어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새빨강게 달아 무아지경에 있음을 발견하고, 난 슬며시 화장실에 갔다 오기도 했다.  
 ‘불안속의 실수는 저쪽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케이스’는 내게도 적용되었다. 한 잔을 들다가 그날따라 비가 와서 손이 다 젖은 것을 채 씻지도 못하고 찻잔을 들다가 놓쳐 쨍그렁하고 뒤집혀 꺼낸 찻물이 그 양(嬢)의 모친 치마를 물들여 놓았다. 조금히 손수건을 꺼내며 수선편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일췌거려 고소(苦笑)를 불금(不禁)할 때가 한 두번 아니다.

C

그 약학과양은 내 마음에 들었으나 모친이 반대하여 그만두고 말았다. 소위 ‘궁합’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것만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그만 덮어 두기로 한다.  
 답답중에 걸린 나는 농담 삼아 모친께 “전 이리다간 장가가기는 영 틀린 모양인데요.”  
 해 버렸더니  
 “아무럼 장가야 못 갈라구 이제 좋은 자리가 있을 걸 혼인이란 사람의 막중 시대사야, 인연이 있으면 또 있을 것이다.”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우선 ‘귀족(貴族)’심사부터 한 다음에 선보려 가기로 하고 웬만한 것은 제한하려 한다. 내가 보는 결혼관은 ‘수수함’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사치하는 여자, 잘난체하는 여자, 떠벌리는 여자 등은 매력 밖의 여성들로 간주한다.  
 ××상고의 여교사를 다시 소개하겠으니 나오라는, 존경하는 선배의 말을 듣고는 한번 다시 ‘선보는 마당’으로 나가려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할 차비다.

익명(匿名)

- The Secret Name -

입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제6회>

제3장 소련인의 추악(醜惡)한 인간성

북부국가어업신탁국에서 모스크 GPU비밀경찰기구의 보키 동무(특별정치국 위원회)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영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연어(鱈魚)와 청어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받으 그 특종의 청어는 사실 한번도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는 순전히 뇌물로만 쓰이는 것이다. 수출할 연어나 특종의 청어는 정치국의 장이나 조사부의 위원들한테 주어지고 그보다 좀 덜 중요한 직책을 가진 관원들에게는 그 다음 등급의 연어와 백해(白海)에서 잡은 썩은 청어를 그기로 하급 관리들한테는 통조림 두 서 너 통씩 이렇게 뇌물을 주곤 한다.

블라디미르 V. 체르나빈저 「침묵자를 위한 발언」 <1935에서>

소련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들 내부에서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철의 장막을 굳게 치고 비밀정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철의 장막을 뚫고 물이 새어 나오듯 탈출하여 그들 내막이 진상을 서술하는 데는 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를 들면

1949년, 국제연합에 제출된 '소련에서의 노예노동'이란 보고서는 소련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대전 중에 또는 대전 후에 탈출해 나온 천여명의 증인들과 직접 회견하여 작성한 것이다.

1953년, UN과 국제노동조합이 작성 제출한 '강제노동특별위원회보고'는 모든 공산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노예노동의 실태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소련의 그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1938년, M.이본이 쓴 「소련의 진상」이란 저서는 저자 자신이 11년간이나 소련 각지에서 강제노동을 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 진상을 폭로한 것이다. 또한 손을 꼽을 정도로 중요한 직위에 있으며 비밀경찰과 관련했던 알렉산더 오를로프는 「스탈린 죄상의 이면」이라는 책을 썼다.

1956년 2월에 흐루시초프가 행한 그의 연설은 사람들을 더없이 놀라게 하는 대폭로였다. 티토 치하에 있는 유고슬라비아의 전부통령 질라스는 「신계급」이라는 저서로 소련을 심각하게 분석했다. 또한 트로츠키, 레닌 등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막스 이스트만의 저서 「내가 알고 있는 영웅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직접 목격한 윌리엄 헨리 챔벌레인이 쓴 「소련의 의문」 등은 모두 소련의 진상을 들추어 낸 양서들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그들 공산상대회의 결의안이나 1932년, 1938년, 1940년에 소련의 추태를 가장 잘 드러낸 노동법령 그리고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의 간행물 특히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 등으로 그들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사회민주당간부급들의 실종 등은 그들의 내면을 웅변으로 예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서두에 인용한 일문의 필자인 블라디미르 V. 체르나빈은 레닌그라드에 있는 농업경제연구소의 어류학 교수로서 1930년에 48명의 우수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총살할 때 그것을 겨우 모면해 나온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북부국가어업신탁국 노예노동자수용소의 생산연구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가 나중에 북부수용소로 옮겨 거기서 핀란드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의 저서 「침묵자를 위한 발언」중에서 왜 하필이면 청어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냈을까? 청어는 어디까지나 청어지 혁명도 반혁명도 아니다. 그러나 이 청어는 우리가 만약 어업에 종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도 역시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준해 주고 있다.

이 속에서 모든 인류의 감정과 관료정치하의 우울한 모양과 살기 위한 그들의 실제적인 수단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 구태여 맑스 레닌주의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조그마한 사실을 통해서 소위 사회주의국가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눈으로

보는 듯이 알 수 있다.

시인 예세닌은 그가 자살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 벗들이여, 안녕!.....

이 생애에

죽는다는 것에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지만,

삶에는 더욱더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 조그마한 청어의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합의의 발전은 소련을 오늘날의 소련으로 발전시킨 열쇠가 된다. 체르나빈의 말을 더 인용해 보자.

수용소 관리처나 모스크에 제출할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면 언제나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서 준비해야 한다. 즉 사무실에서는 죄인들 중 전문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정확하게 정리 작성하고 창고에서는 죄수들이 커다란 통이나 상자 또는 바구니에다 부지런히 고기를 포장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업무부장 시만코프는 늘 두 조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포장작업을 감독하고 이들 <상사>들에게 보낼 <선물>을 일일이 조사하여 상자마다 보낼 곳을 조심스럽게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부서가 다 자기네의 장들에게 선물을 보낸다. 농어부에서는 햄과 버터와 제일 좋은 채소를 보내고 지방장관에게는 크림을 또 그의 아내나 딸들에게는 꽃을 보낸다. 구두와 양복을 짓는 공장에서는 죄인노동자중 양복과 구두제작의 기술이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를 통털어 제일 좋은 사람을 골라 그들 상사와 가족의 의복과 구두를 지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예부에서는 또 제일 정교하게 잘된 공예품을 보낸다.

이러한 일은 결코 칼 맑스가 제안해서 실시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대로 소련에서는 번번히 공공연하게 그러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예증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의 괴이하고 추악한 제진상을 해부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악한 인간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 <권세>에 향한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권리투쟁은 어느 곳에서나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 내에서는 헌법과 여론으로 억제 구속되지만 그들 소련에서는 이러한 억제나 구속이 없이 다만 집권자가 공포수단으로 인민을 억압함으로써 그네들의 권세욕을 마냥 펼치고 있다.

(2) <금전욕>, 특권욕, 생활개선문제(자녀에게 좀 더 좋은 고등교육을 시키고 좀 더 좋은 음식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싶은 갖가지 희망 등) - 이러한 욕구는 결국

인류의 통성(通性)으로 보통 돈에 따라서 그 욕구가 좌우된다. 레닌의 설에 의한다면 안전을 갈망하고 편안히 좀 더 개선된 생활 속에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은 상층의 부르조아지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고 또 차르황제 치하의 통치계급을 지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이미 일반 국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고한 특권을 가진 관료계급들이 새로운 부르조아계급을 조성하였으며 이들 비생산적이고 기생충적인 신자산계급에 의해 인류의 욕망이 완전히 농단(壟斷)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서는 일지기 앙드레 지드가 예언한 바 있으며 질라스도 증언한 바 있다.

(3)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소위 <민족주의(Nationalism)>에 향한 인류의 욕망은 독점자본주의체도로 하여금 식민지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한 말은 바로 그들의 공산세계혁명이 지향하는 곳이며 그들의 인위적인 <사회주의세계시장>은 바로 국가이기주의 만족을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4) 상업적 탐욕과 이기심 - 이런 종류의 욕망은 다시 말해서 나의 적은 자본을 가지고 남에게서 커다란 이익을 끊어내자는 욕구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진보 발달된 노동법으로 이러한 욕망을 억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소련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갈수록 저락(低落)해 가고 생산증가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행시켜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인격마저도 상실하고만 썩이다. 결론을 한다면 노동에 태만 한다면 당장 비인도적인 처벌, 즉 예를 들면 원료품배급 중지라든가 주택주거권 박탈(剝奪) 등에 신음해야 한다. 이토록 그들이 강제노동 또는 혹사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그들 소련의 소위 '사회주의경쟁'의 소치인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신분저락은 레닌이 집정하던 시대의 제10차 및 제11차 공산당대표대회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며 이것은 다시 스탈린이 집정하던 때에 와서 더욱 굳어졌다. 즉 레닌은 노동조합을 설립시켰으나 스탈린은 한층 더 험악하게 그들에게 국가적인 과업으로서 노동생산 증가를 강요했던 것이다. 레닌은 진정으로 자본주의 자산계급이 소멸되어 없어지기 전에는 무력과 공포 그리고 비밀경찰의 공포정치가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했으나 동시에 만약 그가 꿈꾸던 사회가 미구(未久)에 이룰 것 같으면 앞에서 말한 그러한 무력과 공포의 수단도 역시 정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맑스 레닌주의에다가 한 굴레의 공포정책을 가미해 가지고 오로지 그것만을 가지고

마치 차르황제가 행한 것처럼 제국주의적인 전단정권(專斷政權)으로서 그의 욕망의 하나인 권세욕을 만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우리가 본 당대표대회의 개최연한의 간격이 스탈린에 의해서 연장되다가 드디어 13년이나 벌어진 것을 알고 있고 더욱이 1939년 3월에 당대표대회를 개최한 그가 8월에 가서는 히틀러와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은 그가 항시 욕하던 파시스트와 자의로 합작한 것을 말해준다. 또한 1941년 양자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도 그는 역시 당대표대회를 소집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쟁을 했던 것이다. 스탈린 자신이 죽고 난 뒤 말렌코프, 모로토프, 베리아, 후르시초프가 서로 웅장(雄長)을 다투다가 3년 후인 1956년에야 비로서 제 2차 당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소위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소련의 노예노동은 왜 생긴 것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까다롭게 그네들 식으로 공산주의 운운했자 알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인간의 행위라고 보고 해명 할 때 우리는 극히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이론 중에 아주 간단한 정율(定律)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인위적 입법이나 정치적 억제가 없으면 저급임급의 노동이 고급임급의 노동을 구축(驅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공장 경영자가 무상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데 공연히 임금지불을 한다면 그를 당장 미친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급노동으로 최대한의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가의 좋은 타산(打算)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극히 간단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제적인 정율(定律)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소련의 노예노동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정율에 비추어 볼 때에 소련인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현명한 자본경영주인 것이다. 결국 소련의 자본주의야말로 고도의 발달을 했다고 하겠다. 물론 그 고도의 발달을 했다는 발달 내용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정도 상으로 비교될 수 없으며 아울러 성질상으로도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소련이 이른바 사회주의국가라면서 4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여전히 노예노동이란 괴이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그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위 그들의 소련사회주의경제 및 경제계획 중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노예노동이 그들의 경제상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이 자본과 노동력을 독점억제하고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체르나빈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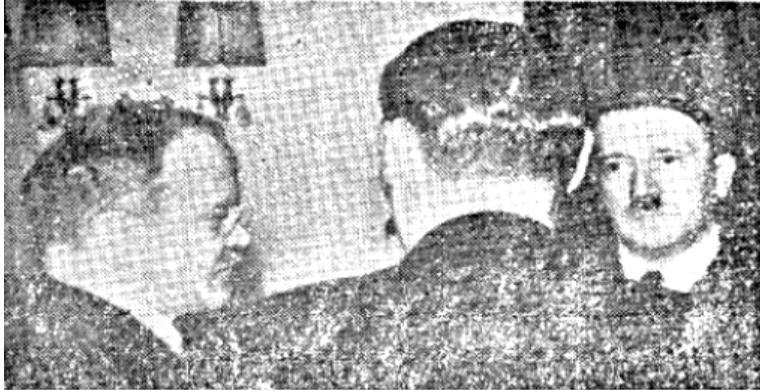
……집단수용소마다 수많은 노예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GPU 비밀경찰기구(정치보안국)의 기업투자로서 값비싼 기계의 대신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장장에 공장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기계에 맞는 일정한 수량과 거기에 적합한 종류의 원료라든지 또는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노예노동자들은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설비 없는 집을 짓고도 그들의 연료 즉 음식물은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하여 1킬로그램의 빵을 단 400그램으로 줄일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식량 따위는 완전히 취소해 버리고 상한 말고기나 낙타고기를 주어서라도 일을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예노동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계의 가장 큰 효용 중의 하나는 이들은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다. 오늘은 운하를 파게할 수 있고 내일은 벌목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다음날은 고기잡이에 불러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필연적으로 그들을 강박할 조직 즉 GPU비밀경찰기구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익은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 노예노동자들에게는 자본을 들일 필요가 없다. 즉 이들 노예노동의 내원(來源)은 무한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이익이라든지 상환(償還)같은 것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노예노동의 생산품은 모두 비밀경찰의 손으로 독점 판매된다. 일례를 들면 어민에게서 산 연어나 청어는 그들 비밀경찰의 손을 거쳐 국영 호텔에 거의 30배의 가격으로 독점 판매되는 것 등이다.

이상에서 그려진 체르나빈의 기록은 1925년경의 정세로 1934년에는 GPU(정치보안국)는 NKVD(내정인민위원회)로 개칭하고 노예노동자를 관리하던 기구는 GULAG(범죄노동자수용총관리처)라고 하여 이를 확장하고 약 300만명 이상의 노예노동자를 헤아린다. 소련의 이른바 건설은 거의가 다 이들 놀라운 숫자의 노예노동자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소련백과사전」에 ‘사회주의 각 방면에 걸친 놀라운 승리는 이미 범죄자들의 공작까지 사회주의 건설에 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다. 즉 ‘놀라운 승리는 모두가 다 범죄자들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기야 노예노동이 인도에 어긋난다고 해봤자 그들에게는 애당초 문제꺼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원래부터 맑스주의의 개념 속에는 인도자의가 들어 있지 않다.



〈1939년에 나치스·소련 조약이 성립되었으나 나치는 1941년에 소련을 침략했다. 히틀러는 폴란드를 공격하여 제2차 대전을 일으켰으나 1945년에 연합국에 항복한 후 소련은 동구를 자기 제국화 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에 히틀러와 모로토프가 보인다.〉

#### 요약(要約)

### 제3제국의 흥망 (제5부) 종말(終末)의 서곡(序曲)

—WR 사이러 저(著)—

#### 새로운 서곡(序曲)

소위 새로운 질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청사진은 끝내 작성된 일이 없었으나 전쟁중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전후에 압수된 문서등으로 보아 히틀러 자신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나치에 의해 유럽을 지배하고 그 자원을 착취하여 도이치를 위해 사용하고 그들 민족들을 도이치 민족의 노예로 하며 유대민족을 포함한 동부 유럽에 많은 슬라브족, 특히 그 중에서도 인테리켄차를 근절시킨다는 것이다. 히틀러의 말을 빌리자면 유대인이나 슬라브족은 하급인류로서 도이치인 상전을 위해 노예로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간들은 생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유대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44년도 끝날 무렵에는 약(約) 750만의 외국인인 제3제국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며 문자 그대로 피땀 흘리는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강제로 붙들려서 대개는 물이나 식료품도 없고 위생시설도 없는 유개화차에 실려 도이치로 이송된 후 공장과 농장 혹은 광산에서 노동력을 바치고 있었다. 나치들은 이들을 발길로 차고 때리고 굶주리게 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 이밖에도 200만의 전쟁 포로가 이들 외국인 노동력에 추가되었다.

서방측의 포로, 특히 영국인에 대한 취급은 도이치인이 소련인에게 부과한 것보다는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때로는 살해리든가 집단학살의 실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휘관 개이의 지나친 잔학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미군의 폭격이 대규모로 진행되던 1943년 이후에는 도이치측이 계획적인 정책으로서 도이치국내에서 불시착한 비행사의 살해를 장려했다. 민간인들에게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비행사들을 사형하도록 장려했던 것이다.

#### 점령지(占領地)의 나치테러

1941년 10월 22일, 프랑스 신간 <르빠르>지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게재했다. 『영국과 소련에 고용된 비겁한 범죄인들은 10월 20일 아침 난트의 야전사령관을 살해했다. 현재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서 우선 50명의 인질의 총살을 명한다. 지금부터 10월 25일 밤까지 범인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50명의 인질을 총살한다.』

이것은 신문이나 검정테두리를 두른 붉은 색 포스터에 의해서 프랑스, 벨기, 네덜란드, 소련 각지에서 포고되었다. 비율은 도이치측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듯이 도이치인 한 명이 살해되는데 대하여 100명의 인질을 총살하는 것이었다.

점령지역에서는 특별행동대로 알려진 ‘아인자츠’반(班)에 의해서 이보다 훨씬 더 참혹한 테러 행위가 얼마든지 감행되었다. ‘아인자츠’반은 그들이 감행한 일의 성질로 보아서 섬멸반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아인자츠’반은 최초 1939년에 도이치군을 따라 폴란드로 가서 유대인을 게토에 잡아넣기 위하여 힘러와 하이드리히가 조직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후 대(對)소전(戰)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도이치육군과의 협정으로 전투부대에 따라가서 <최종적 해결>의 일단을 실행할 명령을 받았다.

1941년 7월부터 1942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의 남단부를 맡은 ‘아인자츠’반을 지휘한 오렌도르프는 뉴른베르크 법정에서 심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유태인과 소련의 정치 커밋사르를 숙청하라는 훈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부녀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떤 까닭으로 어린애까지 죽였는가?”

“유태계 주민은 완전히 숙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당시 실시된 집단처형 광경을 목격한 한 도이치인(人)은 뉴른베르크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였다.

“나와 부하(部下)감독은 곧 바로 호(壕)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파올린 홀두딩이 뒤에서 연속적으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연령의 차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애까지 채찍을 든 SS대원은 이들의 옷을 벗도록 명령했습니다. 벗은 신과 옷들은 각각 일정한 장소에 놓게 했습니다. 나는 산더미같은 천여 켤레의 신과 옷 무더기를 보았습니다.

비명도 안 지르고 눈물도 메마른 이들은 옷을 벗은 다음 나죽(裸族)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키스를 하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호(壕)옆에 채찍을 들고 서 있는 SS대원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15분 동안이나 호 옆에 서 있었으나 그동안의 피로움을 호소하거나 울며불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사람이 두 살쯤 되는 어린이를 팔에 안고 등계등계 열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기쁜 듯이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살쯤 되는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무엇인가 속삭여 주었습니다. 소년은 애써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머리를 쓰다듬어 무엇인가 타이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SS대원이 동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약 20명 정도의 사람수를 세어서 홀두딩이 뒤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키가 날씬한 처녀 한 명이 내 옆을 지나가며 자신을 가리켜 “스물세살 예요”하고 말한 것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홀언턱을 돌아가 본즉 엄청나게 큰 주검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차서 머리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팔을 제긴 채 얼굴을 쳐들고 있어 아직도 살아있음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구덩이는 3분의 2정도 메워져 있었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천 명은 넘을 듯 했습니다.

총을 쏜 사나이는 다리를 구덩이에 늘어뜨리고 총을 무릎위에 재어놓고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형질하나 걸치지 못한 알몸으로 총대를 몇 단이나 내려가서 쓰러진 사람들의 머리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자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끌어주며 가느다란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연달아 총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구덩이를 들여다 본즉 아래에 깔린 시체위에 뒤덮여져서 몸둥아리가 비틀어지고 이미 움직일 수도 없이 머리를 제멋대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의 한 떼가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게스타포의 유태인국(人局) 장관이었던 칼 아이히만에 의하면 동부에서는 통틀어 200만명이 특별행동대에 의해서 살해되었으며 그 숫자의 거의 전부가 유태인이었다는 것이다. 방대한 숫자이기는 하나 이것은 ‘최종적 해결’이 실시된 이후 힘러의 섬멸 수용소에서 죽음의 함정에 몰리워 들어간 숫자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 ‘최종적 해결’이 가장 처참한 성공을 거둔 이들 섬멸수용소에서는 몇백만인지 헤아릴 수 없는 피수용자가 고문당하고 굶어서 죽었다. 이들 섬멸 수용소 중에서도 제1 규모가 크고 유명한 것이 아우슈비츠이며 이곳은 네 개의 거대한 가스실과 부속된 시체화장장을 가지고 있었고 살해와 매장 능력에 있어서 대부분 폴란드에 있던 그 어떤 섬멸 수용소보다도 우수했다. 마지막 무렵 그곳에서는 하루에 6,000명을 가스로서 살해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 때 그곳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던 루돌프 회쓰는 뉴른베르크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우슈비츠에는 2명의 SS의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수용자들은 의사앞을 행진하게 되고 의사는 그들이 지나갈 때 그 자리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에 적합한 자는 수용소로 보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섬멸 공장으로 즉석에서 보냈습니다. 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지나치게 어리기 때문에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빠짐없이 섬멸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용소에서는 희생자들이 대개는 자신들이 섬멸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는 희생자들을 속여서 이를 소독 제거시키는 것으로 믿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섬멸작업을 비밀리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시체를 태우기 때문에 불결하고 구역질나는 송장냄새가 전 지역에 퍼져 부근 주민들은 모두 아우슈비츠에서 섬멸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무솔리니의 몰락(沒落)

전쟁이 시작되고 3년 동안 도이치군은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유럽대륙에서 정해놓고 대공세를 개시했다. 그러던 것이 1943년에는 형세가 전도되고 말았다.

그 해 5월초, 일찍이 강력무비했던 북아프리카의 추축군의 진 잔존부대를 튀니시아에 몰아넣은 영미연합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이태리인 것이 명백해졌다. 무솔리니는 병든 몸이 되어 공포조차 느끼고 있었다. 국민과 군대에는 패전사상이 팽창하고 있었다. 신뢰를 잃고 부패한 파시스트 체제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었다.

5월에 튀니시아를 점령한 영미연합군은 7월 10일에는 시시리섬에 상륙했다. 이태리군은 붕괴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히틀러에게 전달되었다. 과거 20년 동안 유럽의 무대를 거만하게 활보하던 무솔리니는 60개대를 넘어가는 나이로 이제는 아주 늙고 지쳐빠져서 막바지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7월 25일 무솔리니는 국왕에게 불려가 깨끗이 그 직을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급차에 실려 경찰서로 후송될 때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파시스트 의용병조차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발의 총탄도 발사하지 않았으며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일반은 그의 몰락을 매우 기뻐했다. 파시즘 자체도 그 창시자와 한가지로 손쉽게 붕괴되어 버렸다. 바토리오 원사(元帥)가 장군과 각료를 망라한 초당파내각을 구성하고 파시스트당(黨)은 해산했다. 당원은 주요한 직위에서 추방되고 반파시스트는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9월3일 연합군은 남부 이태리에 상륙했으며 9월 8일에는 서방제국과의 휴전(9월 3일 비밀리에 서명(署名))이 성립되었음이 발표되었다.

며칠 동안 중앙 및 남부 이태리에서의 도이치군의 상황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로마 부근에서는 이태리군 5개 사단이 2개 사단의 도이치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만약 9월 8일에 나폴리 연안에 나타났던 강력한 연합군 침공함대가 수도 부근에 상륙했다더라면 제3제국의 최종적 붕괴는 실제로 1년은 더 빨랐을 것이다.

연합군의 침공함대가 로마부근에 상륙했다더라면 도이치군은 8개 사단을 완전히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연합군은 로마부근이 아니라 나폴리 남방의 사페리노에 상륙하고 또 이태리군의 사단들이 한 방의 총도 쏘지 않고 무장해제를 감수했을 때는 도이치군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것은 도이치군에게는 쉽사리 로마를 고수(固守)할 수 있고 당분간이나마 나폴리까지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도이치측에게 이태리의 3분의 2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도이치를 위하여 무기를 생산하는 북부의 공업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히틀러는 거의 기적적으로 새로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히틀러는 이렇듯 기적적인 행운에 뒤이어 무솔리니를 구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태리 사회주의 공화제를 수립하여 무솔리니를 그 우두머리로 앉혔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새로운 '파시스트 공화정부'에게는 도이치를 위해 봉사하는 권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남부에서의 히틀러의 운명은 도이치군대의 담력, 기략, 무용에 의해서 현저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다른 방면에서는 줄곧 히틀러의 운명은 전략의 일로를 걷고 있었다.

1943년 7월 5일 히틀러는 이윽고 소련에 대한 최후의 공세를 시도했다. 도이치 육군의 자랑인 중전차를 장비한 17개의 기갑화사단을 포함한 50만의 정예부대가 커스크 서방의 소련군 돌출부를 습격했다.

그것은 도이치군의 철저한 패배로 끝났다. 소련군은 미리부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7월 22일경에 이르러서는 기갑화부대는 전차를 반이나 잃고 완전히 저지당한 도이치군은 후퇴를 시작했다. 7월 중순경 도이치군의 돌출부에 공격을 개시한 소련군은 대번에 도이치선을 돌파했다.

이제 소련군의 공세는 전전선에 확대되었다. 하코프는 8월 23일 함락되고 1개월 후인 9월 25일에는 도이치군은 하코프의 북서 300마일인 스모렌스크에서 물러났다. 1943년 운명의 해가 끝날 무렵 소련군은 도이치군을 무찌르고 폴란드·루마니아 국경에 다가가고 있었다.

1944년의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영미군은 해협을 건너 침공하고 소련군이 도이치국경에 다가왔다. 그리고 도이치의 유서 깊은 대도시들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폐허화 할 것이 확실해지자 반히틀러 음모자들은 생사를 결단하는 굳은 각오를 하고 도이치가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나치 독재자를 살해하고 그 제도를 타도할 최후의 시도를 결의했다.

## 히틀러 암살(暗殺)음모

반히틀러 음모는 제3제국의 전기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음모자들의 이상과 계슈타포의 횡포에도 굴치않는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들 음모자들은 웬일인지 강력하게 음모를 결행하는 실천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소규모의 음모단들은 나치를 타도할 음모를 꾸몄으나

최후의 순간에 가서는 언제나 행동을 주춤했다.

그러나 전쟁이 종말에 다가오고 히틀러의 광기가 더욱 더 심해지자 음모자들은 드디어 주저를 극복하고 1943년에는 여러 번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 그 중 한번은 히틀러가 전선배후를 비행할 때 시한폭탄을 비행기에 장치했으나 불발되어 실패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서둘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말 것이었다. 늦었으나 그들의 최후의 노력(努力)이 시도되었다.

6월 6일의 밤이 새자 연합군의 대부대가 노르망디해안에 물밀 듯 상륙했으며 오후가 되었을 때는 2마일에서 6마일의 깊이로 내륙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때 까지도 히틀러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서부군의 총사령관조차 히틀러의 특별허가 없이는 장갑화 부대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장군들이 전차사단을 노르망디에 급파하도록 요구했으나 히틀러는 진행과정을 보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잡자리에 들어가 버렸다. 장군들의 미친 듯한 연호(連呼)에도 아랑곳없이 그날 하오 3시까지 히틀러는 잠을 계속했다.

잠을 깨어서야 깜짝놀란 히틀러는 행동을 개시했다. 기갑화사단을 노르망디에 투입하라는 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히틀러가 큰소리로 자랑하던 대서양의 벽은 수 시간 내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날의 강력하던 공군은 하늘에서 구축되고 해군은 바다에서 구축되었으며 육군은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으나 귀추는 명백했다. 6월 6일 이후 전선의 이니시어티브는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정공은 음모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음모를 추진시켜서 이익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설사 그들의 음모가 순조로이 성공된다 할지라도 최후의 파국(破局)을 초래(招來)시켰다는 비난만을 받을 뿐이라고 믿는 자도 나타났다.

이렇듯 흔들거리던 음모자들을 본계도에 올려놓은 것은 음모단의 간부인 트레슈코프였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암살기도는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결행되어야 한다. 세계와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 도이치저항운동자들도 결정적 행동을 취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을 실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목적과 비해 볼 때 다른 일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음모자들의 정신에 생생한 기운을 집어넣게 되고 그들을 즉시 행동으로 이끌었다.

7월 20일 음모자의 한 사람이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나치 최고급간부회의 장소인 동프러시아의 사령부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다른 음모자들에게는 베를린에서 즉시 대규모의 푸치를 감행할 것이 지시되었다. 12시 42분 회의 장소에서는 굉장한 폭음과 함께 맹렬한 불길에 타올랐고 마치 155밀리 직격탄에 맞은 것 같았다. 시체가 문창으로 날아나고 파편이 공중에 산산이 퍼져 날았다.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극도로 흥분하여 회의 장소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죽지 않았다. 격심한 충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부상은 입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타고 다리에 화상을 입었으며 바른 팔에 약간 상처를 입어 일시적으로 마비되고 귀바퀴에 구멍이 뚫리고 잔등에도 대들보가 떨어져 상처를 입었다.

얼마 후 쇼크에서 깨어난 히틀러는 절규했다.

“놈들을 뿌리채 비틀어 버릴 것이다. 사정도 용서도 없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히틀러는 자기 말에 충실했다. 하오 6시경 푸치가 그저 진압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전화를 붙들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자는 모두 사살해 버리라고 미친 듯이 명령했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신중히 준비된 베를린의 반란(叛亂)은 히틀러의 생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히틀러가 죽었다면 반란에 가담하려던 우유부단한 장교들은 그가 살았다는 것을 알자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3제국의 11년반 동안에 히틀러에 대하여 기도되었던 오직 하나의 중대한 반란이었던 이 음모는 겨우 11시간 반만에 처리되고 말았다.

나치의 도이치인에 대한 만행은 그 절정에 달했다. 체포의 선봉이 휘몰아치고 음산한 고문과 엉터리없는 재판이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했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대장간에서 빌려온 쇠갈퀴리에 희생자를 피아노줄로써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 취해졌다. 희생자의 명부는 실로 길다. 어떤 정보에 의하면 4,98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미 히틀러에 반대하는 자는 없어졌고 그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강력하기 그지없던 육군은 다른 모든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와 더불어 이윽고는 몰락하게 되었다. 육군의 지도자들은 이제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한줌도 안 되는 음모자들이 용기를 보여 주었을 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잃고 있었으며 그들과 도이치 국민은 파멸로 이끄는 히틀러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를 멈추지도 못했다.

## 편집후기



☆...년 초에 나왔어야 할 것이 뜻밖에 용지난(用紙難)을 만나 이제야 햇빛을 본다. 그래서 모처럼 때에 맞춰 꾸렸던 몇몇 원고들이 아깝게도 빛을 못 낸 채 묻혀 버려 김이 빠진 느낌이다. 비록 편집자의 잘못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독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넓은 이해가 있기를 빈다.

아울러 서둘러서 글을 써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집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론'과 '헨들을 바로 잡자'들 다 애석하게도 때를 잃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좋은 글은 '때'와 '곳'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감히 뒤늦게나마 일독을 권한다.

☆...어느새 봄기운이 뚜렷하다. 흔히 희망의 봄이니 창조(創造)의 봄이니 하고들 들뜨게 마련이다. 그러나 들뜨기만 해서 희망도 창조도 이지랑이처럼 허무하다. 꿈을 갖자.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새파란 움처럼 싱싱한 꿈을 갖자. 그리고는 겨우내 쌓였던 온갖 군더더기를 말끔히 털어 제치고 꽃 내음 향기로 운 새 봄을 마셔 보자. <현>

☆...인간만사가 계획대로만 실천된다면 어떠한 고민이나 실망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통례(通例)라기보다 인생(人生)여정의 요철(凹凸)법칙(法則)이라고나 할까?

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요철(凹凸)의 기복(起伏)을 최소한도로 낮게 하는 것이 당면(當面)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지를 직시(直視)하고 올바른 자세에서 '헨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번호에 '가정란'을 특별히 꾸며 보았다. 가정은 인간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데 업무(業務)능률(能率) 및 사기(士氣) 등을 좌우(左右)하기 때문이다.

☆...새 생활, 새 가계는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살림을 꾸며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을 모색( 모색)하느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提供)하리라 믿는다.

☆...남편론(論), 아내론(論) 역시 남편으로서(군인) 어떻게 하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직업(職業)과 입장을 이해(理解)하도록 하며 나아가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尊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愛)하여 화목(和穆)한 부부(夫婦)생활(生活)을 이룩(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데 특집(特集)의 뜻을 두었다.



### 64년도 CSC 졸업

64년도 고급지휘관 및 참모과정 졸업식이 2월 29일 공군대학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 전부대비행안전관회의

공군 전 부대 비행안전관 회의가 2월 29일 수원 기지에서 개최되었다.



꿈은 하늘에  
정열은 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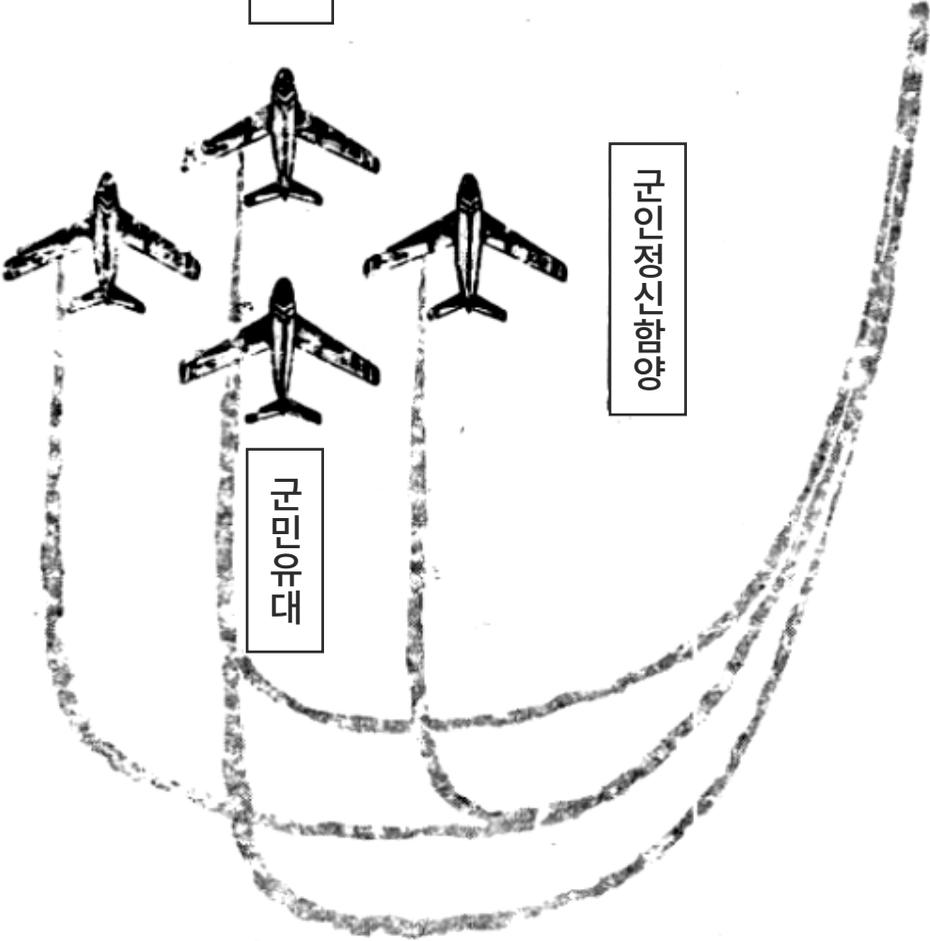
우리의 힘

기술향상

군기확립

근기정신함양

군민유대



공군

月刊

82 22

공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